

모로코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1
2. 정치사회동향 /2
3. 한국과의 주요이슈 /8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11
2. 주요 산업 동향 /14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23

III. 무역

-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27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31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32
대한수입규제동향 /32
관세제도 /32
주요인증제도 /34
지적재산권 /35
통관운송 /36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39
- 외국기업 투자동향 /41
- 우리기업 투자동향 /46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52
- 진출형태별 절차 /54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62
- 조세제도 /64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66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특성 /69
2. 물가정보 /73
3. 바이어발굴 /75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77
5. 무역, 투자 진출시 애로사항 /78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79
7. 이주정착 가이드 /80
8. 출장가이드 /86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개요

국명	모로코 왕국 (불어: Royaume du Maroc, 영어: Kingdom of Morocco) 현지어: 알 마를라카트 알 마그리비아
위치	아프리카 북서단, 지중해 남서단 (북위 23 - 36도, 서경 13 - 17도)
면적	710,850km ² (서부사하라지역 252,120km ² 포함 / 한반도의 3.5배)
기후	북부(지중해성), 중부(대륙성), 남부(사막성)
수도	라바트 (Rabat)
인구	3천 1백 943천명(2006년 기준) - 15세 이상 경제활동 가능 인구: 11백만명
주요도시	카사블랑카(329만 명), 마라케시(67만 명), 아가달(42만 명), 탕제 (50만 명), 페스(61만 명)
민족	아랍인(64%), 베르베르인(32%), 유럽, 유대, 흑인계 등 기타(4%)
언어	공용어(아랍어, 베르베르어), 상용어(불어)
종교	이슬람교(순니파: 99%), 기독교(1%)
건국(독립)일	'56.3.2 (프랑스로부터 독립) 일방적 독립선언을 한 '55.11.18을 독립기념일로 지정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국가원수(실권자)	모하메드 6세(Mohammed VI, Roi du Maroc / '99.7.29 즉위)
입법부	양원제 (상원 270석, 하원 325석)
정당	우파(UC, MP) 중도파(RNI, MDS) 좌파(USFP, PI)등 16개 정당 활동
정부성향	비동맹중립, 대마그레브건설, 아랍 및 아프리카 단결 서부사하라 영토 보전 및 통합

자료원: 모로코 통계청, 모로코 정부

나. 경제지표

GDP	535억 USD (2006년 3분기 기준)
실질경제성장률	7.3% (2006년)
1인당 GDP(PPP)	5,804USD (2006년)
실업률	10.9% (2006년)
문맹률	47.7%(2006년)
평균수명	70.7세(2006)
물가상승률	3.3% (2006년)
화폐단위	디람 (Dirham/DH-국제통화표기로는 MAD로 표시)
환율	US\$ 1 = MAD 8.425(현찰매입율), 8.852(현찰매도율) / 2007년 1월 30일 기준
산업구조	제조업(30.3%), 서비스업(26.1%), 농수산업(23.5%), 건설업(11.4%) 에너지(5.5%), 광업(3.2%) / 2005년 기준
교역품	수출: 농수산물, 인광석, 봉제, 섬유 및 가죽제품 수입: 기계 설비류, 전기 및 가전제품, 화학제품, 원유, 원사, 밀

자료원: 모로코 통계청, 모로코 정부, OECD

다. 한-모 관계

체결협정	무역협정('76) 사증면제협정('93) 이중과세방지협정('99.1) 투자보장협정('99.1) 한모정보통신협력협정('01.5)
교역규모	2006년 수출: US\$ 222.70백만 수입: US\$ 87.3백만
교역품	한국의 수출('06년): -승용차(79,054천USD), -무선전화기(29,340천USD) -합성수지(19,462천USD)
	한국의 수입('06년): -반도체(13,572천USD) -비금속 광물(9,334천USD) -해조류(8,298천USD)
투자교류	18 건 58,200천불: 2005년 말 투자기준
교민	교민 250명 주) KOICA 봉사단 20여명 2001.12월부터 정식활동

자료원: 모로코 통계청, 모로코 정부, 한국 외교통상부

2. 정치 사회 동향

가. 국가조직

모로코의 정체는 입헌군주제(Constitutional monarchy)로 국시는 신, 조국, 국왕이다. 정부 형태는 국왕제(국왕은 3권 초월)이다. 현 국왕은 지난 '99년 7월 서거한 하싼 2세(Hassan II, Roi du Maroc, 61.3.3 즉위)의 뒤를 이어 왕위를 승계한 모하메드 6세(Mohamed VI)로 모로코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다.

1) 왕권

모로코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왕국(Kingdom) 중의 하나로 서기 788년에 최초의 통일 왕조 수립 후 수차 왕조가 바뀌면서 왕국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1660년부터 Alaouite 왕조가 현 모하메드 6세 국왕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국왕은 종교 최고 지도자(Amir Al-Muminin), 국가 원수, 국가 통일의 상징 및 국가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이슬람과 국헌의 수호자(헌법 제 19조)로 명시되어 있다.

왕권은 국왕이 다른 왕자를 후계자로 지명하지 않는 한 장자 상속되며(헌법 제 20조), 국왕은 수상 임명권과 수상의 제청에 의한 각료 임명권(헌법 제 24조)을 행사한다. 또한 각료회의 주재권, 법률 공포권, 의회 해산권(헌법 제 25, 26, 27조)을 갖고 있으며 군 참모 총장을 겸직하고, 군. 민 관리 및 대사임명, 조약 비준권, 사면권 및 비상사태 선포권(헌법 제 30,31,34,35조)을 가지고 있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2) 행정부

행정부는 의회 다수파 중 국왕에 의해 지명되는 수상(Prime Minister)과 수상에 의해 제청되어 국왕이 임명하는 각료(Ministers)로 구성되어 있다. 수상은 국왕과 의회에 책임을 지며 법률을 집행하고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 수상은 Mr. Driss Jettou로 지난 2002년 11월 총선에서 승리한 사회당연합(U.S.F.P: Socialist Union of Popular Forces)등으로 구성된 사회당 연립 내각을 이끌고 있다. 다음 선거는 2007년에 치러지게 될 예정이다.

3) 사법부

사법부는 독립을 유지하며, 법관은 국왕이 주재하는 최고 사법평의회에 의해 임명되고 있다. 법원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개인의 재산권(금액 1,000디람 이하)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는 Communal and District Courts(지방법원)과 행정부에 대한 고소, 행정계약이나 공권력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등을 담당하는 Administrative Tribunals (행정법원)이 있다. 이외 가족법, 상속, 계약, 노동분쟁, 민사 소송 등을 심의하는 Tribunals of Original Jurisdiction(민사 1심 법원)과 형사 소송, 민사 1심 법원의 상고 등을 심의하는 Courts of Appeal(상고법원)이 있다. 이외 Supreme Court(대법원), 지방 관리나 중앙 정부 공무원의 횡령 및 배임에 관한 재판을 전담하는 Special Court of Justice(특별법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범죄나 위법행위에 심의를 하는 High Court(고등법원)과 The Standing Tribunal of the Royal Armed Forces(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4) 의회

과거 단원제이던 의회는 제 4차 헌법 개정(96.9.13)에 따라 상원(Chambre des Conseillers) 및 하원(Chambre des Representants)으로 구성된 양원제로 변경되었다. 하원은 임기 6년으로 직선에 의해 선출되며 정원 325석이다. 하원 의장은 임기 3년으로 최초 의장 선거 후 제 3차 년도 4월 정기 국회에서 의장이 교체되며, 각 위원회 의장단의 임기는 1년이며, 정당 그룹별 의원 수에 비례하여 구성되어 있다. 상원은 임기 9년으로 지역 선거인단 대표에 의해 총 의석(270석)의 3/5을 지역별로 선출 하고, 나머지 2/5 의석은 직능별 대표와 전국의 임금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한다. 상원의원은 재선이 가능하며, 매 3년마다 1/3씩 교체(제 4 차 개정헌법에 의해 선출된 상원의원의 임기는 추첨에 의거 3년, 6년 임기 의원을 선출)되고 있다. 상원의장 및 의장단은 매 3년마다 선출하며, 의장단 구성은 정당 그룹별 의원 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의원 대표로 구성되고 있다. 회기는 년 2회 정기국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 회기는 의원 과반수 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소집되고 있다. 법률안은 수상 또는 의원에 의거 상. 하 양원의 일방 사무국에 제출되며 모든 법률안은 양원에서 별도 심의되고 있다.

나. 정치 제도

1) 선거제도

피선거권과 선거권은 공히 만 18세 이상의 모로코 국적자에게 주어진다. 모로코는 1956년 프랑스로부터 독립 이후 국민투표, 의원 및 지방 선거 등 각종 선거를 치렀다. 최초의 국민투표는 1962년 12월 7일의 헌법제정을 위한 국민투표였다. 지난 1996년 9월 13일 국민

투표를 통한 헌법개정을 통해 상·하 양원제를 채택하였다. 최초의 지방선거는 1960년 5월에 있었고, 2007년에 지방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은 1963년 5월 최초로 치러졌고 매 5년마다 선거가 있다.

2) 정당제도 및 현황

모로코에는 15개의 정당이 난립해 있는데, 주요 정당으로는 Istiqlal(독립당), USFP(사회, 국민 연합당)등과 이슬람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PJD 당 등이다. 지난 2002년 9월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은 현 YOUSSOUFI 수상 (사회당)이 이끄는 여당 연합(사회당 및 독립당 중심)이 승리함에 따라, 모로코 국민들이 큰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개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유권자 중 55% 미만(약 7백만 명)의 투표율을 보인 이번 총선에는 총 26개 정당이 참여하여 295석의 직선제 의석을 놓고 각축을 벌였으며, 이외에 별도로 전국구로 여성의원용 의석 30석을 배당했다. YOUSSOUFI 수상이 이끄는 사회당은 기존 57석에서 50석으로 7석이 줄어 부진을 보였으나 참패를 모면하여 여전히 제 1당을 고수했다. 사회당 주도의 여당 연합 일원인 독립당은 32석에서 48석으로 뚜렷한 의석 증가를 보였다. 총선의 실질적인 승자는 이슬람 세력이 주류인 PJD(정의발전당=Justice and Development)로 기존 9석에서 42석을 얻어 제 3당의 위치에 올랐다.

3) 향후 전망

여당 연합의 두 축이었던 사회당과 독립당이 선거에서 선전, 정국 주도권을 줌으로써 기존의 정책 기조 등에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2개 정당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제 3당으로 올라온 이슬람 세력 주류의 PJD 당의 향후 활동이 정국의 변수로 등장했다. PJD는 공약으로 내세운 반 유태 정책과 팔레스타인 지원 강화, 이슬람 권에서의 모로코 입지 강화, 이슬람 율법에 준하는 은행 시스템 개혁, 이슬람 신도들을 위한 전용 여름 휴양지 설치, 교육제도 개혁, 이슬람교도들에 주류 판매 금지 등 종교색이 짙은 정책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주요 인사

1) 국가원수 겸 최고 통수권자

- 직위: 국왕 (Roi du Maroc)/ 입헌군주제
- 성명: 모하메드 6세 (Mohamed VI)
- 생년월일: 1963.8.21(수도 라바트에서 출생)
- 취임일: 1999.7.30
- 임기: 종신
- 약력
 - 1967-1981: 왕실교육을 통해 초, 중, 고등학교 과정 수료
 - 1985: 라바트 소재 모하메드5세 대학교 졸업
 - 1987: 모하메드 5세 대학교 정치학 석사
 - 1993: 프랑스 니스-소피아 인터폴리스 대학교 법학박사
- 경력
 - 1973.6.28 왕세자 책봉
 - 1983년 인도 뉴델리 비동맹정상회의 모로코 수석대표
 - 1988년 DELORS 전 EU 집행위원장실에서 연수

2) 정부각료

□ 국무 총리

- 성명: Abbas El Fassi
- 생년월일: 1940년, Berkane 출생
- 경력
 - 주택부장관 임명 (1977-1981)
 - 튀니지 및 아랍연맹 주재 모로코대사 임명 (1985-1990)
 - 프랑스 주재 모로코대사 임명 (1990-1994)
 - 노동부장관 임명 (2000-2002)

3) 국무부 장관

- 성명: Mohamed El Yazghi

4) 내무부 장관

- 성명: Mr. Chakib Benmoussa

5) 외교통상부 장관

- 성명: Mr. Taieb Fassi Fihri

6) 모하메드 6세 경제 고문

- 성명: Mr. Andrr AZOULAY
- 모로코 경제정책의 막후 실세. 하산 2세 이래로 왕 고문임.

7) 재정경제부 장관

- 성명: Mr. Andrr AZOULAY

8) 문화관광부 장관

- 성명: Mr. Mohamed Boussaid

9) 국가대변인

- 성명: Mr. Khalid Naciri

라. 외교관계

1) 외교노선

모로코의 대외정책의 기조는 비동맹 중립, 대 마그레브권 건설, 아랍권 단결 및 아프리카의 단결과 서부사하라(Western Sahara)의 영토 보전 및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모로코는 그 간 이스라엘과의 특수 관계를 바탕으로 아랍권-이스라엘 간의 관계 개선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하싼 2세 국왕의 서거로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유혈 충돌 사태를 계기로 모하메드 6세 국왕이 관련국과의 중재역할을 수행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서구유럽과의 역사, 지리, 전략적, 경제적인 요인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 및 스페인이 중요한 동맹국인 한편 주요 교역 상대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제 관계 다변화 차원에서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및 인도와 기존 비동맹 외교에 바탕을 둔 친선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인사 상호 방문 및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과도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근년 들어 일본 국제협력단(JAICA), 해외협력기금(OECF) 및 어업 협력 기금 (OFCE) 등을 통해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대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우리 나라와는 기존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 1975년 북-모로코간 무역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이듬해 북한이 폴리사리오 승인으로 관계가 소원해져 지금까지 실제 인사 및 경제 교류는 전무한 상태에 있다.

2) 지역협력체 참여 정도

아랍 및 아프리카권 단결 정책을 기반으로 실리 추구 외교 정책을 펴고 있는 모로코는 마그레브 아랍연합(UMA) 및 아랍연맹(Arab League)을 통한 역내 국가, 아랍권 및 회교권 전체 단결을 공고히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모로코는 89년 2월 UMA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나 서부 사하라 문제를 둘러싼 알제리와의 갈등 및 서방권의 대 리비아 제재 등으로 현재 UMA는 유명무실화 상태에 있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로서의 일체성을 부각, 아프리카 제국들에 대한 지원 및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폴리사리오의 OAU 가입에 항의해 1984년 OAU를 탈퇴한 바 있다. 특히 서부 사하라 이남 국가들과는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모로코의 최대목표는 EU 회원국 가입에 있다. 87년 EU에 가입 신청을 한 바 있으나 2006년 기준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2000.3.1일부로 모-EU 간 관세 인하 협력 협정이 발효되어 오는 2012년에는 자유 무역 지대로 이행될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이는 튀니지, 팔레스타인에 이어 지중해 연안 중동국가로는 3번째 협정이 발효된 것이다.

3) 주요국과의 관계

□ 대 프랑스관계

프랑스와 모로코는 과거 식민지 관계였다고 여겨질 수 없을 만큼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모로코 총 수출의 약 30%, 수입의 20%, 외국인 투자의 35%, 무상 원조의 30%, 해외 거주 교민의 43%, 해외 취업자 송금의 63% 등을 점유하는 제 1의 대외 교역. 협력 상대국의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테랑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모로코-프랑스 관계가 한때 경직되기도 했으나, 중도 우파인 시락 대통령 취임 후 양국 정상 교환 방문 등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 대 미국관계

미국과 모로코의 양자관계는 1787년 모로코가 당시 신생 독립국인 미국을 세계 최초로 승인한 이래 군사, 외교분야에서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1956년 모로코가 프랑스로부터 독립 이후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 발전되어 왔으며, 특히 중동 평화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미국의 대 중동 외교정책에 중요한 동반자 위치를 굳히고 있다. 동서 냉전시기에도 미국과 구 소련 양 진영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여 균형 외교를 펴 왔다. 한편 모로코는 81년 구 소련이 폴리사리오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미국에 지원을 요청한 일이 있으나 걸프전 발발 시 쿠웨이트를 즉각 지원하여 미국으로부터 차관 지원 및 서부 사하라 문제에 있어 모로코에 대한 지원을 약속 받은 경우를 보면 자국의 실리 외교에 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9.11일 사태 이후 아랍 국 중 미국에 가장 협조적인 나라로 인식되고 있으며 2004년도에 모로코- 미국간의 FTA협정체결로 경제, 정치적 유대관계가 더욱 공고해 지고 있다.

□ 대 알제리 관계

서부사하라에서 스페인을 축출하기 위해 1967년 알제리와 모리타니아와 함께 서부 사하라 독립 운동을 지원한 경우와 1969년 알제리에 분쟁 지역을 양보함으로써 서부 사하라에 대한 주도권을 얻음과 동시에 알제리와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1975년 모리타니아와 서부 사하라 영토의 분할 소유에 합의함에 따라 알제리와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하싼 2세 전 국왕이 1985년 아랍연맹 의장으로서 UMA 창설을 제의해 알제리와 관계 개선을 시도했으며 1987년 알제리와 포로교환 등 상호 협력 관계로 진전하여, 1988년 알제리와 모로코가 제1회 마그레브 정상회담에 합의하고 1989년 리비아, 튀니지, 모리타니아를 포함한 마그레브 아랍 연합을 창설하게 된다. 1991년 알제리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해 공식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 94. 8월 마라케쉬 ASNI 호텔에서 발생한 호텔 습격 테러범들이 알제리에 의해 사주되었다는 혐의로 양국 국경은 2006년 까지 폐쇄 상태에 놓여 있다. 최근 알제리 신임 대통령 취임 후 모로코는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서부 사하라문제로 관계 정상화에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 대 중국 관계

56년도 중국과 외교관계 수립 후 처음으로, 모로코 국왕 모하메드 6세가 2002년 2월 5일 중국방문을 하였으며, 모로코 국왕의 중국방문은 장저민 중국 국가주석의 99년 10월 모로코를 방문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양국의 관계는 증가하기 시작하여, '07년 1분기중 중국의 대 모로코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프랑스, 스페인에 이어 제 3위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06년 대 모로코 제 5위의 수출국이었으나, '07년 1분기중 미국과 독일을 제치고, 2단계 상승하였을 뿐 아니라 대 모로코 2위의 수출국인 스페인과의 수출 격차를 크게 좁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06년 중국의 모로코 제품 수입규모는 1.7억달러로서 모로코에 대해 상당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05년에 비해 모로코 제품 수입이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 양국간 현안 문제가 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중국은 모로코 여러 산업분야에 진출을 강화하고 있으며 철근 공장(Faston 사) 및 오토바이 조립공장(Motochina 사)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으며, 모로코측에서는 자국 은행중 하나인 BMCE가 중국 베이징에 지점을 설립하는 등 중국과의 교류를 매우 중시하는 분위기가 조성 되어가고 있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모로코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나라의 영향과 대책

모로코-EU 간에는 2010년까지 모든 관세를 철폐한다는 관세 인하 협정이 체결되어, 모로코에 수입되는 EU 제품의 관세가 매년 인하되고 있다. 반면 모로코의 수입 관세율은 평균 32.5%로 높으나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직물, 자동차, 화학 제품, 철강 등은 관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해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해지고 있다.

또한 모로코-미국의 FTA 타결로 IT 분야, 백색 가전 분야, 공구류, 전기 제품, 보안 장비 등의 미국 제품 수입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모로코-미국간 FTA 타결로 외국 기업들의 대 모로코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도 중장기적으로 유럽 시장 진출 및 대미 수출을 위한 생산 기지로서 모로코 투자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로코 국영 기업 민영화에 따른 경제 개방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 모로코 투자 분야로는 섬유/직물, 신발, IT 제품 생산 등이 유망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 e-government 협정

2001년 설립된 세계 은행의 국제 정보 격차 해소 재단(Development Gateway Foundation, Inc.)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정보 통신 교육 정보화 자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3년 모로코의 전자 정부 구축을 지원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사업의 파트너로 한국이 선정되어 한국 전산원은 2004년 1월 27일 세계 은행 국제 정보 격차 해소 재단(DGF)과 모로코 국가 정보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계약을 맺고 양해 각서를 교환했다. 양해 각서에는 전자 정부 로드맵 수립, 국가 통신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DGF로부터 실비 수준의 12만 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4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술 실무자들이 모로코에 파견되어 모로코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 정부 및 초고속 국가망 구축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기술 자문을 담당했다. 모로코 정부의 전자 정부 프로젝트 책정 예산은 6,000만 달러 규모이며,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모로코는 정보화 의지가 높고 통신 기반 인프라가 잘 갖춰진 편이다.

협정 체결 이후 양국의 여러 가지 제반 상황으로 인해 2004년 7월 이후 진행 속도가 늦어지자 지난 2005년 12월 19일자 Le Matin 지에 모로코 정부의 적극적인 e-government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한국의 IT 현황을 소개하는 내용의 사설이 실려서 양국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다. 한-모 경제 세미나

2005년 12월 8일, Rabat시에 소재한 모로코 외무부 회의장에서는 주 모로코 한국 대사관과 모로코 외무부가 공동으로 한-모로코 경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는 양국의 정부 인사뿐 아니라 업계 및 학계에서도 참가해 여러 가지 유익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모로코 정부 인사가 모로코의 경제현황에 대해 설명했으며, 한국 측 학계 및 정부 인사의 경제발전 현황 설명에 이어 양국 패널간 토론이 있었다. 특히 모로코 상공부에서 공업국장이 참석해 향후 모로코의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 계획과 발전전략에 대해 발표해 눈길을 끌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프라 구축계획: 130 억달러 (2005~2010)
 - 관광산업: 50 억달러
 - 수도보급확대: 23 억달러
 - 에너지: 30 억달러
 - 고속도로 건설: 100km/ 연
 - Tanger 시 항구건설 (지중해 항구)
- 모로코의 주요 발전전략 분야
 - 서비스 (offshoring): 19 억달러 (2013년까지, 고용창출 10만명)
 - 식품, 섬유, 공예품, 해산물
 - 자동차 (140억유로)

모로코는 이러한 발전 전략에 따라 10년 동안 매년 GDP의 1.8%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총 44만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무역 역조를 5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모로코 외무부의 본부대사는 다음과 같이 한-모로코 경제 협력 발전에 관한 모로코 정부가 한국에 대해 바라는 점을 발표했다.

- 한국기업의 대 모로코 투자진출 확대
- 은행, 금융 부문에서의 양국간 업무약정
- 모로코 제품을 한국에 알리기 위한 한국내 모로코 관련 세미나 개최
- 모로코의 대 EU, 미국, 터키 등과의 FTA 체결 이후 모로코의 경제 효과 확대
 - 모로코는 3천만 인구이지만 FTA를 통해 10억 인구의 국가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

이외에 한국 측에서는 학계·정부·업계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 역사와 경제 현황을 설명함과 아울러 전자부문 세계 선두 주자 중의 하나인 삼성 전자에서 현황 및 발전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세미나는 그 동안 지리적, 언어적, 문화적으로 소원한 한-모로코 기업간 협력 분위기를 정부 차원에서라도 우선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모로코 Tanger시 Expo 2012 준비현황

□ Expo 2012 준비현황

- Expo 위치
 - 면적: 75ha (75만 m²)
 - * Expo 관련 건물이 위치할 면적은 25ha이며, 나머지는 공원 등임.
 - Expo 현장은 지중해 해변에 면하여 있음.

- Expo 관련 건물
 - 건물이 위치할 25ha 는 별(star) 모양으로 조성
 - 비상시 5 분내 모든 인원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 시설 설치 예정이며, 출입구에도 고성능 보안 시설 설치
- 주제: Route du Monde, Rencontre des Cultures. Pour un Monde plus unite
Crossroad of the World, Meeting with Cultures for more united World
- 주요 유치전략
 - 아프리카 대륙에서 Expo 를 최초로 유치한다는 점을 모토로 활용
 - *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Expo 행사를 통해 아프리카의 세계화에 기여
- Expo 유치계획 공식 발표 ('06.12.18)
 - 모로코 정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140 회 BIE 총회에서 Expo 유치계획을 공식 발표했음.
- 정부 준비위원회 발족
 - 위원장: 모로코 수상 (Mr. Driss Jettou)
 - 위 원: 각 부처 장관 및 고위관리
- 민간 준비위원회 발족
 - 위원장: Tanger 시장 (Mr. Daham Derham)
 - 위 원: 약 200 명 (정치인, 경제인, 예술가, 교수, 스포츠인, 기업 등 각계 각층)
- 투자예산
 - Tanger 시 준비를 위해 8,000 만 달러 우선 투자
 - Expo 시설 및 주변 인프라를 위해 투자금액 확대 예정
- 숙박시설 확충: 2012 년까지 호텔방수 2 만 9,000 개 실 건설

□ Tanger 시 현황

모로코 북단에 위치한 항구도시로서 스페인과는 지중해의 지브랄타 해협을 사이에 두고 14km가량 떨어져 있음.

- Tanger 항을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조성하기 위해 FTZ(자유무역지대)를 설치
 - 현재 100ha 에 불과하나, 향후 1000ha 로 확대 예정
 - 각종 인센티브를 통하여 외국기업 투자유치 박차
 - * 모로코-EU, 모로코-미국 FTA 시행에 따라 FTZ 투자유치 가능성 높음.

*

□ 참고사항

- BIE 위원 모로코 방문: '07 년 3 월
 - BIE 위원의 Expo 후보지역 공식 방문 및 준비상황 점검

- Expo 행사 운영시간 확정
 - 조건: 이벤트 참여인원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Expo 운영시간 설정
 - Pavillon 운영 시간: 11:00~23:00
 - 놀이공원: 10:00~03:00 (익일)
- Expo 2012 를 통한 기대효과
 - 소득 효과: 8000 만 달러
 - 국제도시로서의 Tangerang 시 이미지 획득
 - 아프리카 대륙 최초 Expo 개최도시로서 역사적으로 기록
- Expo 예상 관람객: 연인원 600 만 명 (추산)
 - 1 일 관람인원 6 만 5000 명, 주말 관람인원 13 만 명/1 일 예상
- Expo 이후 시설 활용: 관광지 및 휴양지
 - Tangerang 시는 Expo 준비과정에서 투자된 상당한 인프라와 Expo 시설을 활용해 국제적 도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됨.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2007년 경제동향

1) 경제 개황

2006~07년의 가뭄은 최근 15년 중 최악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수는 물론 농산물의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뭄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수입 농산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어 금년중 버터 수입가격이 70%나 상승했고 곡물가격은 80% 상승하였다. 특히 공급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리의 경우에는 조만간 정부 차원에서 입찰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그러나 농업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전년대비 상당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3-4월 중 예상치 못한 상당량의 강우로 인하여 07년 상반기중 농업부문에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농업부문의 약세로 인해 07년 중 GDP 증가율이 2%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가뭄으로 인한 곡물 생산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과일류나 채소류의 생산이 증가하였으며, 아울러 이들 상품의 수출도 활발하여 곡물 부분의 손실을 크게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부문과 광업부문에서는 07.1-7월 중 새우, 조개류의 수출 증가와 인광석의 수출 증가로 각각 5.9%, 4.4%의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전기 부문에서는 07.1-7월 중 기업활동의 확대와 일반 가정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8.9%의 전기소비량 증가를 보였다.

한편, 모로코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 분야에서는 07.1-7월중 관광객이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0.6% 증가한 314억 디람(38억달러)에 달하였다.

투자부문에서는 07년 상반기중 51건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02-06년 중 반기 평균 투자가 28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한 것이다.

무역부문에서는 07.1-7월 중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수입은 같은 기간 중 13.5% 증가하였다. 수입 증가의 주요 원인은 상반기중 가뭄에 따른 식품 수입이 가장 큰 요인(전년동기대비 44.6% 증가)이었으며, 설비투자를 위한 기계장비, 일반 소비재 등의 수입도 큰 역할을 하였다.

2) 부동산 가격상승

모로코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치솟아 아파트의 경우 2005년에 비해 현재 가격이 2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상업중심지인 카사블랑카에서는 이 기간에 아파트 가격이 3배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고급 주택 및 사무실이 집중적으로 건설되는 지역은 새로운 도시의 중심지로 등장하고 있으며, 1개 도시에 몇 개의 고급 주거지 및 사무실 중심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많은 사람이 부동산 열풍에 휩싸여 있는 관계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둔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힘을 쏟고 있다.

□ 부동산 가격상승 요인

모로코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은 외국인 기업의 모로코 진출이 크게 확대된 데에 있는데, 외국 기업이 몰려있는 카사블랑카, 마라케시, 라бат 등 3대 도시에서 부동산 투기가 심하며, 최근 지방 도시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는 추세임.

특히 외국인의 경우 어느 정도 품격 있는 주거지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고급 주택 및 사무실 부문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리드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러나 저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에는 건축붐이 일면서 모래, 시멘트, 철강 등의 자재난이 겹침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모로코 정부는 2010년까지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지 개발 및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상황이 벌써 2~3년간이나 지속돼, 이미 부동산 갑부들이 많이 탄생했으며, 갑부들은 다시 부동산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물가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동산 구입자금이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투자자본을 크게 왜곡하고 있는 것을 나타남.

□ 정부 대책

현재 맹목적인 부동산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모로코 정부에서는 최근 부동산 구입시 구입목적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작성해 시행 중이다. 모로코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공급과 수요의 큰 차이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공급량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현재 공급이 크게 필요한 부동산은 고급 주거지 및 고급 사무실이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제조업의 대외 경쟁력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실제로 카사블랑카의 경우 다른 도시에 비해 물가가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기업이나 모로코 대기업을 위주로 종업원의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모로코 정부는 현재 국가의 발전을 위해 제조업체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부동산 열풍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둔화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최근 건설경기 활성화와 관련, 모로코는 전반적으로 시멘트, 콘크리트, 철강 등의 자재 부족상태에 있다. 시멘트의 경우 현재 연간 생산능력 1100만 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어 현재 수요량 약 1000만 톤을 커버할 수 있으나 향후 매년 12%가량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생산시설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며, 콘크리트 부문에서는 시설이 낙후해 큰 폭의 투자가 필요함(관련 설비, 레미콘 차량 등). 또한 모래 준설이나 대리석 공급업체들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관련 설비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나. 2006년 경제동향

모로코의 2006년 물가상승률은 '05년 말 모로코 정부가 예측했던 1%을 훨씬 초과해 3%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06년 7월 이미 2.9%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6년 8월에 공식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상승했으며, 교통비 및 식품, 음료 등 일반 생활비의 물가 상승은 서민계층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6년 모로코 인플레이션 상승의 주요 원인은 연중 지속되어 온 국제 고유가 현상으로서 이것이 교통비, 운송비, 원자재 및 농수산물 가격 상승의 직접 원인이 됐으며, 이어서 식, 음료 및 의복, 주거환경 비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요 도시 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카사블랑카(3.1%), 아가디르(3.4%), 마라케쉬(3.1%), 페즈(3.5%) 등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상승내용을 보면, 식품가격은 평균 3.3% 상승했으며, 우유 1리터당 0.1DH (10센트), 커피 1KG당 0.5 -0.8DH (50-80센트), 설탕 1KG 당 0.5DH (50센트) 상승하였다. 더욱이 라마단 기간 동안 일부 중간 도매상인들이 사재기나 공급물량 조절을 통해 생필품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많은 상승폭을 보인 분야는 휘발유 및 대중 교통비로 조사되었다. 유가의 경우 올해 이미 3차례 가격인상됐으며, 최근 3년간 약 30% 가격 상승을 보였다. 교통비는 평균 10.6% 상승했으며, '06년 초 택시 기본요금은 40%나 인상됐으며, 주행거리 당 단가도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ONCF (모로코 철도청)도 지난 8월 요금 인상을 단행 하였다.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등 주거비용이 크게 인상돼, 전년대비 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현재 경제발전의 속도를 내고 있는 모로코 경제에 적신호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주변의 산유국에 둘러 쌓여 있는 비산유국인 모로코로서는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체에너지 확보 등의 과제가 시급하게 되었다.

2. 주요 산업 동향

가. 금융업

1) 금융 시장 개황

모로코의 금융 기관은 중앙 은행, 15개의 상업은행, 보험회사, 주식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59년 설립된 모로코 중앙 은행인 BANK AL-MAGHRIB는 발권 은행으로 외환 보유고를 유지 관리하고, 시중 은행을 통제, 정부의 재정 정책을 자문하고 있으며 통화 정책의 기초를 인플레이 억제, 모로코 디람화 가치 유지에 두고 있다. 모로코에는 15개의 금융 기관이 있으나, 이중 3개 대형 은행이 예금의 63%, 대출의 55%를 차지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 소득 층이 양극화되어 저축률이 낮은 편이고 부유층은 아직도 부동산 투자에 매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 모로코 거주 교민의 송금은 2004년도에 37억 유로에 달해 저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카사블랑카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환율은 과거에 중앙 은행에서 고시되었으나 1996년 5월 은행간 외환 시장이 형성된 이후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경상거래를 목적으로 한 대부분의 외환 거래가 1993년부터 자유화되었으나 자본 거래는 아직까지 규제되고 있다. 1996년 BIS비율 8%가 도입되었고, 단일 차주에 대한 대출 제한 비율이 자본금의 7%에서 10%로 상향 조정되었다. 한편 모로코 통화인 디람화는 지난 몇 년간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으나, 2006년 US\$1= 약 8.9DH로 안정화되었던 디람화는 2007년 8월말 기준 US\$1= 약 8.1DH까지 가치가 하락 하였으며, 이는 최근 달러화 약세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 은행제도

모로코는 프랑스 금융 제도를 받아들여 비교적 포괄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중앙 은행, 상업 은행 16개, 정부 소유의 특수은행 5개 및 신용조합 15개와 보험 회사, 연금 기금 및 주식 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가 신용 및 자금 공급을 직접 통제하여 왔으나, 1991년 금융 자율화 조치 이후 신용 공급이 자율화 되었으며, 중앙 은행에서 이자율 조정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조정 및 개입하고 있다.

시중 은행은 대부분 유럽계 은행들이 지분 참여를 하고 있으며, 최대의 민간 은행은 ATTIJARIWABA BANK로 2004년 BCM (Banque Commerciale du Maroc)과 WABA BANK의 합병으로 출범 했다. 지분의 29.6%를 모로코 그룹 ONA가 소유하고 있으며, Banco Central Hispano, Credito Italiano, Credit Commercial de France 등의 외국계 은행들이 지분 참여하고 있다. 중앙 은행인 Bank Al-Maghrib은 모로코 재무부와 함께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재정 정책 수립, 지폐 발행, 정부 외환 감독 관리, 정부 재정관리, 상업 은행 및 특수 은행 감독 등 업무와 일반 상업 은행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 BMCE
- BMCI
- Banque Centrale Populaire
- Societe Generale
- Credit du Maroc
- Attijariwafa Bank
- CAM (Credit Agricole du Maroc)

- CIH (Credit Immobilier et Hotelier)
- Citibank Maghreb
- Arab Bank

3) 특수 신용 기관

중앙 은행과 제휴한 국가 경제 개발 은행(BNDE), 예치 관리 금고(Caisse de Depot et de Gestion: CDG), 부동산 호텔 은행(Credit Immobilier et Hotelier: CIH), 모로코 시장 금고(Caisse Marocaine des Marches), 국가 농업 신용 금고(Credit Agricole), 국가 투자 회사(Societe Nationale d'Investissement: SNI) 6개의 특수 신용 기관이 있다.

4) 국제 금융 시장

대 모로코 투자 및 무역을 위한 현지 금융이 가능하나 이자율이 높은 편이며, 일반적으로 많은 담보나 보증을 요구한다.

5) 보험

보험 시장은 2002년 7월 이래 개방화 과정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개방화는 보다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영업 이익률 축소를 가져오고 있다. 모로코 보험 시장은 민간 그룹과 다국적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모로코 보험 시장은 아프리카에서 남아공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평가된다. 2002년도 기준으로 120디람(약12억불)매출을 기록하였다. 가장 큰 부분은 생명보험으로 최근 은행을 통한 보험 판매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자동차 보험으로 전체 보험 매출액의 약 34%을 차지하고 있다. 모로코 보험 시장은 국제 협약에 의해 2002년도에 공식적으로 개방화되었으나 자동차 보험은 준비 기간을 주장하며 개방이 연기되었다. 보험 협회(FMSAR)는 과도기에 있는 보험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2006년도에는 보험 시장이 완전 개방화되었다.

국가 사회 보험 공단인 CNSS 가 있으며, 연금 보험 공단으로는 Cimr, 주요 보험 회사들로는 RMA watanya, WAFA assurance, AXA assurance maroc, SCR, RCAR, CNIA Assurance, Sanad, Es Saada Assurance, Atlanta Assurance 등이 있다.

6) 증권 시장

증권 시장은 1993년 관련법 개정과 경제 성장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했다. 카사블랑카 증권 거래소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거래소 중의 하나이며, 아프리카에서 이집트 다음으로 많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수는 약 50개사이며 13개의 중개업체가 있다. 5개 대기업이 증권시장 총자산의 47%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5대 기업의 거래 금액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소수 기업 집중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모로코 증권시장은 2006년 기준 55개의 회사가 상장되어 있으며, 총 120억 달러의 상장액을 보유하고 있다. 7개 은행이 총 자본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5개의 증권사가 1/5을 차지 하고 있다. 모로코 증시는 아직도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카이로 와 요하네스버그 증시보다도 빠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카사블랑카 증시의 10대 주식 회사

(2007년 8월 말 기준)

상호 회사명	분야
MAROC TELECOM (Ittissalat Al-Maghreb)	통신
ONA (Omnium Nord Africain)	그룹
ATTIJARIWAFABANK (ONA)	은행
BMCE (Banque Marocaine du Commerce Exterieur)	은행
COSUMAR (ONA)	제당
CENTRALE LAITIERE(ONA)	유업
CDM (Credit du Maroc)	은행
BMCI (Banque Marocaine du Commerce Industrie)	은행
MANAGEM (ONA)	광산
CIH (Credit Immobilier et Hotelier)	은행

자료원: Bourse de Casablanca

나. 농림수산업

1) 농업

농업은 모로코 산업의 근간이다. GDP의 14%로 경제성장 및 연관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강우량과 일기에 따라 농업 성장이 좌우되고 있다. 전체 농경지는 약 870만 헥타르이고, 950만 필지로 나뉘어져 있어, 전형적인 소규모 영세 농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전체 농경지의 85.7%가 관개 시설이 없는 상태이므로, 한 해의 작황은 강우량에 크게 좌우된다. 현대적인 대형 농장의 규모는 약 100만 헥타르이며, 여기서 생산되는 주요 작물은 오렌지, 감귤, 포도, 올리브 및 채소류 등이다. 이 중 오렌지, 감귤의 80%, 토마토 등 채소류의 33%가 유럽 등지로 수출된다.

2) 수산업

모로코는 지중해에서 대서양에 이르는 3,500Km의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및 어업 기지 라스팔마스 항이 모로코 서부 사하라의 라운(LAAYOUN)항과 마주 보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수산 자원이 풍부하다. 주로 잡히는 어종은 정어리, 멸치, 고등어, 대구, 도미, 오징어 등이다. 수산업 종사자는 약 10만 명이다. 모로코 농수산부에서는 연간 어획 가능량을 150만 톤 정도로 보고 있으며, 적정 어획고를 연간 약 100만 톤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족자원 보호와 수산업 현대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연간 2개월의 휴어기를 4개월로 늘렸으며, 유럽 특히 스페인 선단의 수산자원 남획을 막기 위해 유럽 선단의 모로코 근해 조업권에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정부는 수산업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총 60억 디람(약 6억3천만 불)이 소요되는 이 계획으로 LAAYOUN, TAN-TAN, TARFAYA, SIDI IFNI의 항만 현대화와 DAKHLA의 신 항구 건설에 30억 디람(약 3억1천5백만 달러)이 투자된다. 또한 어업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조업 방식 전환, 미 개발 어장 선단 재배치, 선박엔진 (400마력 이상) 및 어선 현대화(톤수 증대), 냉동시설 신축, 가공 처리 시설 강화를 추진 중에 있다. 전반적으로 모로코 수산업은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문어, 오징어 등 수출 고급 어종의 감소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다. 식품 가공업

2005년 기준 모로코의 식품 가공업은 1,600여 개의 업체가 15만 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다. 이 중 수출 업체는 300여 개이며 70 억 디람(7.3\$)의 제품을 수출했다. 전체 식품 가공업 중 정맥, 제분 업계의 생산량은 100억 디람(110억\$), 식품 가공업 전체 매출의 19%를 차지하며, 제당 업계가 60억 디람(6.2억\$) 생산, 11.5%의 비중, 유제품 산업이 47억 디람(4.9억\$)생산, 9%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상기 생산품들의 대부분은 내수 용으로 소비되며, 수출을 주도하는 품목은 과일, 채소, 생선 통조림 등이다. 농업 생산물의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식품 가공업이 권장되고 있으며, 현대화에 필요한 포장, 가공 기계류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다.

1) 특성

모로코 농업 생산량은 그 해의 강우량에 좌우된다. 농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농업의 풍흉 여부가 GDP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모로코의 경제가 해마다 플러스 성장 및 마이너스 성장을 반복, 톱날형 성장 그래프를 보여주는 이유도 결국 그 해의 작황과 직결된다. 모로코의 가공 식품 수출은 과일, 채소, 생선 통조림이 주도한다. 이 분야의 국내 생산액은 15%에 불과하지만, 전체 식품 수출에 있어서는 78%의 비중을 차지한다. 모로코 식품 가공업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업체의 진출이 활발하다. 유제품의 DANONE, 치즈의 BEL, 생선 통조림의 GROUPE ELITE, 향신료의 BSN AMORA, 화장품용 허브의 YVES ROCHER, 애완동물 동물 사료의 SANDERS, 포도주의 CLARAC ET CLAUZEL, CASTEL, WILLIAM PITTERS, 종자 산업의 GROUPE SNS등이 모로코 식품 산업 및 관련 분야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2) 진출 확대 방안

모로코 농업의 경우, 강우량에 따라 그 해의 작황이 결정되며, 85% 이상의 농지가 관계 시설이 미비하다. 모로코 정부에서는 관계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으므로, 관계시설 관련 워터 펌프 등 기계류의 수출이 유망하다. 단, 정부 발주 공사의 경우, 모로코 조달청을 통하여 자재를 구매하므로 조달청 입찰공고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수산업의 경우, 수산업 현대화 계획에 따른 선박 엔진, 트롤 낚시줄, 냉동 시설 관련 장비, 가공 처리 시설 관련 제품의 진출이 유망하다. 식품 가공업의 경우 제당 및 통조림 산업이 활발하나,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전통적으로 프랑스 업체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신규 진출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

다. 식품 산업

농산물 가공 및 유통 분야는 농업분야 중에서도 가장 이익이 높은 분야이다. 농산물 가공 및 식품분야는 2000년 이후 매년 6.5% 이상 성장해 왔으며, 이는 전 산업 평균 성장률인 5% 보다 매우 높은 수치이다. 식품 및 농산물 가공 분야는 전 농업 수출액의 47%를 점하고 있는 중요 산업이다. 외국 기업들의 투자도 활발하여 Danone, Nestle, Castel and Altadis 가 모로코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음료 부문의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는데 기존의 코카콜라 지배 시장에 펩시가 진입하고 Mecca Cola 및 Zamzam Cola가 새로 들어오면서 치열한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국제적인 유통망과 가공 업체들과 연계가 되어 있어 수출 시장 개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식품 산업은 중대형 기업들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 업체들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올리브 오일, 포도 및 와인, 신선한 채소 및 야채 등은 모로코에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우수한 품질 및 브랜드 구축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유럽 등 시장에서 저가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이다.

관계 시설 부족으로 인한 용수 부족, 특히 강우량에 의해 좌우되는 농산물 작황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식품 산업 발달이 제한되고 있다.

라. 에너지 산업

1) 개황

모로코는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에너지 전량을 수입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원유 수입 비중이 커서 연간 약 15억 달러가 소요되며, 전기 생산에도 많은 화력발전이 의존하고 있어 전기료가 매우 높다. 이러한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제조업 등 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원유를 장기적으로 저렴한 천연 가스로 대체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으며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정유 설비 및 공급, 전기 공급 등의 분야를 민영화하였다.

2)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모로코 사회 경제 발전에 중대 원동력이다.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 농어촌을 막론하고 가정 소비량은 매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모로코의 전력 생산은 20여 개의 수력 발전소와 10여 개의 화력발전소로 구성되어 있다. 오는 2010년 예상 수요량은 250억 KWH로 추산되고 있다. 모로코 동력자원부 산하에 있는 모로코 전력 공사는 1963년 이래 전기 분야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전기 생산과 송전, 도시 농어촌 배전을 책임지고 있다. 2003년까지 전기 보급률은 약 60% 수준이며, 2007년까지 모로코 전역에 100%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모로코 전력 공사는 1997년에 스페인과 지브롤터 해협을 관통해서 electricity network를 연결해 상호 잉여 전력을 교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스페인에서 전력이 남을 경우 모로코에 송전을 해주고 모로코에서 전력이 남을 경우 스페인에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기타 에너지

모로코에는 태양열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가 일부 개발되고 있다. 정부 계획에 의하면 농촌의 태양열 에너지 사용이 2003년도 2% 수준에서 2007년에는 7%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풍력 에너지는 테투앙 지역에 50MW의 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에너지 산업을 국가 기간 산업의 중요한 구심점으로 보고 수력 발전, 바이오 매스 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마. 유통업

1) 현황

모로코에 현대적인 시설과 규모를 갖춘 대형 유통 매장이 진출한 것은 10년이 채 안 된다. 지난 1990년에 도입이 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1999년 카사블랑카, 라바트, 페스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마르잔(MARJANE)과 메트로(METRO)가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마르잔은 모로코 최대 그룹 ONA의 계열사이며, 선진국의 경영 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CONTINENT, CHAMPION 등 유럽 유수의 하이퍼 마켓을 소유한 PROMODES사와 협력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또한 프랑스의 오상(Auchan)으로부터 경영지도를 받고 있다.

한편 독일의 유통망 METRO에서 판매하는 가전제품과 가구들은 현지인들에게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으며 회원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도매 단위로 판매하는 형식을 택하고 있다. 마르잔과 메트로로 양분되어 있던 모로코 대형 유통 시장에 프랑스 대표적인 유통 체인인 오상(AUCHAN)이 시장 진출을 발표하며 모로코 제1의 그룹인 ONA와 제휴, ACIMA라는 상호로 2002년 영업을 개시했다. 현재 모로코에는 상기한 3개 대형유통매장 이외에도 ASWAK ASSALAM과 La Bell Vie 등이 영업 중이다.

2) 특성

모로코의 유통 산업 현황은 소규모 다단계의 중간상인과 우리의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 같이 “수크”(SOUK)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재래 시장으로 구별되고 있다. 카사블랑카를 예로 들면 섬유, 기성복, 주방기기, 조명기기 등의 가정용품을 주로 취급하는 데르브 오마르 (DERB OMAR)지역 일대, 모로코 북부 지역인 스페인령 세우타 등에서 밀수입된 가전에서 식품류까지 다양한 제품의 집산지인 데르브 갈레프(DERB GHALLEF), 두바이를 통해 중개 무역되는 수입품을 주로 판매하는 키사리아 하파리(KISSARIAT HAFARI), 벤 즈디아(BEN JDIA), 고급 기성복, 보석, 이미테이션 제품을 취급하는 갤러리 본 오마르(GALLERIE BEN OMAR) 등의 대형 재래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상품의 유통, 운송 시스템은 소규모이지만 대단히 전문화 되어 있고 효율적이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 유제품의 경우, 화물 트럭으로 전국 소매상에 정기적으로 제품을 배달한다. 코카콜라 또한 전국 약 70,000개의 소매 점을 커버하고 있다. 또한 모로코에는 제품에 따라 전문화된 대형 유통업자들이 있다. 예를 들면, 기계, 전기 제품을 취급하는 STOCKVISS사, 건축 토목자재를 유통시키는 돌보-롱고 메탈(DOLBEAU-LONGOMETAL), 공두와 메탈뤼르지끄 (COMPTOIR METALLURGIQUE)등이 있다.

바. 정보 통신 산업

1) 시장 개황

모로코의 핸드폰 가입자수가 1천만 명(총인구 3천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인터넷 가입자 수가 20만 명에 잠재 사용 인구는 50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5년 하반기 모로코의 제2 통신 업체인 Meditel이 유선전화 시장에 진출하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Maroc Telecom의 유선전화 시장 독점체제가 무너졌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시장이 Maroc Telecom, Meditel의 양극체제에서 2005년 말 Maroc Connect가 새로 진출하면서 3극체제로 바뀌었다. Maroc Connect는 그 동안 인터넷 서비스 업체였으나 모로코 최대기업인 ONA그룹이 인수 하면서 막강한 자본력과 로비력을 바탕으로 이동통신 업체로 거듭나고 있다.

2) 통신시장 특징

모로코는 전통적으로 유럽의 통신시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기존 통신업체인 Maroc Telecom, Meditel은 각각 프랑스의 VIVENDI, 스페인의 Telefonica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2G 체제하에서 GSM을 사용하고 있어 3G 체제에 서도 같은 방식의 UMTS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모로코도 과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3G 통신시장 진입을 앞두고 UMTS 방식 또는 CDMA 방식 선택에 관하여 논쟁이 뜨거웠으나, 이번에 신규 진입할 Maroc Connect는 CDMA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져 우리 업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3) 한국 업체의 진출 가능성

3G 시스템 도입과 관련, Maroc Telecom과 Meditel은 이미 유럽에 파트너 업체를 두고 있으며, UMTS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져 우리 업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나, Maroc Connect는 CDMA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Maroc Connect에서는 외국 업체와의 협력 방식, 협력 분야 등에 관해 오픈된 상태이나, 한국 업체의 기술, 노하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우리 업체의 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아. 건설 시장

1) 시장 개황

모로코 건설 경기는 활황 추세에 있으며, 모로코의 전반적인 경기를 선도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2006년 2월말 기준 시멘트 소비는 130만 톤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5.2%나 증가 하였으며, 대지 가격이나 건설 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

모로코의 건설자재는 대부분 자체 조달하고 있으며, 시멘트나 유리, 목재 일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기초 자재 외에도 대리석, 세라믹, 욕실자재, 전기자재, 알루미늄, 마감재 등의 자재는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

2) 건설 산업의 영향

모로코 건설 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모로코 실업률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모로코 경제의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건설 경기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낳고 있는데, 건설은 물론 그림, 유리, 전기, 세공, 수도 공사, 화장실 시설 등이 그 것이다.

3) 건설 산업의 발전

모로코의 도시 정비 및 주거지 정비는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11만 3천 채의 주택을 건설한 바 있다.

2006년 3월 모로코 수상은 카사블랑카에서 개최된 BTP 전시회(건설 자재 박람회) 개막 연설을 통하여 모로코 건설 경기가 이미 궤도에 올랐으며, 앞으로 건설 경기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로코 수상이 밝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촌 지역의 도로 건설 박차: 매년 1,500KM 건설 (고속도로 160KM 포함)
- 항구 및 공항의 시스템 발전
- 관광프로젝트 추진: 2010년 1천만 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AZUR계획 추진
 - 5억불을 투자하여 6개 해수욕장을 포함한 주변 관광지 건설
- 공공 인프라 건설: 대규모 스포츠 단지, 병원 및 도서관 건설

4) 건설산업 발전 장애요인

2006년 기준 모로코 건설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대부분 탈 농촌 인구들로서 숙련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 노동자의 50%이상이 문맹 상태이다. 숙련되지 못한 인력으로는 건설 산업이 선진화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익성도 낮으며, 안전 수칙에도 밝지 않아 잦은 사고로 연결되고 있다. 또한 노동자를 리드할 수 있는 간부나 기술자의 양성도 저조하여 간부는 관련 노동자 의 2%, 기술자는 2.3%에 불과하다.

5) 건설분야 유망 프로젝트

2006년 정부발표에 따르면, 지중해에 연해있는 Tanger 항구 건설 프로젝트가 18억불 규모의 투자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 물류, 도로, 철도, 수도, 전기 등의 인프라 시설 이 동시에 건설 될 예정이다.

여러 주요 도시간 고속도로 건설도 예정되어 있다. 또한 7개 지역에 96억불을 투자하는 대규모 공공 투자 계획도 2007년 8월 기준 추진 중이며, Settat 지역에서는 홍수 예방과 지하수 공급을 위한 댐 공사도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업체는 일반 건설분야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의 건설 업체 들이 제3국의 저임금 인력을 고용하면서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이 더 이상 우위에 있지 않으며, 유럽 업체들은 지리적 이점과 함께 문화적으로도 모로코와 가까이 있어 모로코 업체와 쉽게 공감대를 갖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비 부분에서 진출을 고려할 수 있는데, 중장비 부품을 비롯하여 전기 기자재 등에서 한국 제품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자. 항공 산업

1) 개요

EU는 계속 고가화 되는 항공부품 및 기자재를 조달하기 위해 저임금이면서 항공산업이 가능한 국가로 동구권 일부 국가와 모로코를 꼽고 있다. EU 항공업체의 모로코 진출이 본격화 된 것은 2000년도부터로서 현재 Saffron, Souriau, Sefcam, EADS 등 세계 항공산업을 리드하는 기업을 포함해 27개사가 진출해 있다.

이들 외국업체들은 수년간 엔지니어링, 정밀기계, 표면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해 왔으며, 2005년도에만 항공분야 투자유치 금액은 6000만 달러에 달했음. 이에 따라 모로코의 항공산업도 동반 발달하는계기를 맞고 있다. 특히 EADS는 자회사인 AIRBUS가

직면하고 있는 신종 항공기(A380)에 대한 부품 및 자재 딜리버리 지연과 관련, 모로코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어, 향후 모로코산 부품의 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AIRBUS가 개발한 A380기종은 각국에서 상당한 주문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나, 대부분 유럽에 흩어져 있는 2000개 이상의 부품 및 자재 공급업체의 생산 및 재고 관리 등의 문제로 2007년 납기에정인 항공기의 납기가 전체적으로 1년 이상 연기될 예정으로 있어 상당한 금액의 페널티를 피할 수 없게 됐으며, 아울러 유럽산 부품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AIRBUS는 2000여 개에 달하는 공급선을 500개로 줄여, 관리를 강화하고, 물류 비용을 절감하며, 아울러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모로코와 같은 저임금 국가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모로코 항공산업의 연간 수출 규모는 7000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총 1,900명의 모로코인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엔지니어 250명, 기술자 1,650명)

2) 모로코 주요 항공산업

모로코의 항공산업은 아직 EU 진출업체를 중심으로 발달돼 있으며, 모로코 자체 기업은 아직 중소기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모로코에서 생산되는 항공관련 부품은 다음과 같다.

- connector, cable, pods, composites and air duct
- surface treatment
- Repair and maintenance of aircraft engines
- Mechanical research and design
- Structural calculation, resistance analysis and electrical design

관련 업계에서는 EU 항공업체의 모로코 진출로 인하여 2008년 모로코 항공산업의 매출 규모가 1억8,000~2억4,000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한국기업 진출가능성

EU 항공업체의 대 모로코 진출은 모로코의 지리적 근접성과 동일 문화권, 이 산업을 뒷받침 할 만한 인력의 용이한 공급으로 인하여 모로코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동일 언어권으로 인해 프랑스에 유학한 모로코인이 많아 인력 충당에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모로코의 산업이 항공산업을 유치할 만큼 질적으로,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 성장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모로코가 EU와 지척에 자리잡고 있으므로 지리적으로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EU와 FTA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항공산업의 대 EU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기업에게는 대 모로코 투자진출이 큰 장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 자동차 산업

1) 모로코산 자동차의 수출

모로코의 유일한 자동차 업체인 Somaca가 최초로 자동차 600대를 수출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올해 모두 5000대를 수출할 예정이다. 이 회사의 수출 자동차는 모두 디젤로서 수출시장은 프랑스와 스페인으로 나타났으며, 5월 말과 6월 초에 걸쳐 선적이 완료되었다. 모로코의 자동차 생산은 2006년에 시작된 것으로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관계자들은 이처럼 수출의 물꼬를 튼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 외에

모로코는 이미 FTA가 체결된 이집트, 튀니지, 요르단 등의 주변 국가에도 수출 예정이며, 이집트에는 올해 닙시바늘의 수출을 예정으로 현지 시험운행 중에 있다.

2) 모로코의 자동차산업 현황

모로코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300만대로 추산되고 있으며, 매년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급속한 상승에 따라 양산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과 외국기업의 진출 확대로 인해 보유 자동차의 대수뿐 아니라 보유 자동차의 수준도 크게 향상되고 있다. 모로코 자체적으로는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으나 Renault가 지분을 갖고 있는 Somaca사를 설립한 후 '06년부터 Logan 브랜드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Somaca산 자동차는 동구소재 Renault 공장으로부터 들어온 부품을 모로코내에서 조립만 한 것이나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소비자에게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3) 모로코산 자동차의 경쟁력

모로코산 자동차 (Logan)은 수입차와 비교해 높은 가격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Logan (무연/경차)는 8800달러이며, KIA Piccanto (경차)는 1만6000달러이다. 여기에 '06년 하반기부터 디젤 차량을 생산하면서 주문량이 적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 부문에서 상당기간 동안 내수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수출에 대비해 Somaca는 종업원을 추가로 400명이나 채용하는 등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재 수출차량이 디젤이 국한돼 있지만, Somaca에서는 Logan 무연차량도 수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4) 모로코 자동차 산업의 미래

모로코 자동차 산업은 이제 걸음마 단계를 막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아직 자체 생산보다는 자체 조립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관련 부품산업도 개스킷, 전선 등 첨단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 위주로 발달해 있으며, 중고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카사블랑카시의 경우 외곽지역에 중고품시장이 크게 활성화돼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유럽의 시각에서 볼 때 모로코는 동구권에 비견될 만한 최적의 투자처로서 Renault가 Somaca에 투자한 것은 나름대로 전략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모로코의 유럽 근접성, 기술인력의 증가, 일하기 좋은 날씨, 유럽,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FTA 시행 등으로 모로코 내 생산거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다수의 산유국이 포진하고 있는 주변 북아프리카 및 중부 아프리카에 대한 진출 교두보로서 모로코는 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Somaca는 자동차 수출이 내년에는 더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종업원을 추가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모로코 FTA 추진 현황

모로코는 2001년 5월 Agadir 선언을 통해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요르단 등 4국간 자유무역 지대(Arab-Mediterranean FTA) 설립 추진의지를 표명했으며, 지난 2007년 3월 발효되었다. 또한, EU와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이 2000년 3월 1일부터 발효(1996년 2월 체결)됨에 따라 향후 12년간 공산품(industrial goods)의 단계적 관세인하를 거쳐 2012년 에는 완전한 자유무역지대(FTA)를 형성, EU 시장체제로 편입될 예정이다.

모로코와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은 2004년 7월 21일 협정 승인됨으로써 미-모로코 FTA는 미국이 아프리카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 무역 협정이며, 요르단에 이어 아랍국가로는 두번째이다.

EU-지중해권 국가 간에는 2010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목표로 하는 "Barcelona Process"가 추진되고 있으며, 상기 Agadir 선언은 4국 간 FTA를 이후 나머지 아랍-지중해 국가들(알제리, 리비아, 모리타니,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에 까지 확대, 범지중해 아랍-EU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Arab-Marghreb연맹(UMA: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모리타니아 등 5개 회원국)을 통한 지중해 북부아프리카 아랍국가 간 협력체가 있으며, 서부사하라 문제 및 알제리 정세불안으로 부진한 상황이나 이 기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나. 모로코-미국 FTA 체결과 주요 내용

모로코는 지난 2년간의 협상을 걸쳐 2004년 3월 미국과 FTA를 공식 체결하였다

이번 FTA 체결로 모로코 공산품의 99%가 대미 수출 시 0%의 관세를 적용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모로코의 주종 수출품인 수산물과 봉제품의 대미 수출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봉제 수출은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어 100% 모로코 산이나 미국산 원단 사용에만 0% 관세율이 적용된다. 모로코의 섬유 산업이 발달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10년까지는 예외 규정을 두어 외국 원단을 사용 시에도 매년 3천만 미터까지는 대미 수출 시에 무관세로 합의하였다.

미국측으로서는 모로코 국내산업보호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개방될 농축산물, 플라스틱, 가구, 자동차 산업 등을 제외한 보형, 의약품, 정보 통신, 금융과 전기, 전자 등 미국의 경쟁력 우위 분야에서 모로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FTA 협정 후 대미 교역변화

모로코가 미국 및 터키와 FTA를 시행한 지난 1년간 아직 FTA에 따른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관련 기업의 인식부족과 FTA에 대한 대비가 아직 충실하지 못해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관련 기업의 인식제고 및 FTA 활용도 제고를 통해 점차 FTA 체결효과가 양국간 직접적인 수출입 규모 확대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분야별 FTA 추진 효과

□ 섬유

섬유는 모로코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연간 약 20억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미국 및 터키와의 FTA 체결 전 모로코는 섬유산업의 87%를 유럽시장에 의존했으나, FTA 시행 이후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FTA 협정 후인 '05년 초부터 대미 수출량이 증가했으며, '06년 전체 섬유수출액의 약 30%가 대미국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 피혁

모로코 정부는 국내업체의 미국시장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4년간 약 1000만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NBO(New Business Opportunities)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그 동안 유럽기업의 주문생산을 기지 역할을 해 온 모로코로서는 이제 이전보다 30% 가량 향상된 가격경쟁력으로 대미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 자동차 부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자동차 산업분야의 경우 미국 자동차 부품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모로코산 제품의 품질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인식과 모로코 제품의 시장적응력 미흡으로 FTA 시행 이후 수출 성과는 저조하다.

모로코 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이 대부분 유럽산 자동차용인데, 미국의 자동차 보유 대수 2억대중 유럽산이 1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모로코산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전망이 밝다.

□ 해산물

모로코 해산물 수출규모의 98%는 정어리 통조림이며,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아직 유럽시장 의존도가 매우 높다. 미국과의 FTA 체결 후에도 이러한 대 유럽 의존도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신규 시장인 미국시장에의 인식 부족 및 준비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모로코-터키 간 FTA 체결과 영향

모로코- 터키는 지난 2004 년 4 월 7 일 터키에서 FTA 조인식을 가졌다. 이로 인해 터키 제품의 대 모로코 수출 시 최대 45%의 수입 관세가 철폐되어 양국간 교역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모로코의 주요 산업이며 민감 품목인 농산품 및 섬유제품은 10 년간 점차적인 관세 경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어 단기간에 양국간 교역 급증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터키 업체들의 경우 이미 FTA 체결을 기점으로 20 여 개 사가 대 모로코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모로코-미국간 FTA 체결로 터키의 전자 및 섬유/봉제 업체들이 모로코를 생산 기지화해 미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터키는 모로코의 고속도로 건설 및 국영 기업 민영화 등에 총 5 억 8 천만 달러의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1) 분야별 FTA 추진 효과 (대 터키)

□ 섬유

제 2의 섬유 산업 강국인 터키로부터 옷감 등의 원자재를 수입, 모로코 내에서 섬유제품을 생산하며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 자동차 부품

터키의 자동차 부품 산업은 아직 모로코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며, 아직 FTA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 해산물

모로코산 정어리 통조림에 대한 수출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다만 일부 터키 업체가 냉동 정어리 수입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냉동 정어리 수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06. 9월 말까지 대 터키 수출 냉동 정어리는 약 4900톤이다.

□ FTA 시행 이후 극복 과제

모로코의 대 미, 대 터키 FTA 시행결과 아직 이들 국가에 대한 모로코의 수입 규모가 수출 규모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모로코의 지나친 유럽 시장 의존도로 인해 아직은 성과가 미미하나 모로코 업체들은 새로운 시장인 미국 시장에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보임. 이미 모로코 제품들이 유럽시장에 진출해 가격과 질적인 부분에서 인정받고 있어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의 가격과 질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 미국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제품의 개발 및 공급 부족
- 미국 소비자에 대한 모로코 제품의 충분한 홍보
- 미국 시장에서 모로코 제품의 경쟁력 부족

라. 대베트남 FTA 개황

모로코와 베트남은 1961년 수교 후 두드러진 교류가 없었으나, 2005년 베트남 하노이에 모로코 대사관이 개설된 이후 양국 간 교역량이 증가하기 시작해 2006년 모로코에 베트남 대사관이 개설된 이후 양국의 교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01년 6월 양국 간 이중 관세가 폐지됐고, 양국 투자증진을 위한 협력서가 체결됐음.

또한 모로코 정부는 향후 베트남의 관세를 줄여나갈 예정이며, 통관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지난 5월 초 모로코 수상 Driss jettou의 베트남 방문에 맞춰 베트남에서는 양국의 FTA체결을 제안한 상태이다. 이처럼 베트남이 FTA 추진에 매우 적극적인 이유는 과거 10년간 베트남 경제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FDI가 1995년 이후 GDP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고 있으며, 1986년 도이모이 정책 채택 이후 지금까지의 FDI 규모가 ODA(공공개발 지원 자금)보다 작아 베트남 경제성장의 제약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생필품과 생산재 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모로코 베트남 대사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모로코의 틈새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분야는 농산물 분야이다. 통상 45일이 걸리는 운송기간이 양국의 교역량 증가에 악재로 자리잡고 있으나, 베트남 정부는 전자상거래 도입을 통한 운송기일 단축 및 교역량 증가에 노력하고 있다.

1) 모로코-베트남 교역현황

○ 최근 3년간 베트남-모로코 수출입 통계

(단위: US\$)

연도	수출	수입	거래총액
2006	10.100.000	900.000	11.000.000
2005	8.147.000	644.000	8.791.000
2004	8.230.000	324.000	8.554.000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 수출입 품목

- 대베트남 수출 품목: 인광석, 식물성 기름(올리브), 화약 제품, 의약품 및 고철류 등
- 대베트남 수입 품목: 농산품(커피, 후추), 고무, 전자제품(컴퓨터 및 텔레비전) 및 의류, 신발 등

○ 수출입 동향

1995년 양국의 최초 교역이 이뤄졌으며,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거래액은 매년 약 100만~30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2005년 모로코에 베트남 대사관이 개설된 이후 교역량이 증가하기 시작해 2005년에는 총 거래액이 800만 달러를 넘었으며, 2006년에는 약 40%가 증가한 1100만 달러가 거래되었다.

2) 전망 및 시사점

주 모로코 베트남 대사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모로코의 틈새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분야는 농산물분야이다. 통상 45일이 걸리는 운송기간이 양국의 교역량 증가에 악재로 자리잡고 있으나, 베트남 정부는 전자상거래 도입을 통한 운송기일 단축 및 교역량 증가에 노력하고 있으며, 양국 간 FTA체결은 품목별 해당기업의 시장진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시장동향 변화를 미리 예측해 대비해야 할 것이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수출입 동향

1) 2006년 무역동향

모로코 통계청에 따르면, '06년 말 기준 수출 총액은 전년보다 약 1.13% 증가한 117억 달러이며, 수입은 전년보다 1.07% 증가한 212억 달러이다. 이로써 무역수지 적자는 1.23% 증가하였다. 대외 무역적자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간 약 0.5%의 성장률을 넘지 않았던 수출이 2006년에는 이의 2배에 해당하는 1.13%의 성장세를 보인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주요 수출 증가 요인은 인광석 수출 증가 및 대 유럽 섬유 수출 증대이며, 그러나 수입도 함께 증가해 무역 적자 폭을 줄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해외교포의 대 모로코 송금액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정부의 관광객 유치 정책이 율곽을 드러내면서 관광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이에 DH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경상 수지에서는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였다.

2006 교역 현황

(단위: 1억 US\$, %)

	2005	2006	증감율
수입	198	212	1.07%
수출	103	117	1.13%
무역수지	-77	-95	-1.23%

□ 해외 교포의 대 모로코 송금액 증가

'06년 해외 교포의 대 모로코 송금액이 전년보다 17.2%가 증가한 57억 달러이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모로코인은 300만 명으로 추산되며, 모로코 총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고 있다. 해외거주 모로코인들이 국내로 송금한 유로화나 달러들은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를 튼튼 하게 해줄 뿐 아니라 이들 자금은 국내 주택건설 자금으로 흘러들어가 모로코의 건설 경기 활황을 주도하고 실업자 해소와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있다.

□ 관광객 증가

최근 2년 전부터 관광 수입이 모로코 최고의 외화 소득원이었던 모국 송금액보다 증가해, 관광 수입은 모로코의 중요한 외화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모로코를 찾은 관광객은 전년 보다 9% 상승한 약 587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모로코 관광 입국 정책이 서서히 그 율곽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단위: 1억 US\$, %)

	2005	2006	증감율
관광 수입	45	56.7	1.26%
관광객수(백만 명)	5.37	5.87	1.09%
체류기간(백만 일)	14.2	15.2	1.07%

자료원: Office des changes 및 관광청

2) 분야별 시장분석

□ 섬유 수출 증대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업체의 대 모로코 기성복 주문이 증가해, 수출 총액은 전년보다 17% 상승한 25억 달러로 '06년 섬유분야는 호황기를 맞았다. 이와 같이 수출 증가는 '04년 말 다자간 섬유 협정 종료 후, 유럽이 중국산 섬유의 무차별적인 진출을 우려해 '05년 6월 중국 제품에 대한 새로운 수입쿼터를 설정한 상하이 협약(EU-중국 간)이 체결됨에 유럽 기업의 대 모로코 수입이 다시 증가한 데에 기인한 것이다. EU·중국 간 섬유 쿼터제는 07년 말 종료될 예정으로, 07년 중에는 섬유 부문의 수출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인광석 수출 증대

모로코의 인광석 매장량은 570억 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총 인광석 매장량의 2/3에 달한다. 이에 따라 모로코는 세계최대의 인광석 수출국이다. '06년 기준 인광석 및 관련 제품의 수출금액은 전년보다 14% 상승한 10억 달러를 기록함.

□ 원유 수입 증가

원유가 상승은 모로코 대외 무역 적자에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으며, '06년 원유 수입으로 모로코 정부가 지출한 금액은 30억 달러로써 전년보다 5.1% 상승했다.

비산유국인 모로코는 유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정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조세를 감면 받고 있던 공중 목욕탕, 공예품 판매점, 조합 등 일부 업종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 기타

설비 기자재의 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한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모로코 경제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 중간재 수입은 '05년보다 17.5% 상승한 58억 달러 기록 하였다. 그 외 항공 산업분야와 농업용 트랙터, cable, 상용차 수입 규모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3) 2007년 교역 전망

모로코 정부는 강수량 부족에 따른 농업부분의 부진과 국제유가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으로 인해 07년도 수출 증가율이 8%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함. 더욱이 최근 모로코에서는 미국, 터키와의 FTA 체결 등 시장 개방으로 인해 제조업 부문에서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모로코 효자산업인 섬유부문에서도 중국, 터키 등과의 경쟁 격화로 인해 모로코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관광, 레저, 통신 분야도 어느 정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또한 건설 및 운송 분야도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을 기록 할 것으로 예상됨. 인광석 수출은 전년보다 14.3% 증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외국인 투자 및 내수증가로 설비 기자재 및 중간재, 소비재 등의 수입은 각각 12.4%, 10.9%, 7.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 중국, 모로코 제 3 위 수출국으로 부상

1) 중국의 對모로코 교역현황

2007년 1 분기중 중국의 모로코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해 프랑스, 스페인에 이어 제 3 위 수출국으로 부상했음. 중국은 2006 년대 모로코 제 5 위 의 수출국이었으나, 지난 1 분기중 미국과 독일을 제치고, 2 단계 상승했을 뿐 아니라 2 위 의 수출국인 스페인과의 수출 격차를 크게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중국의 수출은 35 억 4000 만 디르함(4 억 3000 만 달러)이었으며, 대 모로코 수출 1 위인 프랑스는 88 억 디르함(10 억 5000 만 달러), 2 위인 스페인은 60 억 디르함(7 억 2000 만 달러)을 기록하였다.

중국의 대 모로코 수출은 1997년까지 1억 5000만 달러의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었으나, 1999년을 기점으로 연간 30%가량 증가하기 시작해, 2006년에는 15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2006년 중국의 모로코 제품 수입규모는 1억 7000만 달러로 모로코에 대해 상당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5년에 비해 모로코 제품 수입이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 양국간 현안 문제가 되고 있다.

2) 중국-모로코 주요 교역분야

2006년 중국의 대 모로코 수입품은 전기전자제품(1억 2500만 달러), 인광석(3200만 달러), 냉동생선(140만 달러), 코발트(100만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2005년중 중국의 우방국 인민회의 의장의 모로코 방문시 모로코산 인광석 수입을 합의한 바 있어, 2011년까지 모로코의 대 중국 인광석 비료의 수출량은 75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대 모로코 수출은 일반 생활용품뿐 아니라 통신장비, 운송기기까지 고르게 분포돼 있으며, 대체로 품질이 크게 중요치 않은 제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입 이외에도 대형 중국기업들이 현재 모로코에서 활동중에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고속도로, 교량, 철도, 통신 등의 인프라에 참여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 모로코 수출규모에 비해 대 모로코 투자는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8~10년으로 예정된 모로코-EU 간 FTA 시행시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광둥성 정부는 일개 지방정부임에도 불구하고, 6월 초 300여 개사로 구성된 중국업체 시개단과 함께 모로코를 방문함으로써 중국의 모로코 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준 바 있으며, 모로코에서도 전경련이 앞장서서 상담회를 지원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3) 모로코내 중국제품의 경쟁력

중국제품의 영향력은 이미 모로코 소비자에게 잘 알려졌다. 대부분의 소비재 분야에서 중국 제품은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모로코 최대 대형 유통매장인 Marjane 에서는 학용품 코너를 비롯해, 일반 생활용품 코너에서 중국산 제품이 매장을 뒤덮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과거 한국산이 주도했던 섬유분야도 지금은 중국산 원단에 거의 점령당한 상황이다.

중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는 이제 모로코 업체들이 간과할 수 없는 제품 소싱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에 모로코 여행사들은 중국전시회 참가 패키지 여행상품을 내놓았는데, 전시회 때마다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모로코 기업이 넘쳐나고 있어 모로코 기업의 중국에 대한 관심도를 말해주고 있다. 다만, 아직도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이 필요한 제품에서는 중국산 제품이 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로 기계, 전기전자 등을 들 수 있다.

일례로 모로코 일부 대형매장에서는 2004년까지 중국산 절전형 전구를 수입 판매하고 있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고장나는 등 불량품이 많아 지금은 중국산 수입이 중단됐고, 그 대신 한국산이나 유럽산을 수입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중 중국산 가스보일러 폭발사건으로 인해 중국산 보일러 수입이 전면 중단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중국산 불량제품 사례가 계속 나타나면서, 모로코 소비자들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으나, 품질이 중요시되지 않는 제품에서는 중국산 제품이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 여전히 많이 수요되고 있다. 중국산 불량 제품이 수입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모로코 정부의 수입제품 검사 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정부가 계속 수입품 관리 기준을 계속 개선하고 있는 관계로 머지않아 중국산 수입품이 가격뿐 아니라 품질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이고 있다.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2006년 한-모로코 교역현황

'07년 상반기중 한-모로코 교역 규모는 전년보다 총 교역규모를 넘어섰으며, 수출 보다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 모로코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승용차와 전화기이며, 수입 증가 품목은 비금속 광물, 반도체, 해조류, 비철금속 등이다.

모로코-한국 무역 통계 총괄표

(단위: 천USD,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7(1월~07월)	227,228	-	54,077	-	173,151	-
2006	222,718	17.4	87,322	57.2	135,396	-
2005	207,888	28.1	55,537	35.5	152,351	-
2004	162,259	7.1	40,994	17.7	121,265	-

자료원: 무역협회

나. 모로코-한국 무역 통계 (품목별)

한국의 대 모로코 수출현황

(단위: 천USD, %)

순위	품목명	2006		2007(1월~0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222,718	7.1	227,228	66.9
1	승용차	79,054	72	74,418	55.2
2	무선전화기	29,340	-25.6	66,524	213.3
3	화물자동차	9,196	-27.8	10,022	94.1
4	칼라TV	15,915	9.4	8,489	-27.5
5	합성수지	19,462	130.5	6,755	-28.8
6	무선송수신기	75	-47.7	6,191	11,185.60
7	냉장고	9,533	10	5,237	34.9
8	타이어	4,439	-2.8	4,690	148.8
9	철강 및 비합금강형강	0	-	4,511	-

자료원: 무역 협회

한국의 대 모로코 수입현황

(단위: 천USD, %)

순위	품목명	2006		2007(1월~0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87,322	57.2	54,077	-2.1
1	기타비금속광물	9,344	-50.8	16,543	24,184.10
2	나프타	27,808	-	10,220	-63.2
3	개별소자반도체	13,572	25.3	9,723	22.7
4	집적회로반도체	5,447	96	4,865	52.7
5	알루미늄과 및 스크랩	3,913	6.5	3,517	6.4
6	직물제의류	2,249	-10.9	2,063	31.5
7	동과 및 스크랩	1,848	94	1,595	37.3
8	기타가죽	802	1.1	830	255.1
9	기타해조류	8,298	90.8	726	-67.5

자료원: 무역 협회

3. 수입규제제도

2000.3.1일부로 발효된 모로코-EU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Zone)에 따라 유럽산은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국내 제조업의 미 발달로 반덤핑법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나 우리나라의 직물류, 철강, 자동차 부품, 자동차 등이 유럽제품의 관세인하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진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모로코-미국간의 FTA가 200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모로코-터키 FTA가 2005년 4월에 체결됨으로써 터키의 투자가 강화가 되고 있어 한국 상품의 수출여건이 불리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반덤핑법

반덤핑법규의 관련법규는 왕령(Dahir 15조 13-39항)이며 관련부서는 모로코 상공부 및 재무부이다. 세부 덤핑규정은 모로코 국내업체의 제소에 의해 상공부가 덤핑여부를 조사하며 덤핑판정이 날 경우 재무부에 요청,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외국산 수입 상품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산업의 발달이 미약한 수준이며 밀수품 단속이 정부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되어있어 덤핑에 대한 규제가 관심사항이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제품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모로코 경제인협회(CGEM)등을 중심으로 인보이스 가격을 속이는 상품에 대해 보다 철저한 세관의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의 모로코 진출은 소매업에 집중되고 있어 모로코 소매상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모로코는 공산품 및 주류(위스키) 등 모든 상품이 수입 자유화 된 개방 시장으로 우리나라 상품의 대 모로코 진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단,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자국에서 생산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 과도한 수입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반덤핑 법을 운영하고 있다. 수입 금지 품목은 소수이나 가장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중고 의류, 재생 타이어 등으로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강력히 금지 시키고 있다. 또한 이전에 의약품 산업보호를 위해 100% 수입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2006년 개정된 법에 따르면, 모로코 정부에서 수입허가를 득한 업체에서는 의약품 수입이 가능해졌다.

5. 관세제도

1) 관세제도

모로코로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수입관세(Droit de Duane) 부가가치세(TVA)가 대표적이다. 기존의 재정관세의 일종인 수입 국고공제세(PFI)는 폐지되어 수입관세에 포함되었다.

□ 수입관세

모로코의 수입관세는 수입품목의 사용용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관세율은 2.5%, 10%, 17.5%, 25%, 35% 50% 등 6가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수입목적이 투자진흥 및 개발에 필요한 자본재와 그 부품은 2.5%와 10%의 종가세가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 내국 소비세: TIC

수입관세 및 수입국고공제세와는 달리, 특정 카테고리의 수입상품이나 청량음료, 포도주, 맥주, 설탕 등과 같은 국내제품에 부과되고 있다.

□ 부가 가치세: TVA

부가가치세는 국내세이나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부과되고 있다. 세율은 긴요긴급품목(에너지, 식용유 등 일부 식품, 학용품 등)에 최저 7%가 부과되며 일반상품의 경우는 20%가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단, 농산물 원료 및 제품, 자본재 및 부품과 부속품, 세관에서의 경제적 제도의 일환으로 수입되는 원료 및 제품에는 면제되고 있다.

2) 주요 관세율

주요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르며, 모로코 재무부 산하 세관당국에서 발간되는 수입 관세율 표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모로코 세관(Administration des Douanes et Impots Indirects) 인터넷 사이트(www.douane.gov.ma)에서 간략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3) 관세 지불 제도 개선

□ 전자 결제 시스템(EDI)

관련 세관 부서와 은행간에 전자 시스템을 연결하여, 수입 업체의 물품 통관 요청 시 거래 은행에 관세의 송금 지시를 하게 되며 입금 처리 후 세관에서 업자에게 증빙을 지급하면 물품의 통관을 하게 된다. 기존에는 모든 결제는 수표로 지급하게 되어있어 통관 절차에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

□ 신용 통관 제도

수입업자는 우선 물품을 통관하게 되며 추후 관세를 지불하게 되는 제도이다. 업자는 관세 당국과 협약서 체결 후 일정 금액한도 이내에서는 신용 통관을 할 수 있다. 상기 제도는 우선 카사블랑카 지역 항구 및 공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 후 모로코 전역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 신용 카드 이용 제도

화물이나 공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일반인들을 위해 관세를 은행 신용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법적 근거 준비 중에 있다.

4) 수입쿼터

모로코에는 수입 쿼터 제도가 없으나 국가 경제 정책상 농수산업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의 수입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쿼터 제도 대신 수입되는 상품의 성질에 따라 차등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6. 주요인증제도

CE, ISO 등의 유럽 규격 인증이나 글로벌 심사 기준이 모로코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며, 가격 협상 시 유리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모로코 자체 검사 기준을 요하는 분야는 통신산업분야와 식품분야로, 이동통신기기수입은 모로코 통신감독원(ANRT)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식품분야는 식품관리위원회(EACCE)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가. 이동통신기기

- 모로코 통신감독위원회(ANRT)에서 통신기기 심사를 거쳐야 수입 가능하다.

나. 식품

- 모로코 식품 안전청(EACCE)에서 수입되는 모든 종류의 농수산물, 식품에 관해 검사를 실시한다.

다. 목재 및 펄프

- ISO 외에 따로 받아야 하는 자체 인증은 없다.

라. 보석, 액세서리 류

- 모로코 세관(DOUANE)에서 인체 유해 광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검사 후 자체 인증 표시를 찍는다.

마. 금속

- ISO, RADIO 등의 인증이 필요하다. 모로코는 스크랩(폐철)을 다른 산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속류에 관한 심사가 까다롭다.

바. 전자, 전기

- 유럽 규격 CE 마크가 모로코 내에서도 유효하다.

사. 교통, 운송

- ISO가 유효하며, 기차의 경우 관할청이 ONCF, 자동차의 경우 ONT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아. 서비스

- ISO 외에 별다른 인증 제도는 없다.

7. 지적재산권

모로코의 지적소유권 법률은 1916년도에 처음 공표된 후 1990년대까지 개정 되지 않아 현실정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개정된 지적소유권법의 특징은 239개 항목으로 세분화하며, 민·형사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모방제품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지적소유권 침해 시 최소 1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 형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도 최소 2,500달러에서 최고 5만 달러가 부과된다.

모로코 산업 및 상업 지적재산권공사 OMPIC(Office marocain de propriété industrielle et commerciale)에 따르면, 모로코 기업인들은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특허등록 등을 생소한 업무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기업체 및 각종 경제인협회를 대상으로 이해 대한 홍보를 기획하고 있다.

이 법률에는 특허, 브랜드, 모델, 디자인 등 관련 상세한 정의를 규정했으며, 등록 시 1차 등록 후 3개월 안에 신청자가 추가보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두었으며 제품의 디자인과 모델 등록 시 비공개 신청을 없앴다. 또한 1916년도 법률상에 명시된 모로코 일부 지역에서 만의 보호조항을 삭제해 등록된 지적소유권은 모로코 전역에서 보호가 되도록 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모로코는 WTO가 규정한 관련 사항들에 부합하는 법률을 갖추게 됐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보호 및 기술개발에 따른 업체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모로코는 공업소유권의 사용 및 등록에 관련되는 다수의 국제 조약에 조인했으며, 법령(dahir/ 1919.6.23)에 의해 산업소유권보호법(Protection de la Propriete Industrielle)은 특허 및 상표에 대한 법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모로코 특허청(OMPI, L'Office Marocain de la Propriete Industrielle)은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1916년 6월23일, 모로코 국왕의 명령으로 창설되었다. 상공부 산하기관으로 있는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신청(발명특허, 상표권, 의장등록) 접수, 등록, 교부 및 공표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모로코 특허청은 또한 산업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경제주체에게 인식시키는 임무를 갖고 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 및 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명특허, 상표권, 의장특허(등록)의 제반 권리를 관장한다.

모로코 특허청은 특허권에 대한 자료, 상표권에 관한 국가 색인표, 상표권 및 의장등록에 관한 등록 장부, 재산권에 관한 연례 통계, 특허권에 관한 분기별 통계, 연구자료, CD-ROM에 수록된 외국특허(ACCESS, WORLD), CD-ROM에 수록된 국제적 상표(ROMARIN)의 자료를 비치하고 있다.

가. 상표

상표는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 상표는 완제품, 반제품 뿐만 아니라 자연상태나 인공상태의 원자재에도 부착할 수 있다. 상표는 보험사, 은행, 여행사, 운송회사 같은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 상표는 모로코 특허청 및 상공부 산하 지방관청에서 등록할 수 있다.

나. 특허

개인 혹은 법인은 독일 원헌에 있는 유럽 특허청 및 모로코 내의 모로코 특허청(ONPI)에 특허 신청을 낼 수 있다. 단일종류의 유럽식 특허는 20년 동안 유효하다. 모로코 특허보다 유럽 특허의 신청 절차가 길고 수수료가 비싼 편이나 유럽 특허가 보호범위 측면에서 광범위할 뿐 아니라, 원헌 협정에 조인한 모든 국가에 동 특허가 적용되어 선호되는 편이다. 특허협조조약의 가입국에 거주지 혹은 주요 사무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은 동 조약 하에 특허를 소유하도록 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동 특허에 대한 신청서는 신청자 자국의 중앙특허청 및 조약에 가입한 국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특허의 이점은 모로코 외에도 미국, 일본, 유럽을 포함하는 여러 국가에 확장되어 국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 저작권

문학 및 예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를 하기 위한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저작권은 작가에게 재산권 및 윤리권 등 2개의 주요한 권리를 제공한다. 재산권은 저자에게 금전적 수익을 위해 창작품을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며, 윤리적 권리는 문학 예술 작품의 비 금전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예술작품의 고유성 및 작품에 대한 작가로서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동 권리는 영구적이고, 양도되지 않으며, 작자 사망 시까지 유지되며, 사망 후에는 상속인에게 인계된다. 작가는 작품에 대한 재산권의 일부 혹은 전부, 그리고 작품 완성권 및 복제 권을 매매할 수 있지만, 윤리권은 매매로 인해 양도되지 않는다.

8. 통관/운송

가. 통관

1) 수입관리제도 개황

모로코 수입시장은 주류 및 식료품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제품의 수입을 허용할 만큼 내수용 수입 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외국산 수입품에 대한 특별한 수입 규제 조치는 없으나 일부 불요불급소비재, 사치품, 모로코 국내생산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예를 들면 모로코 국내생산제품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50%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우리나라의 대모로코 수출 주종 품목인 직물(HS CODE: 5407)의 경우 평균 기본관세 50%(PFI15% 포함)에, 다시 20%의 부가 가치세를 부가하는 등 고관세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2) 수입허가 및 관리

아직도 국내생산 되는 품목에 대해 평균 50%의 고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관세율이 인하되는 추세이다. 특히 2000년 체결된 EU와의 자유무역협정 스케줄에 따라 2012년까지 EU에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점차적으로 수입관세가 인하되어 2012년에는 무관세로 수입될 예정에 있어 역외국인 우리나라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또한 모로코-아랍국간의 FTA체결을 위한 협정서명(2004.2월) 및 모로코-미국간 FTA타결 및 서명(2004.3월), 모로코-터어키 FTA체결(2004.4월)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입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수출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통관 절차

수입상품의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및 심사에서부터 시작하여 물품검사, 관세 등의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것으로 수속이 종결된다

4) 수입신고

모로코와 제 3국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품교역은 원칙적으로 세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통관절차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한다.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신고서(ENGAGEMENT)와 함께 수출입화물 도착 통지서(BON DE DELIVERY), 선하증권(BILL OF LADING), 상품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세금감면 대상 화물(어망 등 어획장비, 선박용 엔진, 건설용 기계 등 자본재)인 경우 증빙 서류, 수출용 원자재의 경우 관세 환급을 위한 증빙 서류, 기타 세관이 필요로 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면장은 수량 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수입상품에 한해 요구되고 있으며, 그 대상품목은 상공부장관이 고시하는 리스트에 명시되고 있다. 상공부장관이 발급하는 수입면장은 6부의 사본이 구비되어야 하며, 수입 약정서는 수입면장 대상이 아닌 상품수입 시 요구되며, 사본 5통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상공부장관에게 사전 비자를 제출 해야 한다. 수입 사전신고서(DPI)는 국내생산에 손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제품을 수입할 때 요구되며, 이는 상공부장관이 발급하며 6통을 준비해야 한다.

모로코 세관의 통관절차는 상품 도착 후 24시간 내에 총 8부로 구성되어 있는 통관 신고서를 제출하고 통관신고서를 증명하기 위해 특정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작성한 후 관세를 지불하면 수입상품이 통관된다. 수입 면장과 수입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세관 통과 기준 6개월이다. 이 기간의 기산 일자 는 수입약정서의 경우 지급은행에 신청할 때부터, 수입면장은 상공부장관이 발급한 시점부터이며 수입 사전신고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수입면장과 수입사전신고의 최초 조건을 수정(Amend)할 경우에는 다시 수입자격을 요구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 수입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수입업자 카드를 취득하기 위해 Fichier Central des Importateurs(무역업자 색인표)에 등록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정부의 경제개혁으로 통관절차가 간소화해지고 있으며 기간도 많이 단축되고 있다.

5) 물품검사

물품 검사 시에는 화물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수량, 품목, 규격 등의 정확성 여부를 검사한다. 전수 검사를 원칙으로 하나 수량이 다수인 경우에는 견본을 지정하여 검사하기도 한다. 물품 검사는 통상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기에 세관통제구역인 부두, 창고 등 보세구역에서 실시한다. 기타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업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세관원이 현장으로 파견되어 검사한다. 수입업자가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등을 이유로 수입품을 타 세관 관할 구역으로 이동시키고자 할 경우, 전체 수입가 상당액의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한 후 증빙 서류를 세관에 제출한 후 통관 전에 이동시킬 수 있다.

아직까지 인보이스 가격조작(under value)이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으나, 세관의 심사가 강화되고 있어 정상적인 수입통관이 요구된다.

6) 화물반송(SHIP BACK)

모로코에서는 컨테이너의 반송(SHIP BACK)시 사유를 불문하고 CONSIGNEE의 인수확 인증(ACCEPTANCE LETTER)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어가 인수증 발행을 거부할 경우 화물 반송상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반송 결정까지 많은 시일을 요한 경우 세관에 컨테이너가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나. 운송

우리 나라 업체가 부산에서 카사블랑카로 상품을 보낼 때 스페인이나 프랑스 등지의 항구에서 환적이 불가피하다. 우리 나라 포워딩 에이전트에서는 통상 40여일 소요된다고 하지만 40여 일 내에 도착한 예는 거의 없다. 더욱이 컨테이너 베이스가 아닐 경우나 환적항에서 파업이나 선임이 저렴한 선사를 통해 선적할 경우에는 2-3개월이 소요되어 무역 분쟁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현지의 한국 운송 업체로는 한진해운이 진출해 있으며 외국계 운송 회사로는 MAERSK등 유명 운송기업들의 대부분이 진출해 있다.

1) 국제공항

모로코는 주요도시에 27개의 공항이 산재해 있으며, 이중 국제공항은 카사블랑카, 마라케시, 라바트-살레, 우즈다, 아가달 등 10여개에 이른다. 모로코 공항시설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다음으로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특히 카사블랑카의 모하메드 5세(Mohamed V)공항은 선진국 수준의 시설로서 서부 아프리카 제일의 공항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간 승객 500 만명(정기항공편: 350 만명, 전세기편:150 만명)을 수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카사블랑카 모하메드 5세공항의 현대화 계획에 의거 확장공사(2006년 4월 기준) 중에 있다.

2) 국제항구

모로코에는 21개의 항구가 있으며, 이 중 국제항은 Casablanca, Tanger, Kenitra, Mohammedia, Agadir, Nador, Safi 등 9 개이다. Casablanca는 모로코 전체 선박화물의 40- 50%를 처리하는 최대 항구로서, 세계각국의 화물선, 운반선 등이 입항하고 있으며 관광 유람선도 증가하고 있다. 북부지역의 주요 항구인 Tanger에서 스페인 남부 Algeciras, Gibraltar, 볼란서 남부 마르세이유 항구를 운항하는 선편이 발달되어 있으며, 승용차를 함께 실을 수 있어 유럽에서 차량편으로 모로코로 여행할 수 있다. 또한 모로코 최북단 지역에 있는 스페인령 세우타(Ceuta)에서 스페인 남부 Algeciras 항구까지 하계 휴가 시즌에는 매시간, 평상시에는 매일 수 차례씩 차량운송이 가능한 페리를 운항하고 있다.

2천 5백여킬로의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는 모로코는 24개의 항구가 있으며, 대외무역 운송의 98%에 달하는 연간 4,000만톤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다. 주요 항구별 물동량을 살펴보면 최대항구인 Casablanca가 16,000천톤으로 40%, Mohammedia가 7,500 천톤으로 18.5%, Jorf Lasfar가 5,200천톤으로 12.7%, Safi가 4,800천톤으로 11.8%, 남부 어업기지인 Agadir가 804천톤으로 4.5%, 북부 Tanger가 1,728천톤으로 4.3%의 수송 분담을 하고 있다.

모로코 북부 지역의 해안선 개발, 어업시설 확충, 무역증대 및 관광개발, 고용창출, 어로 취업인구, 소득증대, 항구시설 및 어항 개발을 위하여 유럽국가의 경험자금 등의 재원으로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다. 탕제(Tanger)에서 35KM 떨어진 지중해연안에 10억불 규모의 신항만건설(TangerMed Project)이 진행 중이며, 이 항구의 첨단 배후도시 건설과 인근 지역으로의 고속도로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2006년부터 Nador, M'diq, Al Hoceima, Jebha, Larache 항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항구에 대한 시설을 개선 중이며, 북부지역의 지중해 면한 TANGER 항구는 2007년 완공을 목표로 대규모 공사를 진행 중이다. 유럽과의 여객운송을 위해 항구시설을 확충 중에 있다.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환경

1995년 '투자 헌장(Investment Charter)'으로 불리는 모로코의 투자 인센티브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특정 분야를 규제하던 법들이 철폐되어 현재는 영역과 상관없이 모든 투자 프로젝트가 단일 법령에 의해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투자 관련 혜택으로는 각종 세금 경감, 토지 취득에 대한 등록수수료 면제, 부가가치세 및 수입관세 면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물품 수입에 대한 낮은 관세율 부과 등이 있다. 또 창업 기업에는 5년간 세금을 면제하고 법인세 및 소득세 관련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프로젝트 연장, 외국인 투자자의 소득 이전, 자본소득 또는 투자 청산으로 인한 수익에 대한 세금 면제 등도 보장된다. 전 분야에 적용되는 투자 인센티브 외에 주요 분야에는 특별 혜택이 주어지거나 정부와의 특정 협정에 의해 관리된다. 기타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주요 분야는 전자, 건설, 광업, 수출, 농업, 호텔, 수공업, 섬유, 석유 등 관련 산업이며 특별 혜택은 내외국 투자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이 외에도 모로코 정부는 '석유법(Petroleum Code)'을 제정하여 석유 개발 회사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에 인접한 'Tangier 자유지대'를 비롯한 전국 70개 산업공단 및 자유 무역지대(Free Trade Zones)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

또 16개 지역 투자센터(RICs: Regional Investment Centers)를 통해 외국 기업에게 모로코 시장 진출과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비즈니스 '원스톱 쇼핑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RICs는 모로코 주요 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전자상거래 시스템인 '전자정부 사이버 네트워크(e-Government Cyber Network)'와도 연결되어 있다. 동 센터에서는 허가 신청 및 기타 문서 준비 등 창업 절차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2일이면 창업 허가를 마무리할 수 있다.

나. 투자매력도

모로코의 지정학적인 위치로 유럽, 중동, 아프리카지역 및 미국시장 진출 교두보로 활용이 가능하다. 지난 2000년 3.1일부로 발효된 모로코-EU간 자유무역협정(EURO MEDITERRANEAN AGREEMENT)발효되어 오는 2012년까지 모로코와 EU간에 단계적으로 관세인하 및 철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고 2004년도 3월 및 4월에 미국, 터키와 각각 FTA

를 체결하여 투자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노동 집약 분야의 임가공 현지 우회 수출이 유망한 것으로 보인다. 모로코는 인근 알제리, 리비아 등과는 달리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장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통신, 교통 등 인프라 및 생활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한다. 서부사하라 영토권 문제로 한때 폴리사리오 (POLI SARI O)를 지원한 알제리와 갈등으로 국경폐쇄 상태에 있으나 최근 들어 양국간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모로코는 매년 연간평균 U\$ 20&-30억에 달하는 만성적인 무역적자로 인한 외환부족을 해결하고 현재 20%선을 웃도는 실업률을 낮추어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90년대 초 외국인 투자법을 대폭 보완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한 완전히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국가 기간 인프라 및 공익성 분야 일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100% 투자도 가능할 정도로 대폭적인 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 정책으로 외국자본유치에 나서고 있다.

우리 기업의 투자 대상 분야로는 IT관련업종, 수산물 가공처리, 전선 및 전기관련 제품,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등이다.

라. 부동산 동향

1) 부동산 동향

모로코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치솟아 아파트의 경우 2005년에 비해 현재 가격이 2 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상업중심지인 카사블랑카에서는 이 기간에 아파트 가격이 3 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고급 주택 및 사무실이 집중적으로 건설되는 지역은 새로운 도시의 중심지로 등장하고 있으며, 1 개 도시에 몇 개의 고급 주거지 및 사무실 중심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많은 사람이 부동산 열풍에 휩싸여 있는 관계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둔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힘을 쏟고 있다.

2) 부동산 가격상승 요인

모로코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은 외국인 기업의 모로코 진출이 크게 확대된 데에 있는데, 외국 기업이 몰려있는 카사블랑카, 마라케시, 라باط 등 3 대 도시에서 부동산 투기가 심하며, 최근 지방 도시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어느 정도 품격있는 주거지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고급 주택 및 사무실 부문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리드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러나 저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건축붐이 일면서 모래, 시멘트, 철강 등의 자재난이 겹침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2010 년까지 관광객 1000 만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지 개발 및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벌써 2~3 년간이나 지속돼, 이미 부동산 갑부들이 많이 탄생했으며, 갑부들은 다시 부동산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물가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동산 구입자금이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투자자본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

3) 정부 대책

현재 맹목적인 부동산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모로코 정부에서는 최근 부동산 구입시 구입 목적을 신고하고,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작성해 시행중이다. 모로코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공급과 수요의 큰 차이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공급량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현재 공급이 크게 필요한 부동산은 고급 주거지 및 고급 사무실이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제조업의 대외 경쟁력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실제로 카사블랑카의 경우 다른 도시에 비해 물가가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기업이나 모로코 대기업을 위주로 종업원의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모로코 정부는 현재 국가의 발전을 위해 제조업체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부동산 열풍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둔화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최근 건설경기 활성화와 관련, 모로코는 전반적으로 시멘트, 콘크리트, 철강 등의 자재 부족상태에 있다. 시멘트의 경우 현재 연간 생산능력 1100만 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어 현재 수요량 약 1000만 톤을 커버할 수 있으나 향후 매년 12%가량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생산시설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며, 콘크리트 부문에서는 시설이 낙후해 큰 폭의 투자가 필요함(관련 설비, 레미콘 차량 등). 또한 모래 준설이나 대리석 공급업체들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관련 설비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투자동향

- 투자유치금액('06): 34 억 달러 ('05 년: 29 억 달러)
- 지역별 투자유치 비중

투자국가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EU 기타	미국	기타
비중 (%)	42	21	7	20	6	4

정보원: 모로코 통계국

- 한국의 대모로코 투자 규모 : 3 백만달러 (LG 전자 판매법인)

나. 분야별 투자유치 현황

(단위: %)

분 야	2003	2004	2005
부동산	7.2	21.5	9.1
제조업	80.8	18.9	8.7
관 광	0.8	15.1	11.7
통 신	2.7	7.6	58.9
금 융	0.9	17.8	4.6

(정보원: 모로코 통계국)

1) 투자지역으로서의 모로코에 대한 평가 (ERNST & YOUNG 분석)

- 유럽, 동구에 견줄만한 유력 투자지로 급부상
- 투자지역으로서의 이미지 향상 : 근접성, 인력, 날씨, 정치안정
- 고급인력의 증가 (유럽.미국 유학인력 증가, 영어인력 급증)
- 인건비, 임대료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감소

2) 문제점

- 모로코의 투자유치활동 수단 미흡
- 해외 파이낸싱 수단 부족
 - 해외투자진출시 국내외업체 모두 파이낸싱이 최대 걸림돌로 작용
- 유럽식 노동법 적용
 - 고용인 해고시 까다로운 조건 적용
 - 휴가, 출산 등 제반 규정이 까다로워 고용원 보호막으로 남용
- 현지 인력의 부족
 - 첨단 및 신규 분야에 대한 기술인력 부족
 - 영어구사 인력의 부족

3) 활성화 방안

- 투자유형별 분류 지원
 - 수년내 사장될 기술의 조기 수출 추진
 - 신규 개발기술에 대한 투자처 발굴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 해외시장 타겟 기술의 발굴 및 지원
 - 입찰 및 주요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투자
- 국내외 기업간 협력 프로젝트
 - 현지의 기술도입 희망 기업에 대한 국내 적정기업 발굴
- 국내의 해외투자진출 인프라 강화
 - 정부의 해외투자진출 장려: 조직 및 자금 지원 강화
- 해외 투자진출활동 강화
 - 해외 투자유치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공동사업 추진
- 파이낸싱 수단 다양화
 - World Bank 등 파이낸싱 수단 다양화
 - 국내 금융기관의 우량 해외프로젝트 투자 참여 유도

다. 분야별 투자내역

1)'06년 주요 관광 투자 프로젝트

- '06년 주요 투자 프로젝트

투자기관	투자지역	투자금액(억달러)	고용창출(명)
Gulf Finance House	Marrakech	9	4,000
Gulf Finance House	Tanger	7	2,200
Qatar 정부	Tanger	4.5	2,415

- 현재 검토중인 프로젝트

투자기관	투자지역	투자금액(억달러)	고용창출(명)
Iberostar(스페인)	Marrakech	2.8	846
Iberostar(스페인)	Tanger	1.1	300
Leonard de Vinci (이태리)	3개지역	2.3	860
Leonard de Vinci (이태리)	Agadir	호텔, 아파트 등 520실	
Marrakech Medina Club (프랑스-모로코)	Marrakech	0.4	300

2) 투자기업의 관심도

- 모로코 관광 투자는 호텔 및 콘도시설과 골프장, 승마장 등의 스포츠 시설에도 병행되고 있다.
- 특히 부동산 경기가 좋아 관광 지역에 건설된 빌라 및 아파트 등은 빠르게 팔리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도 급속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투자기업들이 부동산 투자에 매우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이에 따라 모로코 관광분야의 투자를 리드하고 있는 중동 기업들이 부분적으로는 부동산에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광지 건설과 관련한 주요 관심사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관광지별 (평균면적 300~400ha) 주변 인프라 확충에 대한 모로코 정부의 지원
 - 고급 빌라촌 건설 (빌라/아파트 당 분양가격: 50만~100만 유로)
 - 고급 호텔 및 휴양시설 건설 (디럭스호텔, 골프장 등)
- 중동 투자자들의 투자 거점은 모로코 북단의 Tanger 이며, 지역 거점은 중부지역의 Marrakech, 대서양 연안의 Azur Plan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 Azur Plan: 프랑스 남부의 Cote d'Azur(쾨빛해변)를 본따서 대서양 해변의 관광지를 일컬음.

3) 인프라에 대한 투자

- 모로코 경제의 양대축을 이루고 있는 산업은 관광과 건설이며, 발전전력 사업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관광산업은 인프라 건설 투자를 수반하고 있음. 이에 따라 모로코 건설장비 시장은 경쟁이 매우 격화되어 있으며, 한국산 중장비의 진출도 눈에 띄게 증하고 있다.
- 모로코의 건설장비 시장이 향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건설장비 시장은 가격경쟁력이 좌우하고 있는 실정이며, A/S 조건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4) 모로코 관광산업의 문제점

- 외국 투자가의 태만
 - 사우디 기업이 개발 기한을 지키지 않아 유럽기업으로 개발 권리를 넘긴 사례가 있다.
 - 이는 중동기업들이 당초 투자결정시 남아도는 석유 수입금 처리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며, 관광지 개발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중동업체들에게서 종종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관광지에 건설중인 호텔은 대부분 5성, 4성 호텔로서 저가 호텔이 거의 없다.
 - 이는 소수의 고급 관광객을 겨냥한 것으로서 서민 관광객 유치 목적이 아니므로 향후 관광객 1000만 명 달성에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외국 관광객을 만족시킬 토산품, 기념품 등의 개발이 매우 미흡하다.
- 관광자원의 다양성 상실
 - 현재 개발 중이거나 계획중인 관광지는 일괄적으로 휴양지 개념이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서양 해변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모로코 영토의 특징중의 하나인 산악지역, 사막지역을 개발지역에서 제외함으로써 다양성을 상실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휴양시설만으로 관광입국 달성이 비관적이라는 견해도 많음.

다. 모로코 진출 다국적 기업 현황

모로코 진출기업의 50%가 프랑스계 기업을 선두로 스위스 기업이 15%, 이어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계 기업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진출 분야별로는 의약품, 위생용품, 타이어, 화학 분야에 집중 되어있다.

모로코 진출기업의 현지활동 제약요소는 금융, 행정 절차, 노사관계 외에도 모로코 내수 시장이 협소한 것이 현지 영업활동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내수 시장 의 협소로 모로코에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ST MICROELECTRONICS(구 SGS THOMSON)사는 생산 전량을 수출하고 있다.

모로코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자본 유치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쟁국들 보다 유리한 투자 환경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수년간 다수의 외국 기업들이 모로코에 진출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공공 서비스분야까지 진출을 하고 있으나 이런 투자확대의 걸림돌들은 모로코 정부의 투자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내부 사정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모로코 진출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 설문조사, 컨설팅 등 많은 조사결과는 모로코 시장 의 상당한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요소들이 확인되었다. 투자확대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는 모로코 내 도로망 및 항만과 공항의 시설미비를 들 수 있다.

우선 도로망의 경우 과도한 고속도로 통행료와 충분치 못한 고속도로망을 들 수 있으며 높은 교통사고율은 보험료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항만의 문제점으로 신속 하지 못한 서비스와 고가의 이용료와 물동량 처리의 한계를 들며 카사블랑카 항에 시설과 물량의 집중되어 있으며 공항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모로코의 전반적인 대중교통수단 미미로 기업들이 종업원들에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생산원가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이 외 투자확대를 막는 요인으로는 시설이 완비된 공단의 미비를 들 수 있다. 모로코 진출 외국기업의 97%가 인프라의 존재여부가 투자결정에 절대적인 요소라고 밝혔으며 이중 34%가 모로코 인프라 사용료가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생산비용 상승의 대표적인 요인으로 상시 거론되는 전기료는 조사대상 기업인중 16%가 비용 상승의 주 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전기료 17% 인하조치가 긍정적이기는 하나 경쟁국인 튀니지 와 같은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행정절차의 불 투명성을 들 수 있다. 모로코 정부차원의 투자유치 의지와는 별개로 세부 시행절차들이 상호 부합되지 않는 점이 난제이며 이런 문제 들은 모로코 행정부서간의 의견 조율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PRICE WATERHOUSE 사는 지적하고 있다. 또한 법률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기업들은 법률의 정확한 해석과 분쟁 시 빠른 중재를 원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현지진출 외국 기업들은 노동 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모로코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모-EU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향후 모로코 시장의 잠재력은 현실적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양질의 노동 력이 모로코 투자 결정 요소 중 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라. 현지 투자 사례

1) 의약분야의 다국적기업 진출, 모로코 관련산업발전에 기여

모로코 의약품 업계의 발전에는 다국적기업의 인력 양성, 노하우 축적, 신규 투자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며 이는 상기 분야 22개 업체 중 65-70%를 차지하는 다국적 기업 의 공헌에 힘 입은 바 크다. 이는 당연한 현상으로 다국적 기업들은 국제적으로 간부 들을 교육하는 플랜을 실행 시키며 자회사의 인력을 교육시켜왔다.

다국적 기업들은 모로코에 기술이전을 통해 연구개발 분야를 발전 시켰으며 이는 외국 기업 들이 연구개발 분야에 매출액 대비 15%를 투자하며 한가지 의약품의 개발에서 상업 화까지 약 US\$ 4-5억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모로코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이전은 관련 연구소에 지속적인 투자를 요구하며 5년간 상기 분야 투자 가 US\$ 1.2억에 달하고 있다.

모로코는 선진 의약업체의 기술이전에 힘입어 아프리카대륙에서는 남아공에 이어 제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의약품 품질이 유럽기준으로 생산되어 일부는 수출도 가능 하게 되었다. 수출잠재력은 총 생산량의 10%인 US\$ 2천8백만-3천5백만 달러로 추산 되고 있다.

모로코 자체생산 의약품들은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등 유럽과 알제리, 아이보리 코스트, 리비아 등 아프리카 권, 사우디, 이라크 등 중동시장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특히 중동-아프리카 비중이 80%로 가장 높다. 일부 모로코 의약품 업계는 얼마 전 인수 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우는 구조조정을 끝냈으나 잔존 소형 업체들이 흡수되거나 거세 되는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향후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다른 문제점으로는 기존 라이선스를 통해 생산을 하던 다국적 기업들의 정책이 변경될 경우 모로코 현지 업계 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모로코-미국간의 FTA체결로 그 동안 국내 제조되는 의약품에 대해 수입금지가 되어왔으나 미국 의약품의 모로코 진출이 예상되면서 국내 의약품 업계는 경쟁력 확보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2) FAGOR MOROCCO, 신규 가전생산 라인 증설

모로코 진출 5년째인 동 사는 가전제품 11개 생산라인에서 200개 모델들을 생산하며 170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 동 사는 매출액의 3%를 사원 재교육에 투자한 결과 자체 고용 인력으로 제품 생산 조립 노하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06년 4월 기준 본사 파견 기술인력은 6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동 사는 스페인 공장에서 ISO 9001,9002를 획득하는 등 품질기술인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곧 모로코 공장에도 시행 예정 이다. 신규 생산라인은 주로 가스레인지와 세탁기로 공세적인 마케팅을 위해 광고비로 US\$ 4백만을 책정해 놓고 있다. FAGOR사의 모기업은 스페인 소재 MONDRAGON CORPORATION COOPE RATIVA(MCC)사로 연간 매출 US\$ 64억에 US\$17.6억을 해외로 수출하는 거대 기업이다.

동 사는 100여 개의 계열기업에 47,0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며 생산, 재정, 배급 분야로 구분된다. FAGOR사는 모로코에 투자가 용이했다며 해외 투자 시 애로사항들은 어느 나라에 투자하건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사항이라며 모로코는 특히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번 조사에서 밝히고 있다. 동 사의 현안으로는 대 아프리카 수출 목적으로 생산되는 제품들의 생산원가가 모로코 공장보다 스페인 공장이 훨씬 저렴 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투자동향

'06 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모로코 직접투자 누계액은 약 58,202 천불이며, 투자건수는 총 18 건이다. 그러나 '04 년 Rabat 힐튼호텔이 매각된 이후 현재 남아 있는 투자건은 LG 전자가 유일하다. 한국 가전업체들의 모로코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모로코 정부로부터 한국기업의 모로코 투자 요청이 거세지고 있으나, 현지 투자여건의 미성숙으로 인해 아직 동 분야에서 투자를 고려중인 업체는 없으며, 최근 건설부문 및 발전소 부문에서 한국업체의 관심이 높아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모로코-미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모로코-터어키간 FTA, EU-모로코간의 관세인하 협정에 따른 주요경쟁품목의 관세인하 등으로 한국의 수출에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모로코의 경제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럽 및 북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모로코에 대한 투자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유럽국가들도 모로코를 주요 생산거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모로코는 북단의 Tanger 지역에 거대한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고, 이를 현재 개발중인 신항만과 연계하고 있어 한국기업의 대 모로코 투자진출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하여서는 안될 과제가 되고 있다.

1) 연도별 진출현황

(단위 : 건, US\$천)

년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80	10	1,430	8	1,249
1981	4	352	2	108
1982	1	25	0	0
1983	2	165	0	0
1984	0	0	0	0
1985	0	0	0	0
1986	0	0	0	0
1987	0	0	0	0
1988	0	0	0	2
1989	2	2,195	1	1,050
1990	0	545	1	1,145
1991	1	108	1	116
1992	0	0	0	0
1993	0	0	0	0
1994	0	338	0	338
1995	0	0	0	0
1996	1	500	1	50
1997	1	12,000	1	12,000
1998	2	85,220	1	27,610
1999	0	0	0	0
2000	1	14,500	1	14,500
2001	0	449	0	0
2002	0	0	0	0
2003	0	0	0	0
2004	0	0	0	0
2005	0	0	0	0
2006	1	200	1	34
2007	0	0	0	0
합계	26	118,027	18	58,202

주) 2007.7 월 기준 /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2) 업종별 진출현황

(단위 : 건, US\$천)

업종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제조업	4	87,065	3	28,993
숙박음식점업	1	24,220	1	24,110
도소매업	3	3,564	3	2,665
농림어업	16	1,928	9	1,348
광업	1	1,050	1	1,050
서비스업	1	200	1	34

주) 2007.7 월 기준 /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3) 투자진출기업 현황

(단위 : 건, US\$천)

회사명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DAEWOO MAGHREB S.A.	1	45,000	1	27,500
DAEWOO MAROC S.A.	1	40,000	0	0
DAEWOO RABAT S.A.	1	24,220	1	24,110
LG ELECTRONICS MOROCCO SARL.	1	2,949	1	2,500
KYMA	1	2,028	1	1,483
ALPHA COMMERCIAL D' IMPORT EXPORT(ACIMEX)	1	1,050	1	1,050
DONGSU	1	895	1	895
DAEWOO ELECTRONICS MAROC	1	500	1	50
YU JIN COMPANY	1	200	1	34
DONGWON SOOSAN	1	157	0	0
OYANG SOOSAN	1	135	0	0
SOCIETE DAEWOO MOROCCO	1	115	1	115
DONGWON SOOSAN*	1	110	1	110
K.M FISHERIES CO.S.A.	1	108	1	116
DAEHO WON YANG AUP	1	100	0	0
DAEHO WON YANG AUP	1	100	0	0
MERIT FISHERIES SOCIETE	1	67	1	63
SQUID FISHERIES S.A.	1	64	1	55
SMACOPEH S.A	1	53	1	53
DAEHO WON YANG	1	50	0	0
PEMACO.S.A	1	40	1	40
NAMSUNG WONYANG AUP	1	37	1	10
WOOYANG AUP	1	25	0	0
SOCIETE GENERALE MAROCAINE DE PECHE (SOGEP).	1	10	1	10
HAEWAE SANUP	1	8	0	0
SOCIETE SAHARIENNE DARMEMENT ET DE PECHE	1	6	1	6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나. 한국의 대 모로코 투자 가능 분야

2006년 2월 기준 대 모로코 투자는 LG전자가 판매법인을 설립한 것이 전부이며, 한국 기업의 투자유망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전력

모로코 총 발전량은 14,237GWh로 전력손실은 11.2%인 1,483GWh 총 소비전력은 12,754 GWh에 달한 것으로 모로코 전력 공사(ONE/Office Nationale de Electricite)는 밝히고 있다. 모로코에서 생산 소비되는 총 발전량은 모로코 전력공사가 90 %, 민간 회사가 10 %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중 화력 발전 비중이 90%, 수력 및 기타 발전이 10%를 차지하며, 전력 소비량은 최근 년도 평균 7%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 2007년 까지 모로코 내 모든 가구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 하에 전력 공급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모로코 전력망은 인근 마그레브 국가인 알제리 및 튀니지와 일부 연결되어 있으며, 아랍 투자 기금(FADES)에서 배정되는 총 15억 USD 예산을 투입해 이집트 등 아랍권 국가간의 전력망 연결을 추진중이다. 지난 1995년부터 모로코의 전력망은 스페인과 일부 연결되어 잉여

전력을 교환 사용하고 있으나 실험적인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마그레브와 지중해 연안국 간의 전력 등 에너지 공급 시스템 연결을 마그레브전력위원회 (COMEELEC) 주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추가비용 등 기술적인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다. 마그레브권과 지중해 연안 유럽국 간 전력 시스템과 연결 운영함으로써 잉여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예기치 않는 사고로 전력 공급이 부족하거나 중단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수자원

모로코에는 각지에 총 84개의 댐이 있으며, 동 댐에서 년 평균 118억㎥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 농업이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모로코는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2,000년까지 매년 1개씩, 2000-2010년간 매년 2개씩, 그리고 2010-2020년간 매년 3개의 댐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다.

□ 가스

모로코에는 마그레브-유럽 가스 파이프 라인이 통과하고 있다. 알제리에서 모로코 북부를 경유하여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스페인까지 가스관을 설치하는 공사가 지난 1996년 완료되어 알제리산 천연가스가 스페인까지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인근 유럽 국가에 가스 공급을 위한 연장 공사가 진행중이다.

한편 모로코는 동 가스관 건설 및 통과 대가로 알제 리 국영회사인 Sonatrach 사로부터 연간 10억m³ 천연가스를 제공받고 있다. 동 가스는 Tanger 근교에 건설 예정인 375-475MW 규모의 화력발전소에 사용될 예정이다.

□ 상하수도

전반적으로 상하수도 시설은 도시지역의 경우 신청하면 즉시 이용 가능하며, 도시의 빈민층 거주지역이나 농촌지역의 경우 상하수도 시설이 미비한 지역이 많다. 일반적으로 산업지역 (Zone Industrielle)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산업 지역 입주 업체들은 상하수로 인한 문제는 거의 없으며, 기타지역에 입주 시에도 산업 제조 시설 (공장)에는 상하수도 시설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므로 동 시설 이용에 어려운 점이 거의 없다. 상하수도 서비스 신청시 주택과 공장을 구분하여 신청을 받으며, Commune(한국의 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기입, 제출하면 된다. 모로코는 상수도 (수도) 사용료를 지불하며, 하수도 요금은 없다.

□ 도로

모로코는 총 도로 연장 60,450km, 도로 포장률 60%로 아프리카 국가에서 남아공 다음으로 도로망이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다. 최대 상업도시인 카사블랑카에서 시작되어 수도인 라바트를 지나 북부지역 라라쉬(Larache)까지 230km 구간이 선진국 수준의 왕복 4차선 고속도로가 포장되어 있고, 현재 북부 당제와 남부 아가달까지 785km 에 달하는 남북 고속 도로를 건설중이며, 2005년까지 완공될 예정으로 있다. 또한 라바트에서 북부 알제리 접경 도시인 우즈다 지역까지 동서 고속 도로 계획이 추진중이며 1차로 라바트-페스간 180km 고속도로는 개통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 철도

모로코 전국의 총 철도 연장 길이는 1,907km이며 총 철도 연장 중 약 53 % 에 달하는 1,003km는 전철이 나머지 구간은 디젤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철로 구성을 보면 복선 281km (전철), 단선 1,626km이며 연간 수송여객은 연인원 1,066만명, 수송화물은 2,733만 톤에 달하고 있다. 모로코 철도공사(ONCF : The National Railway Bureau)와 벨지움 철도 공사 (Belgian National Railway Company)간의 협력 하에 모로코와 유럽 철도망이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다. 즉, 유레일 패스를 갖고 있으면 모로코 북부 항구도시인 Tanger 에서 스페 인의 Cadiz까지 선박으로 건너후 Cadiz 에서 벨지움 Muizen 까지 2,320km이 연결되는 기차편을 이용해 여행할 수 가 있다.

□ 항공

모로코 국영 항공사인 Royal Air Maroc(RAM)은 국제선 및 국내선을 운영하고 있다. 국적기로 파리, 암스텔담, 런던등 유럽의 주요 도시와 아프리카, 중동, 미주 등 4 대륙 32 개국 75개 도시를 운항하고 있다. 현재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RAM은 30여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지난 1997년 9월 설립된 모로코 최초의 민간항공사인 regional air line은 12인승 소형 경비행기로 모로코 국내 도시간을 운행 중이며 국내선 및 국제선 운항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다.

모로코 내에는 27개의 공항이 있는데 그 중 국제 공항은 외국 관광객의 주요 입국 관문인 카사블랑카, 아가딜, 마라케시등 10개에 달하고 있다. 모로코의 공항 시설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남아공 다음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특히 카사블랑카의 Mohammed V(모하메드 썩크) 공항은 연간 46,500대의 항공기가 이착륙 하고 316만명의 여행객이 오가고 있는 선진국 수준의 시설로 서부 아프리카 제일의 공항 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Mohammed V(모하메드 썩크) 공항 인근에 새 공항 건설, 확장 공사 중이다. 또한 Agadir, Marrakesh, Oujda, Rabat, Fes 공항등이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통신

통신은 모로코 경제에서 매년 10%의 성장률을 보이는 가장 빠르고 급격한 성장 부문 중 하나로 2000년대 정보화 사회에 대비해 모로코 정부는 정부 투자의 최고 우선 순위 에 두고 지원 중이다. US\$ 7억불에 Portugal Telecom, Telefonica, BMCE Bank, Afriquia Group로 구성된 콘소시움에 제 2 이동 통신 사업권(GSM)을 부여했고 2004년에는 Maroc Connect (ONA그룹 계열)사가 제 3 이동통신 사업자로 지정되었다.

국영 통신 공사인 Maroc Telecom과 이동 통신 시장을 경쟁 체재로 운영하고 있다. 2004년 말 기준 이동 통신 단말 기 사용인구는 약 7백만 명으로 추산되며 그 중 90%는 카드 장착 식인 prepaid 사용자로 분류된다. 모로코 정부는 현대화를 위하여 광케이블 및 위성 통신망 시설 확충에 투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특히 모로코-유럽, 미주, 중동, 서부 아프리카간 광케이블망을 확충할 예정이며 ARABSAT, EUTELSAT 및 INTELSAT를 위한 위성 기지국 시설 확충에 본격 투자할 계획이다.

다. 우리나라 진출기업 현황

□ 삼성전자 카사블랑카 지점

1) 기본 정보

- 도시: 카사블랑카
- 주소: IMM ESPACE SANS PAREIL 6eme ETAGE No 62, Lotissement taoufik lot 20-22, Casablanca, Morocco
- 전화: + 212-22-335383
- 팩스: + 212-22-335210
- 이메일: steven.kim@samsung.com
- 대표: 김상현 지점장

2) 주요 현황

- 업종: 연락사무소
- 취급분야: 정보 통신 및 가전제품
- 진출: 지사(Liaison office)/마그레브권(모로코, 알제리, 튀니지)관할
- 진출 년도: 1995년
- 종업원현황: 2 (본사파견), 5 (현지채용)
- 설립자본금: 없음
- 연간매출액: 3500만불(서비스/매출액 포함)
- 합작선: Falcon

3) 국내 모기업

- 모기업명칭: 삼성전자
- 주소: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250번지 삼성본관
- 전화: + 82-2- 751-6114
- 팩스: + 82-2-751-6037
- 사장(CEO): 윤종용

□ LG 전자 모로코 현지법인/LG Electronics Morocco S.A.R.L

1) 기본 정보

- 도시: 카사블랑카
- 주소: 본사 - Lot No.33 Colline II, Sidi Maarouf, Casablanca
서비스센터- Route Mediouna, Angle Rue Ifni, No.17, A24, Casablanca
- 전화: + 212-22-541616(서비스센터), 212-22-97-3232(사무실)
- 팩스: + 212-22-543543(서비스센터), 212-22-97-3288/3289
- 이메일: jaeyounglee@lge.com
- 대표: 이재영 법인장

2) 주요 현황

- 업종: 서비스(북부아프리카지역) 및 판매업(모로코지역)
- 취급분야: 가전제품, 통신제품
- 진출: 단독법인
- 진출년도: 2000.6.1일부로 서비스판매법인에서 판매법인으로 전환
- 종업원현황: 6 (본사파견), 70 (현지채용)
- 설립자본금: 200만불(2000.6.1일부로 서비스판매법인에서 판매법인으로 전환)
- 연간매출액: 1억불(2004년)

3) 국내 모기업

- 모기업명칭: LG전자
-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트윈센터 빌딩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335
- 전화: + 82-2-3777-2768
- 팩스: + 82-2-3777-3440

□ 현대 자동차 카사블랑카 지점**1) 기본 정보**

- 도시: 카사블랑카
- 전화: + 212 22 79 86 27 /95
- 팩스: + 212 22 79 85 74
- 이메일: Hyundaimotors@menara.ma
- 대표: 이윤진 과장

2) 주요 현황

- 업종: 연락사무소
- 진출년도: 2006년 2월
- 종업원현황: 1 (본사파견), 2 (현지채용)

3) 국내 모기업

- 모기업명칭: 현대자동차(주) / Hyundai Motor Company
- 주소: 137-93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1번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 전화: + 82-2-3464-1114

4. 주요 투자법 내용**가. 주요 투자법 내용**

외국인투자자와 관련 1996년에 개정된 신 투자법(Investment Charter)은 총 2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투자목적, 조세규정, 금융 및 행정절차, 농업부문, 시행 절차 등의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 투자관련 법규는 상법(Commercial Code), 기업법 (Company Law), 노동법(Labour Law)등이 있다.

신 투자법은 분야별로 별도로 분리되어 있던 과거 투자관련 법규들을 농업부문을 제외하고 대체하고 있다. 신 투자법이 담고 있는 주요 투자 유치 조치는 조세의 최적 배분으로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특혜 조세 제도를 부여하며, 투자 관련 절차의 단순화 및 투자자에 부합된 개런티를 강화하며 OFF-SHORE 금융, 수출 자유 지대 및 산업용 면세 창고 (EIF)제도 진흥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 및 내국인 투자자에게 프로젝트의 실행과 관련하여 투자유치 및 지원기구로 산업개발청(Office for Industrial Development/ODI)이 있는데 주요업무는 부문별, 프로젝트 별 투자조사, 내국인 및 외국인 민간투자 유치, 자유무역지대 설립 등이다.

산업개발청(ODI)은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 컨설팅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립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자와 합작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산업개발청 (ODI)은 프랑스 파리에 유럽대표부를 운영하고 있다.

1) 외국인 투자제한

현재 모로코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경제가 개방화, 자유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지난 1973년 제정된 모로코화법령에 의해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었던 분야도 1990년 1월 1일부로 대폭 축소된 바 있다. 과거 외국인 자본참여한도를 50%로 두었던 모로코화법의 폐지로 출자비율의 제한이 없게 되었으며 현재 모로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모든 경영 및 산업활동에 대해 외국인도 동등한 조건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동 법령 폐지 이전에는 모로코화에 속하는 투자에 종사하는 법인 및 조합(합명회사)의 외국인 소유권이 50%로 제한되어 있었다.

2) 투자 금지

외국인과 모로코 내국인이 개인적으로 투자가 금지된 분야는 국가 에너지 및 수자원 독점에 대한 경쟁 산업분야, 철도 및 운송업, 인광석의 채광 및 가공,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산물, 공공 질서 및 건강, 안전에 저해된다고 간주되는 산업에는 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또한 금융, 보험업 및 제약업 등의 산업 분야와 특수한 경우 사기업에 특수 규정 및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모로코화법에 대한 적용 법령의 폐지로 인해 외국인의 소유권에 대한 규제가 근본적으로 소멸되었으나 단, 외국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는 없다.

나. 투자인센티브

모로코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조세, 금융, 외환 부문에 대해 투자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특히 현지인 고용창출효과가 큰 경우에는 모로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의 계약으로 특별한 혜택을 부여 받을 수도 있다.

1) 외환부문

모로코 내에 거주하거나 비거주 외국인이 외화로 투자한 경우는 금액과 기간의 제한없이 순익을 송금하는 것을 보장하며 전체 또는 부분적인 지분양도나 청산으로 인한 송금도 보장해 주고 있다.

2) 금융부문

프로젝트용 토지 취득비, 투자지역 인프라 비용, 직업훈련비는 모로코정부와 기업간 계약의 일환으로 국가가 일부 부담하고 있다. 이외 경제개발수준이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요하는 지역은 공단 구획 정리비의 일부를 국가재정으로 부담해 주고 있다. 이외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한 금융지원은 없으나 투자기업은 모로코 법인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므로 모로코 기업과 동일하게 현지에서 금융신청을 할 수 있다.

3) 조세부문

구분	우대내용	대상
수입관세(D.D)	2.5~10% 면제	자본재, 부품 및 부속품
부가가치세(TVA)	면제 또는 환급	자본재
등록세	면제	투자용 토지 취득
	0.5%	자본 조성 또는 증자
	2.5%	토지분양 건축용 토지 취득
영업세	최초 5년간 면제	전문직, 공업 또는 상업 활동
도시세	5년간 면제	신축, 중축공사, 생산기계 및 장비
법인세(IS) 및 종합소득세(IGR)	최초 5년간 면제, 최초 5년간 50%감면	제품 및 서비스 수출기업 조세우대제도 시행 지역에 설립된 기업
투자 공탁금	IS, IGR 면제	
감가상각	가속상각 적용	자본재
법정예산수입세(TPI)	면제	주거용 부지 최초 양도 시 이윤

5. 진출형태별 절차

1) 해외 지사

외국법인의 모로코 지점인 해외지사는 국내법규상 내국인자격은 부여하지 않고 외국 법인으로 취급되는데, 이의 설립절차는 지사의 수권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작성하여 모 기업 임원의 동 권한위임내용에 관해 서명, 날인한 후 공증을 받아서, 모기업의 정관과 함께 각 지역에 소재한 상업등기소(Registre du Commerce)에 제출함으로써 종결된다.

외국 법인의 계열 회사 혹은 자회사가 모로코의 법인 규정에 의해 법인체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외국 법인의 모로코 지점은 법인체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모로코 내에서 선임된 대표의 권한은 문서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지정 대표의 권한 위임을 가능케 하는 본사 임원의 서명(날인)은 공증인 혹은 주 모로코 영사에게 인증받아야 한다. 상업등기소에 지점의 등록 시, 지점을 설립하려는 외국회사의 정관도 제출해야 한다.

세금 문제를 비롯 여러 가지 이유로 모로코 지점의 본사로 활동하기 위한 새로운 법인 설립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지정 활동 형태는 특수 계약 계획이 있고, 그 이후 추가적 상업 및 산업 활동이 없을 경우나 계약 혹은 기획 기간이 2년 혹은 3년 등의 제한된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 지점이 설립되고 있으며 지사개설절차는 주식회사 설립절차와 동일하다.

2) 회사 형태

-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 가장 간편한 회사설립 형태
 - 한국 본사의 위임장만으로 회사 설립가능(주모로코 한국대사관 공증 필)
 - 법 규정상 모로코 내부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음.
 - 영업세(Patente)는 설립 년부터 5년간 면세
 - 법인세는 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회사 형태상 연간 총지출의 10%를 Basic으로 35%

- 유한주식회사 (Societe Anonyme Responsabilite Limite/SARL)
 - 2인 이상의 주주와 자본금 1만불 이상
 - 주주들의 책임 한도가 한정되어 있으며 모로코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회사 형태
 - 영업세(Patente)는 설립년도부터 5년간 면세
 - 법인세는 이익의 35%

- 프로젝트시행 목적의 한시적 연락사무소
 - 입찰의 참가 또는 시행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한국 본사의 위임장(주모로코 한국대사관 공증 필) 및 모로코 입찰 기관의 확인서 필요
 - 기타 세부 사항들은 각 사안별로 상의
 - 법인세는 연간 총지출의 8%를 Basic으로 35% 납부

- 주식회사 ((Societe Anonyme/SA)
 - 7인 이상의 주주와 자본금 1만불 이상
 - 주주들의 무한대 책임 법인세는 이익의 35%
 - 법인세는 이익의 35% 납부
 - 영업세(Patente)는 설립년도부터 5년간 면세

3) 투자 형태의 결정

모로코 현지진출을 위해서는 100%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것인가, 아니면 현지 파트너와 합작으로 기업을 설립할 것인가, 단순히 국내 모기업의 지사를 설립할 것인가, 또는 외국인 지분이 없는 기 설립된 기업의 주식매입(즉 민영화에의 참여) 혹은 전매입할 것인가 등의 투자형태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4) 외국인 투자 기업유형

모로코에서 가장 보편적인 현지 투자 진출 시 기업형태는 주식회사(Societe Anonyme: SA), 유한회사(Societe a Responsabilite Limitee: SARL), 합명회사(Societe en Nom Collectif), 합자 회사(Societe en Commandite Simple)가 있으며 기업유형별 법적 요건은 아래의 표와 같은데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 기업은 주로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지사간 비교

법적요건	주식회사(S.A)	유한회사(S.A.R.L)	지사
최소법정자본금	DH100,000	DH100,000	없음
주주	5인 이상	1인 이상	없음
내국인 참여 요건	없음	없음	없음
노동자대표권	없음	없음	없음
노동자 해고 허용여부	있음	있음	있음
직접투자관리	있음	있음	있음
납세후이윤분배허용여부	있음	있음	있음
자본의본국송환허용여부	있음	있음	있음
청산수익이전허용여부	있음	있음	있음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	있음	있음	있음
유리한 조세처리가능성	있음	있음	있음
법적과세조언자 필요성	있음	있음	있음

주: 1주당 최소가치는 DH 50

자료원: <http://www.mfie.gov.ma>, A Guide for Investors in Morocco

▣ 입지선정

1) 입지여건

모로코는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독립성이 없으며, 중앙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행정분산과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행정 및 지역 경제 중심으로 이중 구분하고 있다. 모로코 지방자치행정구조를 보면 9 개도(Wilaya: 우리의 도와 유사한 성격), 22개 현(Prefectures: 시와 유사), 43개 지방(Province: 군. 읍과 유사) 및 1,544 면(Commune)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1959년 2개 현과 16개 지방으로 출발 했으나, 인구 증가 및 서부 사하라 편입에 따라 기구가 대폭 확장되었다. 모로코는 전국을 경제적으로 남부권, Tensift권, 중부권, 북서부권, 중북부권, 동부권, 중남권으로 구분 하는 16 개 경제구역(Economic Region)으로 분류하고 있다.

□ OUED ED DAHAB-LAGOUIRA

- 면적: 50.880 KM² (모로코 전체 면적의 7.16%)
- 인구: 35.751 명 (모로코 전체 인구의 0.14%)
- 수도: DAKHLA
- 주요기관: 항만청, 수산청
- 중요산업: 어업, 수산물 가공
- 특기사항: 모로코 원양어선의 80%가 DAKHLA항에 집중되어 있음

□ LAAYOUNE-BOUJDOUR-SAKIA EL HAMRA

- 면적: 139.480 KM² (모로코 전체 면적의 19.62%)
- 인구: 175.669 명 (모로코 전체 인구의 0.67%)
- 수도: LAAYOUNE
- 주요기관: 수산청 (ONP OFFICE NATIONAL DES PECHES)
- 중요산업: 어업, 인광석 채굴

□ GUELMIM-ES SMARA

- 면적: 133.730 KM² (모로코 전체 면적의 18.81%)
- 인구: 386.075 명 (모로코 전체 인구의 1.5%)
- 수도: TAN-TAN
- 주요기관: 수산청
- 주요산업: 어업
- 특기사항: TAN-TAN항은 세계 최대의 정어리 집산지, 모로코 어획고의 37% 차지

□ SOUSS-MASSA-DRAA

- 면적: 70.880 KM² (모로코 전체 면적의 9.97%)
- 인구: 2.635.529명 (모로코 전체 인구의 10.10%)
- 수도: AGADIR
- 주요기관: 수산청, 관광부, 교통부
- 주요산업: 어업, 수산물 가공업, 관광업
- 특기사항: 모로코 제 2의 산업지대, 경제 및 교역 수산물 가공업 발달, 모로코 오렌지, 감귤생산의 46%, 모로코 전체, 고급 호텔 객실 수의 30%가 이 지역에 위치

□ GHARB-CHRARDA-BENI HSEN

- 면적: 8.805 KM² (모로코 전체 면적의 1.24%)
- 인구: 1.625.082명(모로코 전체 인구의 6.23%)
- 수도: KENITRA
- 주요기관: 모로코 전력공사, 교통부
- 주요산업: 농업, 제당업

□ CHAOUIA-OUARDIGHA

- 면적: 16.760 KM² (모로코 전체 면적의 2.36%)
- 인구: 1.554.241 명 (모로코 전체 인구의 5.96%)
- 수도: SETTAT
- 주요기관: 상공부, 수공업부, 농업청, 모로코 인산염공사(OCP)
- 주요산업: 농업, 광업, 섬유
- 특기사항: 모로코의 곳간이라 불릴 정도로 농산자원이 풍부

□ MARRAKECH-TENSIFT-AL HAOUZ

- 면적: 31.160 KM² (모로코 전체 면적의 4.38%)
- 인구: 2.744.204 (모로코 전체 인구의 10.44%)
- 수도: MARRAKECH
- 주요기관: 관광부, 상공부, 수공업부
- 주요산업: 관광업, 농업, 어업, 섬유
- 특기사항: 해마다 수백만의 관광객이 방문, 전통의 도시 마라케슈, 아틀라스 산맥의 스키장, 해양스포츠

□ L'ORIENTAL

- 면적: 82.820 KM² (모로코 전체 면적의 11.6%)
- 인구: 1.768.691 명 (모로코 전체 인구의 6.8%)
- 수도: OUJDA
- 주요기관: 상공부, 농업청
- 주요산업: 농업, 상업
- 특기사항: 알제리와의 접경지역, 200KM의 지중해 해안선

□ LE GRAND CASABLANCA

- 면적: 1.615 KM² (모로코 전체 면적의 0.23%)
- 인구: 3.713.700 명 (모로코 전체 인구의 11.81%)
- 수도: CASABLANCA
- 주요기관: 상공부, 수공업부, 모로코 인산염공사, 외환청, 항만청
- 주요산업: 섬유, 금속, 화공업, 운송, 건축, 금융
- 특기사항: 모로코의 경제적 수도로 모로코 전체 공업생산의 48%를 차지

□ RABAT-SALE-ZEMMOUR-ZAER

- 면적: 9.580 KM² (모로코 전체 면적의 1.35%)
- 인구: 1.985.602 명 (모로코 전체 인구의 7.61%)
- 수도: RABAT
- 주요기관: 왕실, 모든 정부기관, 의회, 최고 재판소
- 주요산업: 서비스업, 식품, 섬유
- 특기사항: 모로코의 수도이자 정치의 중심지

□ DOUKALA-ABDA

- 면적: 13.285 KM² (모로코 전체 면적의 1.86%)
- 인구: 1.793.458 명 (모로코 전체 인구의 6.87%)
- 수도: SAFI
- 주요기관: 농업청, 모로코 인산염 공사
- 주요산업: 농업, 인광석 채굴
- 특기사항: YOUSOUFIA에는 모로코 인산염공사 직원의 74.5% (즉 12000명을 고용하는 인광석 광산 소재)

□ TADLA-AZILAL

- 면적: 17.125 KM² (모로코 전체 면적의 2.41%)
- 인구: 1.324.662 명 (모로코 전체 인구의 5.08%)
- 수도: BENI MELLAL
- 주요기관: 농업청, 관광부
- 주요산업: 농업
- 특기사항: 아틀라스 산맥의 중심에 위치, 76%가 산악지대

□ MEKNES-TAFILALET

- 면적: 79.210 KM² (모로코 전체 면적의 11.14%)
- 인구: 1.903.790 명 (모로코 전체 인구의 7.3%)
- 수도: MEKNES
- 주요기관: 농업청, 상공부
- 주요산업: 농업, 수공업, 관광업
- 특기사항: 포도, 사과등의 과수농업 발달, 모로코의 대표적 포도주 산지

□ FES-BOULEMANE

- 면적: 19.795 KM² (모로코 전체 면적의 2.78%)
- 인구: 1.332.473 명 (모로코 전체 인구의 5.1%)
- 수도: FES
- 주요기관: 농업청, 상공부, 관광부
- 주요산업: 농업, 섬유, 피혁, 관광업
- 특기사항: 모로코의 중심에 위치, 역대 왕조 수도, 풍부한 문화유적

□ TAZA-AL HOCEIMA-TAOUNATE

- 면적: 24.155 KM² (모로코 전체 면적의 3.5%)
- 인구: 1.719.837 명 (모로코 전체 인구의 6.5%)
- 수도: AL HOCEIMA
- 주요기관: 농업청, 수산청
- 주요산업: 농업, 수산업, 관광업

□ TANGER-TETOUAN

- 면적: 11.570 KM² (모로코 전체 면적의 1.6%)
- 인구: 2.036.032 명 (모로코 전체 인구의 7.8%)
- 수도: TANGER
- 주요기관: 상공부, 수공업부, 농업청, 수산청
- 주요산업: 농업, 섬유, 관광업
- 특기사항: 이 지역은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두고 스페인과 마주 보고 있음.
스페인령 CEUTA는 말수의 본거지로 유명, TANGER 자유무역지대

2) 산업단지

□ 단지명칭: 우카샤 (OUKACHA)

- 소재지: 카사블랑카 북동쪽 수도 라바트방면(Route de Rabat, Casablanca)
- 부지면적: 26 ha
- 입주비용: 4.45~8.18 Euro/m²
- 공단특성: 200여개의 제조업체들이 입주해 있으며, 특히 공업, 기계, 화학분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생산활동 중이며 동 공단의 장점은 모로코 경제 중심지인 Casablanca에 소재해 항구(Casablanca port)와 근접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통 및 운송과 통신이 용이

- 입주절차: 기업 설립 계획서의 관계 부서(Ministere des Travaux Publics) 제출 후 공단관리사무소에 입주신청
- 교통 및 통신
 - 철도: 모로코 전역 95개 기차역과 연결되는 Casablanca 소재 Casa-ports 등 3개 역이 모두 단지와 연결되며 Casablanca의 주요 공항인 모하메드 5세 공항까지도 연결
 - 육로: 고속도로 진입의 용이성으로 모로코 수도(라바트), 중부(페스) 북부 탄지에, 라라쉬)까지 연결
 - 통신: 유선 전화는 lot당 2회선이 배당되어 있으며 핸드폰 및 Internet 이용이 가능
- 인프라 사정
 - 용수: 산업용수는 풍부한 편이며 요금은 U\$ 0.5/m³ (1\$=9.5Dh)수준
 - 전력: 시간당 전력사용요금은 고압전력(High Voltage)의 경우 U\$ 0.07Kw/h(비수기) U\$ 0.11Kw/h(성수기)이며, 저압전력(Low Voltage)의 경우 U\$ 0.08Kw/h(비수기) U\$ 0.12Kw/h(성수기)로 이원화된 요금체제로 구성되어 있음.
-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노동력확보가 용이하며 생산직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월 \$250 수준
- 외국기업 입주현황: 없음
- 한국기업 입주현황: 없음
- 우대조치 (정부지원 및 세제혜택)
 - 회사 설립 및 자본금 증식 시(자유무역지대 소재 시 해당)나 부지 구입 시 인지대와 등록세 면제
 - 건물 및 기계, 기구 관련 15년간 면허세 면제
 - 법인세는 15년간 10%만 납부하며 소득세는 80% 공제
 - 15년간 도시세 면제
 - 법인세와 연계되는 국민연대세 면제
 - 국외 거주자의 이익 배당세는 완전 면제이며 국내 거주자인 경우 7.5%
 - 자유무역지대로 물품 반입시 부가세 면제
- 공단연락처
 - 담당자: Domaine Immobilier Oukacha
 - 주소: BP 68, Mohamedia
 - TEL : (212-37) 32.46.34 / 35.36 FAX : (212-37) 32.54.57

□ 단지명칭: 탕제자유무역지대 (Tanger Free Zone)

- 소재지: Zone Industrielle de Tanger, Tanger
- 부지면적: 110 ha
- 가격: 3.63 Euro/m²
- 공단특성: 2000년 7월 이래로 대규모 기업체들이 수출입 단지에 입주, 활동 중이며, 모로코 최 북부에 위치해 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50여개의 국내 외 기업들이 단지에 입주해 있으며, 2/3가 외국기업이고, 1/3이 모로코 국내기업 임.

17개 모로코 기업들이 총 투자액인 3억 8,500만 디람(4천만불)중 21.55%인 8,300만 디람(U860만불)을 투자함.

- 입주절차: 기업 설립 계획서의 관계 부서인 공공사업부의(Ministere des Travaux Publics) 제출 후 공단관리회사인 TFZ사(Rue Ibnou Al Mouaataz-Le Joyau 2, Belvedere Casablanca, Morocco / 팩스 212-2-242850)에 신청
- 교통 및 통신
 - 철도: 모로코 전역 95개 기차역과 연결되는 Tanger역이 단지와 연결되며 공항 으로는 Tanger Boukhalef가 있으며 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인 관계로 도로가 잘 정비 되어 있음.
 - 통신: 유선 전화는 lot당 2회선이 배당되어 있으며 핸드폰 및 Internet 이용이 가능
- 인프라 사정
 - 용수: 산업용수는 풍부한 편이며 요금은 U\$ 0.5/m³ (1\$=9.5Dh)수준
 - 전력: 시간당 전력사용요금은 고압전력(High Voltage)의 경우 U\$ 0.07Kw/h(비수기) U\$ 0.11Kw/h(성수기)이며, 저압전력(Low Voltage)의 경우 U\$ 0.08Kw/h(비수기) U\$ 0.12Kw/h(성수기)로 이원화된 요금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노동력확보가 용이하며 생산직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월 250불 수준
- 외국기업 입주현황: 2006년 기준 입주한 외국기업으로는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일본의 소니 등 다국적기업들이 다수임. 한편 입주업체는 1,160만불을 투자한 9개의 스페인 기업이 주진출국이며 6개의 미국기업이 730만불을, 4개의 영국기업이 140만 불을 투자했고 3개의 프랑스회사, 2개의 독일회사, 2개의 아랍국가회사, 지브롤터, 모나코, 벨기에, 네덜란드 회사 등이 진출해 있어 유럽국가의 관심을 증명
- 한국기업 입주현황: 없음
- 우대조치 (정부지원 및 세제혜택)
 - 회사 설립 및 자본금 증식 시 (자유무역지대 소재 시 해당)나 부지 구입시 인지대와 등록세 면제
 - 건물 및 기계, 기구 관련 15년간 면허세 면제
 - 법인세는 15년간 10%만 납부하며 소득세는 80% 공제
 - 15년간 도시세 면제
 - 법인세와 연계되는 국민연대세 면제
 - 국외 거주자의 이익 배당세는 완전 면제이며 국내 거주자인 경우 7.5%
 - 자유무역지대로 물품 반입시 부가세 면제
- 공단연락처
 - 담당사: 공공 사업부 (Ministere des Travaux Publics)
 - 주소: Avenue Mohamed V, Quartier Administratif, Rabat Chellah
 - TEL : (212-37) 76.28.11/75.44.73 FAX : (212-37) 76.66.33

6. 노무관리

가. 노무관리

모로코의 노사관련법 체제와 노동법은 프랑스의 영향으로 여타 개도국에 비해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형식으로 잘 발달되어 있으며 노동법의 기초는 근로자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계약 집행과 관련한 개별적 분쟁은 사회 재판소(Tribunaux Sociaux)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모로코에는 모로코 노동 연합(Union Marocaine du Travail/UMT)이 가장 오래 전에 설립되었으며, 또한 가장 중요한 조합이다. 모로코 노동 연맹(Union Generale des Travailleurs du Maroc/UGTM), 민주 노동 연맹(Confederation de Democratique du Travail/CDT), 모로코 노동연합(UMT)와 같은 노동 조합이 있으며, 사회적인 영향력도 상당한 편이다.

노동자는 단체 이익 보호를 위해 파업을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감독청은 협상 타결 실패를 중재에 의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동시에, 쌍방이 동의할 경우, 중재로 파업을 피하게 된다.

1) 고용

특별한 고용절차는 없으며 신문광고, 지역별로 소재하고 있는 전문 인력 양성 기관 (Centre de formation professionnel)의 추천, 의뢰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계약을 하면 된다. 보통 노동자들은 노조가입 근로자 및 비 노조 근로자로 구분되며 노조가 없는 업체의 경우 통상 사무직근로자와 일반 근로자로 구분하고 있다.

2) 인력

모로코는 총인구 2천 9백9만 명 중 인구의 70%가 30세 미만의 젊은 인구로 구성되어 있어 노동력이 풍부하다. 공식 실업률이 15%이상으로 인력 구하기가 수월한 편이다. 모로코 전역에서 비 숙련 및 중간숙련 노동력은 풍부하나 근로자의 경우 취학률이 낮아 노동력은 양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노동 생산성은 중동 특유의 기질상 경쟁력이 떨어지는 편이나 여타 아랍국에 비해서는 우수한 편이다.

3) 임금

일반적으로 모로코의 임금수준은 개도국으로서는 낮지 않은 편이다. 현재 모로코의 최저 임금(SMIG: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Garanti)은 시간당 7.98디람, 월 1,660 디람이다.

단, 농업부분은 일 41.36디람 수준이었으나 최근 시간당 최저임금이 10% 인상되었다. 모로코에는 최저 임금제(SMIG)를 제외하고는 법정 임금 관리가 없다. 임금 및 봉급은 피고용자 및 고용주간에 자유로이 논의될 수 있지만, 임금 수준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아야 한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생산성 보너스, 연공 수당, 각종 복리후생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수준은 미숙련 근로자가 7.40-7.98디람, 전문 근로자가 8.34-9.19 디람, 반숙련 근로자는 9.15-9.79 디람, 숙련 근로자는 10.56-11.70디람, 조장 13.01-14.78 디람이며, 직공장(감독)은 월 2,489-3,293디람, 기술자는 간부 월 6,588-10,980디람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고용주가 매점(canteens), 주택 보조, 식량 및 교통 수단 등의 추가 급부를 제공할 법적 요건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때때로 교통 수단 역시 제공되고 있다.

산업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는 급여에 사회보장세(Charges Sociales)가 가산되고 있으며 급여는 고용주와 고용자간의 협상 대상이지만 최저임금 (SMIG)보다 낮은 수준 일 수는 없다. 유급휴가는 월 1.5일이며 18세 미만의 노동자의 경우 월 2일을 주어야 한다.

노동법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사회 보장 기금(CNSS: Caisse Nationale de Securite Social)에 가입해야 하고 임금 지급 대상자 리스트에 등록되어야 한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 시 정규직원은 누진제에 따라 산정되는 해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근무기간에 따라 해고수당을 주어야 한다. 근무 5년까지는 연간 96시간의 급여, 6년-10년은 144시간, 11년-15년은 192시간, 15년 이상은 연간 240시간의 급여에 해당하는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4) 외국인의 고용

모로코 내에서 외국인이 유급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협약을 준수해야 하며 거주지 관할경찰서 외사계에 거주 허가 신청서(양식 경찰서 비치), 유효한 여권과 은행발행 은행 구좌개설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취업의 경우 고용 계약서, 개인사업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 취업 및 개인사업 이외의 경우는 거주허가 신청사유서 및 기타 생활능력 증빙자료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5) 현지인 사회보장

모로코 사회 보장 제도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사회 보험 공단(CNSS: Caisse Nationale de Securite Sociale)에 가입하고, 동 금고에 급여자와 견습자를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사회보장금고에 납부하는 각출금의 비율은 급여자의 월급으로 산정되는 가족수당 8.87% 전액은 고용주가 부담하며 단기수당 0.66% 중 0.44%는 고용주, 0.22%는 피고용자가 부담하고 장기수당 9.12% 중 6.08%는 고용주, 3.04%는 피고용자가 부담하는데, 단 장기수당 5,000디람을 상한으로 급여를 기준 하여 산정하고 있다. 고용축소, 경제적 이유에 의한 회사 폐쇄 등으로 인한 해고 시 정규 직원은 누진제에 따라 산정되는 해고수당이 있으며, 동 수당의 금액은 최초 고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근속년수 X 96 시간의 급여, 6~10년 차는 144 시간의 급여, 11~15년 차는 192시간의 급여, 15년 이상의 경우 최대 240 시간의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가 피 고용주의 의견에 반해 강제 해고를 시킬 경우, 해고 수당은 근무연수 X 1.5월 분의 급여를 지불하며, 이는 최대 3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이외 직업훈련 명목으로 총 급여 기준 1.6%의 각출 금액을 CNSS에 납부해야 한다.

6) 현지고용인 사회보장세 및 고용주세

현지고용인의 사회보장세 및 고용주세, 그리고 현지고용인 급여에 대한 소득세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종류	고용인부담	고용주부담	비고
사회보장수당	급여의 4.29%	급여의 8.60%	CNSS(사회보장기관) 과표한도 6.000DH
의료보험(AMO)	총급여의 2.0%	총급여의 3.0%	CNSS
가족수당	-	총급여의 6.50%	CNSS
교육훈련세	-	총급여의 1.60%	CNSS
개인소득세*	전액 고용인 부담	-	IGR(국세청)

* 개인소득세 산출방식: $\{(총급여 \times 83\%) - CNSS\} \times$ 누진세율** - 공제액

누진세율 및 공제액

연간공제총액	누진세율	공제액
0 - 24,000DH	0%	-
24,000DH - 30,000DH	15%	3,600DH
30,000DH - 45,000DH	25%	6,600DH
45,000DH - 60,000DH	35%	11,100DH
60,000DH - 120,000DH	40%	14,100DH
120,000DH이상	42%	16,500DH

** (총공제액*83%)의 공제부분 17%는 최대 2,000DH까지 인정

7. 조세제도

가. 조세 제도 개황

모로코는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지속적으로 국가 재정수입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차례 걸친 조세법 개정을 통하여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세율을 하락시키는 조세 관련 개혁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1996년에는 법인세율(IS)이 42%에서 36%로, 종합 소득세(IGR) 최고세율이 53%에서 44%로 하락하였다. 주요 세제는 주식회사와 기타 법인의 수입 및 이익과 관련된 법인세(IS), 개인과 합명회사의 소득 및 이익과 관련된 종합 소득세(IGR), 소비자 지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VAT)등이 있으며 기타 세제에는 배당소득세(TPA), 고정소득투자세(TPPRF), 등록세 등이 있다.

나. 법인세

과세대상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법인과 이익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법인이나 기타법인이 해당되고 있다. 과세기준은 기업의 본사나 주 사업장에서 거둔 총이익과 소득이며 세율은 35%이다. 법인세 감면대상으로는 영구사업장이 있고 산업기반이나 기술기반이 있는 외국기업은 12%, 영구사업장이 없으나 특허료, 대출이자, 수수료, 채권이자 등의 수입이 있는 외국기업은 10%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재화나 용역을 수출하는 기업은 최초 5년간 수출액만큼 법인세가 면제되고 5년 이후에는 50%를 감면시켜 수출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전통 공예 산업을 진흥 시키기 위해 공예기업과 모로코 북부 땅제 등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에 소재한 기업은 특별 세제 혜택으로 입주부터 5년간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은 개인과 합명회사이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이 과세 대상소득이며 종합소득 신고일은 매년 5월 1일까지이다. 면세 및 감면 혜택은 법인세와 동일하다.

종합소득세율

소득액(디람)	세율(%)	감면세액(디람)
0 - 18,000	0	0
18,001 - 24,000	13	2,304
24,001 - 36,000	21	4,260
36,001 - 60,000	35	9,300
60,001 -	44	14,700

자료원: 사회복지공단=CNSS

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은 제조업, 상업, 수공업 분야의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해외에서 수입된 재화 및 용역에 부과되고 있다. 세율은 일반세율이 20%이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고 있다. 부동산업, 은행업, 자유직, 여행업, 수송업 등에 14%가 부과되며 법률 및 의료 서비스 등의 용역, 소비재 등에는 7%가 부과되고 있다. 면세혜택 대상은 자본재, 원자재, 기계류 등은 면세되고 있다.

마.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

1) 회사 설립 시

모로코는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의 경우 차별하지 않으며 오히려 현지 투자 시 일정 기간 동안 조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등록세는 회사설립 및 증자 시 0.5%가 부과되며 인지세는 회사 설립 시 면제되고 있다. 공증세(Notarial Tax)의 경우 자본금 5,000 디람까지는 1%, 5,000-10,000 디람까지는 0.5%, 10,000 디람 이상은 0.2%를 부과하고 있다.

2) 외국기업 운영 시

현지에서 외국기업 운영 시 부과되고 있는 세금은 재산세, 지방세, 특허세 및 총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건물, 토지 및 생산시설, 장비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임대금액의 13.5%가 과세되고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 도심지역은 임대금액의 10%, 시 외곽 지역 및 지방은 임대금액의 6%가 부과되고 있다. 특허세(Patent)는 비례세로 기업의 장비 종류 및 수에 따라 다르게 과세되고 있다.

한편 총 소득세(개인 소득세: IGR)는 18,000 디람 이하는 면제되고 18,001 - 24,000 디람은 14%, 24,001 - 36,000 디람은 22%, 36,001 - 60,000 디람은 36%, 60,001 - 90,000 디람은 44%, 90,000 디람 이상은 46%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법인세(IS) 및 법인 소득세(IBP)는 36%가 부과되나 기초상품(Primary Products)은 10%, 외국 기업의 산업 시설 및 기계장비는 12%가 부과되고 있다.

국가 연대세(National Solidarity Levy: PSN)는 법인세액의 10%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TVA)의 경우 생필품 등에 7%, 부동산, 차, 커피제품 등에 14%, 기타 일반적인 경우는 20%가 부과되고 있다. 이외 주식소득세(TPA)는 15%가 원천 징수되며 고용주가 납부하는 직업 훈련세는 총 고용인 봉급액의 1.6%가 부과되고 있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 관리 제도 개황

외환 거래 자유화가 느리게 진행 중이나 수출입, 국제운송, 보험 및 재보험, 해외 기술 지원, 관광과 관련한 대금결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외환관리법에 의거, 모든 외국인은 현지 거주 여부에 따라 상이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국인 거주자가 개설할 수 있는 계좌는 자국 통화인 디람화 표시 보통계좌(Foreign accounts in convertible Dirhams)와 달러화 표시 보통계좌이며 달러 구좌에서 디람화 구좌로의 환전은 가능하나 디람화 계좌에서 달러화 구좌로의 예치, 달러화 인출은 불가능하다. 최근 들어 현금거래와 외국인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디람화가 점진적으로 태환되고 있는데, 이는 외환거래의 자유화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환율은 바스켓 제도로 유럽 주요 화폐 및 달러화 등과 연결되어 있으며, 중앙은행인 Bank Al-Maghrib에서 매일 환율을 고시하고 있다.

1) 금융 시장 개황

모로코의 금융기관은 중앙은행, 15개의 상업은행, 보험회사, 주식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59년 설립된 모로코 중앙은행인 BANK AL-MAGHRIB는 발권은행으로 외환보유고를 유지 관리하고, 시중 은행을 통제하며, 정부의 재정 정책을 자문하고 있으며 통화정책의 기초를 인플레이 억제, 모로코 디람화 가치 유지에 두고 있다. 모로코에는 15개의 금융기관이 있으나 이중 3개 대형 은행이 예금의 63%, 대출의 55%를 차지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 소득층이 양극화되어 저축률이 낮은 편이고 부유층은 아직도 부동산 투자에 매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 모로코 거주교민의 송금은 2004년도에 37억 유로에 달해 저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카사블랑카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환율은 과거에 중앙은행에서 고시되었으나 1996년 5월 은행간 외환시장이 형성된 이후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경상거래를 목적으로 한 대부분의 외환거래가 1993년부터 자유화되었으나 자본거래는 아직까지 규제되고 있다. 디람 태환 자유화는 지난 1997년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1996년 BIS비율 8%가 도입되었고, 단일 차주에 대한 대출제한 비율이 자본금의 7%에서 10%로 상향 조정되었다. 한편 모로코 통화인 디람화는 지난 몇 년간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을 받아 급격히 강화되고 있으며 현재는 US\$1= 약 8.9DH (2006년 4월 기준)로 안정화 되고 있다.

2) 은행제도

모로코는 프랑스 금융 제도를 받아들여 비교적 포괄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중앙 은행, 상업 은행 16개, 정부소유의 특수은행 5개 및 신용조합 15개와 보험 회사, 연금 기금 및 주식 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가 신용 및 자금 공급을 직접 통제하여 왔으나, 1991년 금융 자율화 조치 이후 신용공급이 자율화 되었으며, 중앙은행에서 이자율 조정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조정하고 개입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대부분 유럽계 은행들이 지분 참여를 하고 있으며, 최대의 민간은행은 ATTIJARIWAFI BANK로 2004년 BCM (Banque Commerciale du Maroc)과 WAFI BANK의 합병으로 출범했다. 지분의 29.6%를 모로코 그룹 ONA가 소유하고 있으며, Banco Central Hispano, Credito Italiano, Credit Commercial de France 등의 외국계 은행들이 지분 참여하고 있다. 중앙 은행인 Bank Al-Maghrib 은 모로코 재무부와 함께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재정 정책 수립, 지폐 발행, 정부 외환 감독 관리, 정부 재정관리, 상업 은행 및 특수 은행 감독 등 업무와 일반 상업 은행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 BMCE
- BMCI
- Banque Centrale Populaire
- Societe Generale
- Credit du Maroc
- Attijariwafi Bank
- CAM (Credit Agricole du Maroc)
- CIH (Credit Immobilier et Hotelier)
- Citibank Maghreb
- Arab Bank

3) 특수 신용 기관

중앙은행과 제휴한 국가 경제 개발 은행(BNDE), 예치 관리 금고(Caisse de Depot et de Gestion: CDG), 부동산 호텔 은행(Credit Immobilier et Hotelier: CIH), 모로코 시장 금고(Caisse Marocaine des Marches), 국가 농업 신용 금고(Credit Agricole), 국가 투자 회사(Societe Nationale d'Investissement: SNI) 6개의 특수 신용 기관이 있다.

4) 국제 금융 시장

대 모로코 투자 및 무역을 위한 현지 금융이 가능하나 이자율이 높은 편이며, 일반적으로 많은 담보나 보증을 요구한다.

5) 보험

보험시장은 2002년7월 시작된 개방화 과정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개방화는 보다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영업 이익률 축소를 가져오고 있다. 모로코 보험시장은 민간그룹과 다국적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모로코 보험시장은 아프리카에서 남아공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평가된다.

2002년도 기준으로 120디람(약12억불)매출을 기록하였다. 가장 큰 부분은 생명보험으로 최근 은행을 통한 보험판매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자동차 보험으로 전체보험 매출액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 모로코 보험시장은 국제협약에 의해 2002년도에 공식적으로 개방화 되었으나 자동차 보험은 준비기간을 주장하며 개방이 연기되었다. 보험협회 (FMSAR)는 과도기에 있는 보험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2006년도에는 보험시장이 완전 개방화 될 예정이다. 국가 사회 보험 공단인 CNSS가 있으며, 연금 보험 공단으로는 Cimr, 주요 보험 회사들로는 RMA watanya, WAFA assurance, AXA assurance maroc, SCR, RCAR, CNIA Assurance, Sanad, Es Saada Assurance, Atlanta Assurance 등이 있다.

6) 증권 시장

증권 시장은 1993년 관련법 개정과 경제 성장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했다. 카사블랑카 증권거래소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거래소 중의 하나이며, 아프리카에서 이집트 다음으로 많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수는 약 50개사이며 13개의 중개업체가 있다. 5개 대기업이 증권시장 총자산의 47%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5대 기업의 거래금액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소수 기업 집중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모로코 증권시장은 현재 55개의 회사가 상장되어 있으며, 총 120억 달러의 상장액을 보유하고 있다. 7개 은행이 총 자본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5개의 증권사가 1/5을 차지하고 있다. 모로코 증시는 아직도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카이로와 요하네스버그 증시보다도 빠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카사블랑카 증시의 10대 주식 회사

(2006. 1. 20)

상호	회사명	분야
MAROC TELECOM (Ittissalat Al-Maghreb)		통신
ONA (Omnium Nord Africain)		그룹
ATTIJARIWAFABANK (ONA)		은행
BMCE (Banque Marocaine du Commerce Exterieur)		은행
COSUMAR (ONA)		제당
CENTRALE LAITIERE(ONA)		유업
CDM (Credit du Maroc)		은행
BMCI (Banque Marocaine du Commerce Industrie)		은행
MANAGEM (ONA)		광산
CIH (Credit Immobilier et Hotelier)		은행

자료원: Bourse de Casablanca

나. 외환 관련 제약

현행 주요 외환규제는 모로코 거주자에 의한 자금 이동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 의료 또는 직업 비용을 커버하는 자금을 해외로 이전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 외환 관리 제도 하에서 경제 주체들은 수출입, 국제 운송, 보험 및 재보험, 해외 기술 지원, 관광과 관련한 청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수출업자는 15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모로코 내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정부 산하기관인 외환청(Office des Changes)에서 제반 외환을 통제하고 있으며 경상거래를 위한 외환 거래를 자유화 했으나, 내국인의 외환거래는 직접 통제하고 있으며 연간 한도액 2,000불(약 20,000디람)까지만 환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T/T 사전송금에 의한 수입 결제는 모로코 외환청(L'OFFICE DES CHANGE)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즉, 수입상품이 모로코 영내에 도착하기 전까지 T/T 사전송금은 최대 2,000불로 한정되어 있어 샘플 수입 등에만 사용될 수 있어 상품 수입 시 실효가 없으나 생산설비용 원부자재를 구입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입금액의 40%까지 T/T 사전송금이 가능하다. 수입상품 세관 통관 후 즉, 수입 상품 통관이 완료되면 T/T로 100% 송금이 가능하다.

다. 유로화

모로코는 2002년 1월을 기점으로 유로화를 공식 외환으로 등록 시켰으며 동시에 유럽 국가들의 화폐를 관리 외환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유럽과의 수출입 교류가 활발함에 따라 상품 대금 지불은 유로화로 계약, 결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과의 거래에서도 수입상에 따라 유로화 결제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시장규모

중동지역 국가들 중 석유부존자원이 없어 1인당 국민소득이 1,300불 선에 머물고 있지만 3천만의 인구를 보유한 잠재력 있는 소비 시장의 하나이다. 연간 수입 규모는 150억불을 웃돌고 있어 아프리카대륙에서 남아공, 이집트, 나이지리아에 이어 4위의 수입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나. 시장특성

모로코는 수입의 대부분을 전통적인 공급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구 식민 종주국 프랑스를 비롯해 스페인, 사우디(원유), 미국(곡물), 이태리, 독일 등 6개국으로부터 총수입의 60% 이상을 공급 받고 있다. 특히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등은 양국 정부간의 경협을 배경으로 USANCE 결제 조건 수용, 단기 인도기간, 신속한 A/S 등을 장점으로 일부 특정분야를 제외한 수입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자본재로부터 주류 및 식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상품이 수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장 개방된 시장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나 수입관세가 높아 가격경쟁력이 현저진출에 최대의 관건이다.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은 원유를 비롯하여 화학제품, 밀, 설탕, 원목, 종이류, 강관, 자동차 등이 차지하고 있는데, 밀은 미국에서 에너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저가로 경공업 제품은 중국 등 후발개도국에서, 자동차 및 자본재는 유럽과 일본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다.

주 상권은 대서양 연안을 낀 "카사블랑카-라바트(수도)-케니트라"이며, 카사블랑카 권이 약 70%, 라바트-케니트라권이 약 20%, 나머지 지역이 약 10%를 점유하고 있다. 카사블랑카 상권은 "DERB OMAR" 지역에 80%가 몰려 있으며, 대부분 수입 및 도매상이다. 현지 수입 상품의 유통 단계를 보면(수입상-도매상-소매상), (도매상-수입상-소매상)단계나 수입 딜러의 직접판매형태가 일반적이며, 주요지역마다 밀수품유통의 근거지(카사블랑카의 경우 "데르브 갈레프"/DERB GHALLEF)가 있다. 모로코 정부가 지속적으로 밀수 척결에 나서고 있으나 밀수품 유입에 의해 유통구조가 왜곡되고 있다.

상업중심지인 카사블랑카를 중심으로 유통중심지가 생겨나고 있는데 GALERIE CASA는 의류, MARJANE에는 전자 제품 등이 BENOMAR는 의류, 가구, 귀금속 등 전문유통점이 선을 보이고 있으나 매우 제한된 제품진열 형태를 띠고 있다. 유럽 및 미국계 대형 유통체인인 METRO (독일계)와 MARJANE(모로코 최대의 기업인 ONA가 운영)이 주요 도시인 카사블랑카, 라바트, 페스, 마라케시등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외에 지역주민들이 애용하는 하이퍼 마켓 및 슈퍼마켓이 산재해 있다.

- 높은 대 유럽 수입 의존도: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태리 등 유럽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는데, 유럽업체들이 지리적 이점뿐 아니라 문화적, 역사적, 언어적 이점을 갖고 있는 것이 주 원인이다. EU는 모로코와 전통적으로 경제협력관계가 돈독할 뿐 아니라 D/P, D/A거래의 일반화, 짧은 인도기간, 신속한 A/S 등의 강점을 갖고 있다.
- 정상적인 수입시장과 밀수 시장 공존: 모로코 북부 스페인령(세우타, 메릴라 등)을 통한 밀수품 유입으로 시장이 왜곡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활동 위축 및 외국투자자들의 투자기피 초래. 지하경제가 총 GDP의 50%를 차지, 정부의 밀수단속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근절에 어려움이 있으나 모-EU간 자유무역협정에 의거 2012년까지 단계적 관세인하로 밀수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 구매층의 양극화, 중산층 형성 증가세: 빈부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유층은 고급브랜드, 저소득층은 저가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중국이 저가의 경공업 제품을 석권, 한국의 경공업제품 진출입지가 크게 축소되고 있는 상태이다. 추후 소득수준이 꾸준한 상승을 이룰 경우 중산층 증가로 이어져 중-고가의 한국 가전제품 및 자동차 판매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타 - 밀수 시장: 모로코 시장 특성 중 가장 특이한 점은 매년 모로코 내로 유입되는 밀수상품이 15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정부 세수 손실이 7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밀수상품의 대량 유입은 약 40만 자리의 신규 고용 창출을 막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밀수 제품들은 전량 모로코 북부 지방의 스페인령으로 남아있는 2개 도시(세우타, 메릴리아)를 통해 유입되고 있으며, 통계에 따르면 상기 지역을 통과하는 인원이 매일 1만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로코 세관에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밀수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인구가 약 2백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근본적인 밀수 근절 대책마련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 하는 것이 현실이다.

다. 유통구조

1) 유통구조 개황

모로코 내에는 전통적인 상거래 관행상 도. 소매상간의 유통단계 구분이 모호하고 혼합되어 있는 상황이다. 모로코에 현대적인 시설과 규모를 갖춘 대형 유통 매장이 진출한 것은 10년이 채 안 된다. 2005년 기준 카사블랑카, 라바트, 마라케시, 페스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형유통체인인 마르잔(MARJANE)과 메트로(METRO)가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2년 전부터 프랑스 유통업체인 AUCHAN이 투자한 ACIMA가 서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상권을 확대하고 있다.

모로코의 유통 산업 현황은 1990년 중반 이후 문을 열기 시작한 대형 할인 유통 매장과 소규모 다단계의 중간상인과 우리의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 같이 “수크”(SOUK)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재래시장으로 대별되고 있다. 카사블랑카의 경우 섬유, 기성복, 주방기기, 조명 기기 등의 가정용품을 주로 취급하는 데르브오마르(DERB OMAR)지역 일대, 모로코 북부 지역인 스페인령 세우타 등에서 밀수입된 가전에서 식품류까지 다양한 제품의 집산지인 일명 버룩시장인 데르브 갈레프(DERB GHALLEF), 두바이를 통해 중개 무역되는 수입품을 주로 판매하는 키사리아 하파리(KISSARIAT HAFARI), 벤 즈디아(BEN JDIA), 고급 기성복, 보석, 이미테이션 제품을 취급하는 갈리리 벤 오마르(GALERIE BEN OMAR) 등의 대형 재래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취약한 금융산업 때문에 신용거래가 일반화되지 않아 현금거래가 선호되었다. 최근 들어 카사블랑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신용카드(Credit Card)와 개인 수표(Personal Check) 사용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수표 부도율이 높아 대금 결제는 현금이 선호되고 있다.

2) 도매유통

도매유통은 전문지역에 소재한 재래시장과 창고식 도매점인 독일 메트로(METRO)를 들 수 있다. 모로코에서 지명도가 높은 데르브 오마르(DERB OMAR), 데르브 갈레프(DERB GHALLEF) 등과 “수크”등 재래시장에서는 가전, 섬유, 가구 등 일부 특정품을 도소매로 취급하고 있다. 특히, 메트로에서 판매하는 가전제품과 가구들은 현지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회원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도매단위로 판매하는 형식을 택하고 있다.

- METRO
 - 80년대 후반에 모로코에 설립되어 회원제로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영업 중이며, 2006년 기준 모로코 전국에 6개 매장이 운영 중이 있다.
- MARJANE
 - 그룹 ONA와 프랑스 유통 그룹 AUCHAN가 공동 출자하여 91년에 설립 되었다. 2006년 기준 모로코 전역에 12개 매장이 운영 중이다.
- ASWAK SALAM
 - 모로코 그룹 YNNA의 단독 출자로 99년도 설립되어 3개 매장이 운영 중에 있다. 2006년도에 4개 매장이 추가로 오픈될 예정이다.
- La bell vie
 - 스페인 업체가 투자한 할인점으로, supersol이 인수하였으며 모로코 전역에 9개 매장이 있다.
- ACIMA
 - 그룹 ONA와 AUCHAN의 공동 출자 슈퍼 마켓 체인점으로, 모로코 전역에 20개의 매장이 있다. 2006년도 6개 매장이 추가로 오픈될 예정이다.

3) 소매 유통

소매 유통은 모로코 최대의 그룹인 ONA가 운영하는 대형슈퍼체인인 MARJANE이 카사블랑카, 라바트, 페스, 마라케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영업점을 설립, 운영 중에 있다. 마르잔은 선진국의 경영 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CONTINENT, CHAMPION 등 유럽 유수의 하이퍼마켓을 소유한 PROMODES사와 협력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또한 프랑스 유통체인인 Auchan에서 지분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전통적인 소매점 위주의 유통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모로코 내에서 백화점으로 불릴 만한 대형 상점은 모로코 최대 상업도시인 카사블랑카에 1 개가 있으나, 규모나 상품 내용은 극히 소규모 형태의 백화점 수준으로 발달은 거의 미약하다.

4) 수입품 유통구조

모로코에는 수입 제품에 따라 전문화된 대형 유통업자들이 있다. 예를 들면 기계, 전기 제품을 취급하는 STOCKVISS사, 건축 토목 자재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돌보-롱고메탈(DOLBEAU-LONGOMETAL), 공꾸와 메탈퀴르지끄(COMPTOIR METALLURGIQUE)등이 있다.

이들 대형 수입유통업체들은 외국산 수입품을 대량으로 들여와 모로코 내 주요 지역에 산재한 판매망(대리점)을 통해 도소매로 유통시키는 경로를 갖고 있다. 자동차, 가전 등 내구재는 직판되거나 해외 유명메이커의 독점 공급 에이전트 계약 체결로 모로코 내 유통을 독점 취급하고 있기도 하다. 모로코의 현대 자동차 현지 에이전트는 Global engines이며, 기아 자동차는 SUP AUTO에서 수입판매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가전 전문 유통업체인 FALCON에서 독점 판매하는 형식이다. 수입업자 ⇒ 도매상 ⇒ 소매상으로 이어지는 유통의 경우 품목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각 단계별로 약 20~30%의 유통마진을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물가정보

□ 도시: 카사블랑카(모로코)			- 환율: US\$1 = MAD9.1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494.5	7.1	구두(1켤레, 소가죽)	90
1.2	넥타이(1개, 실크100%)	43.4	7.2	치약(150g, 1개)	3
1.3	와이셔츠(1벌, 면100%, 긴팔, 흰색, 현지브랜드)	52.7	7.3	칫솔(1개)	4
1.4	양말(1켤레, 면100%, 현지산)	8.7	7.4	면도기(1세트)	2.5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246.15	7.5	건전지(1세트, 1.5V AA)	1
1.6	스타킹(1켤레, 밴드타입, 현지브랜드)	10.87	7.6	화장지(1통, 300매)	1.5
1.7	청바지(Levi's)	88	7.7	비누(1개)	0.8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9.8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2.5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없음	8.2	볼펜(12개)	2
2.3	닭고기(1KG, 생닭)	3.2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1
2.4	쌀(1KG, Short Grain)	1.5	8.4	공CD(1통, 12개입, 700MB)	3.2
2.5	밀가루(1KG)	0.87	8.5	휴대폰(범용형)	64.8
2.6	설탕(1KG, 백설탕)	0.5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
2.7	계란(10개)	1.1	8.7	인터넷가입비(1회최초, 1회설치)	35.2
2.8	감자(1KG, 현지산)	0.5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45
2.9	미네랄워터(1.5ℓ, Evian 1Pet)	1.5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31,670
3.1	고추장(1Kg)	없음	9.2	엔진오일(1L)	2.1
3.2	된장(1Kg)	없음	9.3	휘발유(1L)	1.15
3.3	라면(1개)	없음	9.4	자동차등록비(2,000cc)	439.5
3.4	설령탕류(1인분, 설령탕, 곰탕등)	없음	9.5	자동차보험료 (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1,428
3.5	불고기(1인분, 200g)	없음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없음	10.1	지하철(1구간)	없음
3.7	김치찌개(1인분)	없음	10.2	시내버스(1구간)	0.4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0.56
4.1	햄버거(1개)	2.5	10.4	택시(추가요금/Km)	0.2
4.2	피자(1판)	9.7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0.54	11.1	전화개통비 (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90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2.08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9
4.5	담배(수입산, 1갑)	4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정상)	0.18
4.6	위스키(1병, 750ml)	41.2	11.4	공중전화(3분, 시내 정상)	0.15
4.7	커피(1병, 175g)	4	11.5	국제전화(현지-서울, 3분, 정상)	5.3
5. 주택(150㎡)			11.6	국내우편 (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9
5.1	[임차] 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inished)	670	11.7	국제우편 (일반편지, 1통, 10g 이하, 현지-서울)	35
5.2	[임차] 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2,000	11.8	특급우편 (DHL, 1개, 1Kg 이하, 현지-서울)	107.69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100%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1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100%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0.5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0.2

6.1	TV(29인치, 칼라, 범용)	524.1			
6.2	VTR(6헤드, 범용)	219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크롬)	138.86			
6.4	전자레인지	406.48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895.6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989			

□ 도시: 카사블랑카(모로코)			- 환율: US\$1 = MAD9.1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2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급여)	200
12.2	외국인학교(등록금, American School)	640	18.2	상여금(월급여대비%, 연간)	-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1,100	18.3	사회보장부담금(월급여대비%, 연간)	4%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11,200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18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11,200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84일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11,200	18.6	연간국경일	15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일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비회원, 18홀, 1라운드)	50	18.8	노동쟁의시 냉각기간일수	2주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능)	700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4시간
13.3	골프공(1타)	40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549.5	19.1	법정최저자금	1,100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30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400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3.9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5년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개인소득세)	-
14.1	의료보험료 (4인가족, FullCover, 치과제외)	1,224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5.5~6%
14.2	병원진료비(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22			
14.3	병원진료비(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8.7			
14.4	치과(스켈링, 1회)	100		※ 18.5 유급휴가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2			
	15. 신문·방송·잡지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유력지)	9.2			
15.2	한국신문(1개월)	없음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없음			
15.4	잡지(1부, Time 혹은 Newsweek)	3.2			
	16. 호텔				
16.1	특급호텔(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318.68			
16.2	특급호텔(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53.84			
16.3	중급호텔(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52.6			
16.4	중급호텔(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			
16.5	조식(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27.4			
16.6	조식(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8.7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급여, 대졸초임)	450			
17.2	사무실비서(월급여, 학력불문)	300			

3. 바이어 발굴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1) 협회 또는 기관 이용

수출 관련 국가 기관이나 협회에 의뢰, 바이어를 찾는 방법이 있으나 웹 사이트나 의사소통의 대부분이 불어로 이루어짐을 유념해야 한다.

모로코 수출 진흥 공사 (CMPE : Moroccan Centre for Export Promotion)

- 23, Rue Bnou Mjed El Bahar 200000, Casablanca
- Tel: 022 30 22 10 / 022 30 75 43 / 022 30 75 88
- Fax: 022 30 17 93 / 022 45 05 57
- Web Site: www.cmpe.org.ma

무역협회 (Foreign Trade National Council)

- 63, Bd Moulay Youssef B.P. 1478, Rabat
- Tel: 037 26 28 10 / 037 26 28 11
- Fax: 037 26 28 09 / 037 70 71 69
- Web Site: www.cnce.org.ma

모로코 상공회의소 (Federation of Moroccan Chambers of Commerce, Industry and Services)

- 6, Rue Erfoud Hassan, Rabat
- Tel: 037 76 70 51 / 037 76 70 78 / 037 76 70 81
- Fax: 037 76 70 76
- Web Site: www.fccism.cci.ma

모로코 경제인 연합회 (General Confederation of the Enterprises of Morocco)

- Angle Av. Des FAR, Rue Mohamed Arrachid, Casablanca
- Tel: 022 25 26 96~99
- Fax: 022 25 38 39
- Web Site: www.cgem.ma

카사블랑카 투자지원센터 (Centre Regional d'Investissement Grand Casablanca)

- 60, avenue Hassan II CASABLANCA, 20000
- Tel: +212-22) 48 18 88
- Fax: +212-22) 48 21 15
- Web site: www.casainvest.ma
- 이메일: info@casainvest.ma

□ **망제 투자지원센터 (Centre Regional d'Investissement de Tanger-Tétouan)**

- bd. Omar Ibn Khattab TANGER, 90000
- Tel: +212-39) 34 23 03
- Fax: +212-39) 94 33 14
- Web site: www.tanger-tetouaninvest.ma
- 이메일: salmi.hassan@tanger-tetouaninvest.ma

2) 전시회 정보

모로코의 주요 산업인 농수산업 전시회가 가장 큰 규모로 열리고 있으나, 아직까지 모로코 전시 산업이 성장 단계에 있는 관계로 정확한 스케줄이나 전시 기획 정보를 일괄적으로 한 곳에서 얻는 것은 어렵다. 각 전시회별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프랑스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비교적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www.missioneco.org)

□ **카사블랑카 전시 센터 OFEC (Office des Foires et Expositions de Casablanca)**

- 11, rue Boukraa, Casablanca, Morocco
- Tel: 022 27 16 64
- Fax: 022 22 58 23
- Web Site: www.ofec.co.ma

□ **외환청 전시 센터 (Exchange Office Exhibition Center)**

- Route El Jadida, Casablanca, Morocco
- Tel: 037 72 41 28
- Fax: 037 72 12 85
- Web Site: www.oc.gov.ma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온라인으로 바이어를 찾거나 할 때는 텔레콩택트, 콤파스 등의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수출 진흥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www.telecontact.ma : 모로코 전화번호부인 텔레콩택트의 홈페이지. 대부분의 회사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며 배너 광고도 가능하다.
- www.menara.ma : Maroc Telecom이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로 모로코 가입자수가 가장 많으며 메일 계정, 검색 엔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www.fccism.cci.ma : 모로코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 www.cgem.ma : 모로코 전경련 홈페이지
- www.cmpe.org.ma : 모로코 수출 진흥 공사 홈페이지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비즈니스 에티켓

비즈니스 상담 시 문화 상대주의적인 입장에서 모로코의 문화, 풍속, 관습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자세에서 대화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로코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특히 모로코 역사 속의 세계적 인물, 예컨대 대 여행가로서 이태리의 마르코 폴로, 중국의 정화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이븐 바투타(IBN BATTUTA, 1304-1368)를 화제로 삼아 자긍심을 높여 주는 것도 필요하다.

식사 중이라면 동서양의 음식이나 모로코인이 즐겨 먹는 양고기와 꾸스꾸스(COUSCOUS)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비쓰밀라(신의 이름으로)'를 중얼거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슬람에서 금하는 음식물인 돼지고기 등을 식사 화제로 삼지 않는다.

극히 한정된 아랍어라도 몇 마디 외에 대화 중에 양념처럼 넣으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수 있다. 예컨대 쌀라물알리꿈 (안녕하십니까), 함두릴라(모든 것이 신의 뜻대로 잘 되고 있다), 슈크란(감사합니다) 등이다.

친한 사이인 경우 남녀구별 없이 양 볼을 번갈아 가며 살짝 비비고, 다소 생소한 지면인 경우에는 악수를 나누거나 말을 하면서 오른 손이나 왼 손을 가슴에 가볍게 얹음으로써 상대에 대한 경의를 표시한다. 사람이 여럿일 경우 보통 오른쪽에 위치한 이부터 차례로 악수한다. 또한 모로코인들은 서로 안부 및 가족 안부 등도 잊지 않고 묻는다. 다소 길어도 인내한다. 한편 모로코 전통옷을 입은 여성과는 악수 및 볼에 절대 키스하지 않는다.

아랍어의 '쌀라무 알라이쿰' (안녕하세요)이 이곳의 전통 인사말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알라이쿰 왓쌀람' (당신께서도 안녕하십니까?). 상담 시 무난한 한국산 선물로는 소형 전자제품, 인삼차, 부채, 한국인 탈, 넥타이, 스카프, 달력, 악세사리, 장식품, 비단 등이 무난하다.

1) 문화적 금기사항

이슬람국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정통 이슬람권과는 달리 상당히 개방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이슬람권이 금요일이 공휴일인 반면 유럽의 영향으로 일요일이 공휴일이며, 라마단 등 종교 축제 기간을 제외하고는 음주가 가능하고, 여성의 경우 차도르를 착용하는 모습을 좀처럼 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단, 이슬람력에 따른 종교행사인 금요일 오후 예배, 라마단(금식기간)등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

라마단 기간은 이슬람 최대 종교행사의 하나로 이슬람력에 따라 매년 10일 정도 앞당겨지며, 약 1개월 동안 계속되는 라마단 금식 기간 중에는 비즈니스 활동이 거의 중단 상태이기 때문에 동 기간 중에는 가능한 한 이슬람권 비즈니스 출장을 삼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마단 기간 중 해가 떠있는 동안은 음식물 및 담배도 일체 금한다. 해가 지고 나서야 예배를 보고 음식을 섭취한다. 이기간 중 근무시간은 대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 없이 연속근무를 한다.

음식점은 모두 문을 닫아 점심식사를 하기가 곤란하나, 외국인을 위해 일부 호텔 레스토랑은 영업한다. 라마단 기간 동안 외국인이 지켜야 할 사항으로는 대중 앞에서 음식물과 흡연도 삼가는 것이 좋으며 여자일 경우 화장을 자제해야 한다. 여성과 신체 접촉(볼에 키스 등)을 피한다. 흔히 3금이라고 말하는 국왕, 체제 및 종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나. 거래 시 유의사항

1) 즉각적인 회신 기대는 무리

모로코 시장은 대다수의 품목에 있어 전적으로 가격에 의해 구매가 좌우되는 철저한 가격 시장으로 국내 업체의 오피 가격에 네고의 여지가 없다고 바이어가 판단하면 설사 한국산 수입에 관심이 많더라도 회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우리 업체의 대다수가 영어 하나로 지구촌을 누비듯이, 현지 중소 바이어들은 영어에 약하거나 아예 불어밖에 몰라 불어로 의사를 전달하고자 한다. 게다가 결정권한이 사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장이 부재 동이면 "예스"나 "노"라는 확답을 얻지 못한다. 인과이어리에 대한 회신을 및 신속성과 관련하여 모로코 바이어들은 한국 업체와 대만 업체를 자주 비교한다. 불어나 빈약한 영어로, 그것도 구체성이 결여된 내용으로 양측에 동시에 팩스를 보냈을 때 한국업체가 무성의하다는 것이다.

2) 상담 시 유의사항

이슬람국가에 공통된 사항이지만 모로코 비즈니스맨들도 "인살라"(신이 원한다면)라는 후렴을 자주 붙인다. 본래는 전지전능하신 신 앞에서의 겸허함에서 연유된 것인데, 종종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상담 시에 잘 새겨들어야 한다.

모로코인들은 스트레스 받기를 싫어한다. 예스나 노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리지 않는다고 다그쳐 봐야 일만 그르친다. 우리가 "빨리 빨리"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듯이 모로코인들은 "슈이아 슈이아" (천천히 천천히)라는 말을 즐겨 쓴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우리의 주요수출품목인 섬유직물, 전자전기 및 자동차부품 등 중소기업형 제품의 경우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5만불 미만의 소량수입이 보통이다. 이는 제품을 현지시장에 테스트해 검증을 받아야 하는 특성과 자금 회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지 바이어들은 한국산 품질을 인정하고 있지만 오피 가격이 유럽의 주요 공급국인 프랑스, 독일, 이태리산에 비해 평균 15%~ 20% 낮아야 수입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진입에 장애를 경험 하고 있다. 현지 바이어들이 가격을 중시하는 이유는 소비재의 경우 소비자들의 소득 분포가 양극화되어 있어, 저가품만을 찾는 소득층의 구매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기계류와 같은 생산재의 경우 특히 A/S나 부품 및 부속품 조달상의 핸디캡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 현지세관당국이 소비재에 부과하는 수입관세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평균 수입관세 35%에, 20%내외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모로코에서 한국상품의 이미지가 양호 한 편이나 중소기업제품의 경우 중국제의 저가격에 밀려 어려움이 있다

현재 대체로 수입 유통되는 품목들인 저가소비재류는 중국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고가품 일 경우 유럽, 일본 등의 제품 선호도가 높으나 가전제품, 핸드폰, 위성수신기, 직물 등은 한국 제품의 인지도가 높다. 국내 제조 시설이 있는 회사일 경우 모로코 현지 판매시스템을 갖출 경우 시장점유율에서 유리할 수 있다.

국토 면적과 인구에 비해 구매력 부족으로 인한 내수시장이 제한되어 있어 시장성 있는 품목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그 원인은 구매력 있는 중산층이 옅고 산업 설비재와 고급 소비재는 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유명브랜드가 수입되어 경쟁이 치열하며 일반 공산품은 아직도 밀수가 보편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 및 섬유 등 일부 품목은 모로코 북부 스페인령 세우타(Ceuta)나 메릴라(Melilla)를 통해 밀수입되고 있어 이들 품목과의 경쟁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입규모는 소액, 소량이 일반적이며 밀수품과의 경쟁으로 인해 가격인하 요구가 심한 편이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의약 분야의 다국적기업 진출, 모로코 관련산업발전에 기여

모로코 의약품 업계의 발전에는 다국적기업의 인력양성, 노하우 축적, 신규투자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며 이는 상기 분야 22개 업체 중 65-70%를 차지하는 다국적 기업의 공헌에 힘 입은 바 크다. 이는 당연한 현상으로 다국적기업들은 국제적으로 간부들을 교육하는 플랜을 실행 시키며 자회사의 인력을 교육시켜왔다.

다국적 기업들은 모로코에 기술이전을 통해 연구개발 분야를 발전 시켰으며 이는 외국 기업들이 연구개발 분야에 매출액 대비 15%를 투자하며 한가지 의약품의 개발에서 상업화까지 약 US\$ 4-5억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모로코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이전은 관련 연구소에 지속적인 투자를 요구하며 5년간 상기 분야 투자가 US\$ 1.2억에 달하고 있다.

모로코는 선진 의약업체의 기술이전에 힘입어 아프리카대륙에서는 남아공에 이어 제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의약품 품질이 유럽기준으로 생산되어 일부는 수출도 가능 하게 되었다. 수출잠재력은 총 생산량의 10%인 US\$ 2천8백만-3천5백만 달러로 추산 되고 있다.

모로코 자체생산 의약품들은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등 유럽과 알제리, 아이보리 코스트, 리비아 등 아프리카권 및 사우디, 이라크 등 중동시장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특히 중동-아프리카 비중이 80%로 가장 높다. 일부 모로코 의약품 업계는 얼마 전 인수 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우는 구조조정을 끝냈으나 잔존 소형 업체들이 흡수되거나 거세 되는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향후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다른 문제점으로는 기존 라이선스를 통해 생산을 하던 다국적 기업들의 정책이 변경될 경우 모로코 현지 업계 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모로코-미국간의 FTA체결로 그 동안 국내 제조되는 의약품에 대해 수입금지가 되어왔으나 미국 의약품의 모로코 진출이 예상되면서 국내 의약품 업계는 경쟁력 확보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나. FAGOR MOROCCO, 신규 가전생산 라인 증설

모로코 진출 5년째인 동 사는 가전제품 11개 생산라인에서 200개 모델들을 생산하며 170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 동 사는 매출액의 3%를 사원 재교육에 투자한 결과 자체 고용인력으로 제품 생산 조립 노하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06년 4월 기준 본사 파견 기술인력은 6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동 사는 스페인 공장에서 ISO 9001,9002를 획득하는 등 품질기술인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곧 모로코 공장에도 시행 예정 이다. 신규 생산라인은 주로 가스레인지와 세탁기로 공세적인 마케팅을 위해 광고비로 US\$ 4백만을 책정해 놓고 있다. FAGOR사의 모기업은 스페인 소재 MONDRAGON CORPORATION COOPE RATIVA(MCC)사로 연간 매출 US\$ 64억에 US\$17.6억을 해외로 수출하는 거대 기업이다.

동 사는 100여 개의 계열기업에 47,0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며 생산, 재정, 배급 분야로 구분된다. FAGOR사는 모로코에 투자가 용이했다며 해외 투자 시 애로사항들은 어느 나라에 투자하건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사항이라며 모로코는 특히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번 조사에서 밝히고 있다. 동 사의 현안으로는 대 아프리카 수출 목적으로 생산되는 제품들의 생산원가가 모로코 공장보다 스페인 공장이 훨씬 저렴 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집 구하기

1) 주거 형태

모로코의 주거 형태는 빌라가 주류인 단독 주택과 아파트로 구분되고 있다. 카사블랑카의 비즈니스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라바트에 거주하는 각국 공관원 등 대다수의 외국인들은 단독빌라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 임차 시 가구는 포함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가구뿐 아니라 전등까지 준비해서 입주해야 한다. 간혹 Furnished 아파트가 있으나 시설에 비하여 고가이며, 장기체류자가 수개월 동안 호텔에 투숙하는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형 호텔로 볼 수 있다.

외국인들이 주로 임차하는 빌라형 단독주택의 경우, 통상 규모가 대지 150-500평, 건평 80-150평 정도로 대체적으로 큰 편이며 2층 구조가 주류를 이룬다. 월 임차료는 지역 및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월 2000-3000불 정도이다. 현지 치안사정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단독 주택에 대한 좀도둑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므로 필히 경비견 사육 및 경비원(월 급여 약 200불)을 고용해야 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정원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정원사가 필요하다.

아파트는 지역에 따라 다르나 시내지역에 있는 주상 복합 아파트 또는 거주형 아파트, 시내 주거 전용 지역 또는 시외 아파트 단지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외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 규모는 통상 40평(침실 2, 응접실, 식당, 부엌, 욕실 1)에서 60평(침실 4, 응접실 2, 식당, 부엌, 욕실 2)형이 보통이다. 임차료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통상 월 300~500불(가구 없음) 800~2000불(가구 일체) 정도이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자체 경비원이 있어 치안은 큰 부담이 없다.

2) 임차관행

정부 공인 표준 계약서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다. 표준 계약서 내용 외에 양자 합의에 의하여 추가할 경우 동 내용을 필히 확인한 다음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부동산 등 소개소에 의뢰해 주택계약을 하는 경우 입주자가 1개월 분 임차료에 해당하는 중개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주택 1개월 임차료를 임차 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예탁하고, 임차계약 종료 후에 임차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이 관례이나 임대인이 임차 계약 종료 후 각종 이유를 핑계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미루는 사례가 있으므로 임차계약 종료 시 최종 월분 임차료를 임차 보증금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다. 주택임차는 일정기간(2-3년)을 정해 놓고 매월 또는 매 분기 초 임차료를 내는 월세형식이 보통이며, 주택 임대차법은 한번 입주하면 소유주가 법원의 판결 없이 강제 퇴거가 어렵도록 임차인을 최대한 보호하는 경향이 있어 현지 자국민에게 주택을 임대한 후 임대료를 받지 못하면서 법으로 호소하지도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외국인에게 주택 임대하기를 선호해 주택 임차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3) 행정 절차

주택 임차 계약을 하면 각 지역마다 산재한 코뮌(Commune)에 가서 법적 효력을 위한 공증(Legalisation)을 필한 후 임차주와 입주자가 1부씩 보관하며 동 서류가 전화신청 등에 필수 서류로 첨부된다.

나. 운전면허 취득

우리나라와 모로코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약이 맺어져, 한국 면허증 소지자는 주 모로코 대사관의 공증을 얻어 모로코 운전 면허증과 교환 발급 받을 수 있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가된 자동차 운전학교(Auto ecole)에 등록하여 이론(교통법규)과 운전 실기(주행연습)를 수강 해야 한다. 교습비는 월 1,500 디람에서 2,000 디람이 소요된다. 운전 면허 시험 신청 서류는 소정 신청서와 거주증 또는 신분증(시험 시행기관 소재지 거주 주민이어야 함), 사진 3매, 출생 증명서와 지정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건강증명서가 필요하다. 운전 면허 시험은 구두 시험(교통법규) 및 실기 시험으로 나누어 시행되며 구두시험은 불어로 실시하며, 필요 시 통역을 대동할 수 있다. 구두시험을 합격한 후, 시내 주행 시험을 치른다. 구두시험 및 주행 시험 종료 즉시 시험결과를 알 수 있으며, 합격 시 시험일 일주일 후 유효기간 1 개월의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준다. 임시 운전 면허증을 받은 후 혈액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유효기간 1 년의 정식 운전 면허를 발급해 준다. 운전 면허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 2주일 내에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 최초 면허 발급 일로부터 1 년간 무사고 일 경우 면허증 상에 유효기간 무기한(Permanent)의 Stamp를 날인해 준다.

다. 구좌개설

외환구좌는 여권으로 간편히 구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현지 디람화 인출만이 가능하며 디람화 입금은 외환법 상 불가능하다. (외환 입금, 인출은 가능) 현지 구좌는 6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는 외국들로 개설할 수 있다. 구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현지 디람화만 거래가 가능한 보통 구좌(Compte ordinaire)를 개설하는 방법과 외화 및 현지 디람화를 동시에 거래할 수 있는 외화 환전 구좌(Compte convertible en dirhams)를 개설할 수 있다. 구비 서류로는 보통 구좌 개설 시 최소한 3,000 디람의 현지화를 예치해야 하며 체류증(Carte de sejour) 및 여권사본이 필요하다.

라. 전화신청

전화신청을 하려면 최소한 현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체류증(Carte de sejour)사본 및 거주 증명서(주택임차 계약서사본)와 전신 전화국(Itissalat Al Maghrib) 소정 신청양식 과 신청금이 필요하다. 최근 전화 신청 후 가설 기간이 모로코 전화국(Maroc Telecom)의 민영화 추진 등 서비스 개선으로 최소 1주일- 2주 정도로 과거에 비해 대폭 단축되었다. 단기 체류자일 경우 간단히 휴대폰 선불 카드를 구입 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마. 비품 구입

모로코는 일부 제품을 제외한 공산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므로 높은 관세로 가격이 매우 비싼 편으로 이삿짐에 휴대하는 것이 좋다.

1) 전기 및 전자 제품

현지 TV 및 Video 방식은 SECAM-PAL 방식이며 대부분 가정에 위성안테나를 설치 CNN, 영국, 불란서, 스페인 등 외국위성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므로 TV, Video는 Multi System 구입이 필요하다. 현지 전기규격은 220 V, 50 Hz로 한국에서 구입한 전자제품의 경우 TV, Video는 Multi System이 아니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반면 컴퓨터, 오디오 제품 등은 사용 가능하다. 기타 전기 다리미, 선풍기, 전열기, 전기 밥솥, 에어컨, 냉장고, 전자 모기향, 전기장판 등도 사용이 가능하다. 모로코는 겨울에 실내온도가 낮으므로 전기장판 (220V용)을 가져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2) 가구, 비품 및 장식품

현지 주택은 대개 Unfurnished로 가구 비품 등은 현지에서 구입이 가능하나 품질에 비해 고가인 편이다. 소파 등 가죽제품의 경우 적당한 제품도 구입 가능하나 품질이 수입품에 비해 떨어진다. 대부분의 주택(단독주택 또는 아파트)은 국내주택보다 규모가 대체로 큰 편 (약 50-80평)이며, Unfurnished이므로 국내에서 사용하던 한국가구, 그림, 기타 장식품 등 모두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자동차

유럽 등 타 국가에 비하여 차량 가격이 고가인 편으로 국내 시판 자동차 가격이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한국에서 차량을 이삿짐으로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고 차량 구입은 자동차 대리점이나 신문 등에 게재되는 광고를 통해 개인으로부터 구입이 가능하나 가격이 고가로 신차 구입이 경제적이다.

4) 기타 필요 물품

북부 아프리카에 속해 있으나 4계절이 구분되며, 겨울철(11-3월)은 난방이 필수적이거나, 난방시설이 잘 구비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기장판, 난로 등이 필요하며 서울에서 사용하던 것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침구(약간 두터운 것, 오리털 이불 등)가 필요하다. 특히 실내외 및 주야간 온도 차가 심하여 여름철에도 이불(한국의 초봄, 늦가을 이불)이 필요하다.

바. 종교 활동

한인교회로는 라바트에 목사 1명(허영희 목사, 감리교회)이 현지 프랑스 기독교 회를 이용해 예배를 보고 있고 카사블랑카에는 순복음 교회(황옥희 목사)가 활동하고 있다. 교민 다수 거주지인 남부 아가딜에 한인교회(신국렬 목사)가 있으며 현지 교민 및 취업 선원을 위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천주교인들은 라바트 시내 현지 카톨릭 성당에 나가고 있으며 불교인을 위한 사찰이나 모임은 없다.

아. 자녀 교육여건

1) 아메리칸 스쿨

현지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대다수는 비즈니스 중심지인 카사블랑카와 왕궁과 각국 대사관이 위치한 수도 라바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을 자녀 교육기관은 아메리칸 스쿨이 대표적으로 라바트에는 Rabat American School(RAS), 카사블랑카에는 Casablanca American School(CAS)이 유치원, 초, 중, 고등 교육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입학 절차는 매년 3월과 9월에 시작되는 신학기 전에 등록 책임자와 사전 면담약속을 한 후 부모가 학생과 함께 직접 학교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데 간혹 취학 학년이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학교에서 간단한 시험(Replacement Test)를 치른 후 학년과 반을 선정해 준다. 필요 서류로는 영문으로 작성, 확인한 재학 증명서, 성적증명서, 예방접종 기록 카드 등 건강 기록, 여권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학비는 학년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매년 납부하는 입학/전형료 (Application / Examination fee) 90불, 등록비(Registration fee) 90불, Building fee 600불, 연간 수업료(Tuition) 10,000-12,000불, 사친회비(PTA) 25불 등으로 연간 기준 학비는 10,000불 수준이다. 이외에 최초 입학 시 1회 납부하는 Admission fee(1회) 1,000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취학 자녀의 등·하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School Bus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나 고가이며 그나마 카사블랑카 아메리칸 스쿨은 통학버스가 운행이 안되어 학부모가 직접 등·하교를 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다. 취학자녀가 모로코 최 부유층으로 보통 수대의 차량을 보유해 개인 차량으로 등·하교를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라바트의 RAS는 학칙 및 규율이 엄하고 교육방향이 보수적으로 교내 워크맨 사용금지, 학생 및 전교 직원 금연이며 위반 시 정학이나 퇴학을 시키며 교육수준도 여타국가의 American School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카사블랑카의 CAS는 RAS의 자매(Association) 학교이나 전교생의 절반이상이 모로코 부유층 자제들로 학비가 라바트의 RAS보다 비싼 편이다. 이외에 카사블랑카에는 Washington American School과 최근 개교한 아메리칸 스쿨이 있으며 학비는 CAS보다 저렴하나 학생수가 적다.

모로코의 양대 아메리칸 스쿨인 카사블랑카(www.cas.ac.ma)와 라바트 (www.ras.edu.ac.ma) 아메리칸 스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통해 접할 수 있다.

2) 바이링구얼 스쿨

프랑스계의 Lycee Descartes 등 다수가 있으며 초, 중, 고교 과정을 가르치고 있고 스페인 계 학교도 있다. 불어 교육이 필요한 경우 불란서계 학교 중 선호도가 높은 Lycee Descartes 또는 다수의 불란서계 학교에 등록이 가능하다.

3) 대학교

모로코 대학의 학제는 아랍어 및 불어교육 4년, 학비는 무료이다. 대학 교육 중 상당수의 학과가 불어로 강의하며 대부분의 교재도 불어로 되어 있다. 입학 요건은 모로코 정부 초청이나 입학을 인정한 경우 입학할 수 있으며 입학 구비 서류로는 주한 모로코 대사관 추천이나 주 모로코 한국대사관 추천서를 제출하고, 대학 당국에 입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주요 대학으로는 라바트에 소재한 Mohamed V University, 카사블랑카에 소재한 Hassan II University, 페스에 있는 Sidi Mohamed Ben Abdellah University가 명문이며 이외 95년 사우디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설립된 미국식 교육을 하는 Ifrane(라바트에서 100km)에 설치된 Al Akhawayne University가 있다. 입학요건은 여타 미국대학과 동일 하며, 학비는 년 약 5,000불 정도이며 학부, 대학원 및 박사과정이 모두 개설되어 있다. 99년 3차례 모로코를 방문한 미국의 힐러리 여사가 300백만 불의 기부금을 지원하는 등 미국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4) 한글학교

수도 Rabat 및 교민 다수 거주지인 Agadir에서는 주말(토요일)에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Rabat 한글 학교(교장: 박재용)는 현재 교사 5명에 학생수 20명의 규모이며 국어와 국사를 주로 가르치고 있다. Agadir 한글학교(교장: 홍성중)는 교사 3명에 학생수 15명(초등 1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 현지 생활여건

1) 생필품조달

식품류, 주방용품 등 일반가정용 생필품은 모로코 내 전국적인 체인망을 가진 대형 슈퍼마켓인 마르잔(Marjane)과 창고식 할인 도매점인 메트로(Metro)등에서 상시 구입할 수가 있다. 우리 나라의 일반 대형슈퍼마켓과 비슷하며, 수입공산품의 경우 가격이 다소 고가지만, 전기 밥통, 전기 장판 등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구입에 어려움이 없다. 모로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류를 포함한 일부 생필품은 모로코 국내에서 생산하나 대부분의 공산품은 프랑스, 스페인 등 인근 유럽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어 가격이 다소 고가이다. 모로코 국내생산품은 가격이 저렴하나 질이 떨어진다.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 등 육류는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가격은 한국보다 약간 싸편에 속한다. 회교국이긴 하나 카사블랑카 지역에서는 현지 거주 불란서인이 운영하는 식품점에서 돼지고기 구입이 가능하다. 이외 도미, 광어, 오징어, 참치, 새우등 각종 생선이 비교적 풍부하나 가격은 현지 여타 식품류에 비해 비싼 편에 속한다. 시금치, 토마토, 당근, 호박, 감자 등 각종 채소와 수박, 사과, 딸기, 바나나, 오렌지 등 과일류는 계절에 따라 풍부하며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2) 한국식품 조달여건

모로코 내에 한국식품점 또는 중국, 일본 등 동양계 식품점은 없다. 된장, 고추장, 마른 멸치, 간장, 참기름, 고춧가루, 미역 및 마른나물 등 고유 식품은 한국에서 화물로 배달 하거나 이주 시 상당한 양을 부쳐서 해결하고 있다. 쌀은 슈퍼마켓에서 스페인산(새우표)을 구입, 사용하고 있으며, 품질이나 맛이 한국산 쌀에 비해 떨어지지만 큰 불편이 없다. 무, 배추, 상추, 고춧가루 등 한국 채소는 아가딜에 거주하는 한국교민이 자체 재배하여 일부 교민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고 일부 교민들이 한국 채소를 재배하여 자급자족하기도 한다.

3) 레저 여건

현지인들은 박하차(테 마로켅)와 진한 커피인 까페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축구경기를 가정이나 카페에서 텔레비전으로 시청하는 것을 가장 즐기고 있다. 카사블랑카 및 라바트 등 주요도시에서 전시회, 음악회 등 간혹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으나 일부 상류층을 제외한 현지인을 위한 문화와 레저 시설이 영화관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이다. 지난 90년 초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위성안테나 수신기를 통해 유럽각국의 위성방송을 TV로 시청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다. 하계시즌 (7-8월)에는 도처에 산재한 해변이 유일한 젊은이들의 쉼터가 되고 있으며 동계 시즌은 보통 영화관이 성행하는 시기이다.

현지 체류 외국인들은 외국관광객을 위해 조성된 마라케시, 아가딜 등 주요 관광지의 레저단지에서 골프, 승마, 낚시, 스키 등으로 레저를 즐길 수 있으나 카사블랑카 등 외국인 근거지에서 거리가 원거리로 하루 코스로는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며 현지 물가수준에 비교해 이용료가 고가인 편에 속한다.

차. 치안상태

모로코는 정체가 왕국(Kingdom)인 절대 왕정체제로 카사블랑카나 라바트 등 주요 도시에는 교통경찰이 곳곳에 있으며 야간에는 순찰대(Surete Nationale)가 주요지역에 순찰을 돌고 있어 사회질서가 비교적 잘 잡혀 안정되어 있는 편이므로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현지에서 생활하기에는 치안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2003년도 5.16일 40명의 사망자를 낸 폭탄 테러 이후 카사블랑카를 중심으로 사회적인 불안감이 높아졌으며 최근 들어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하는 절대빈곤층이 수백만 명에 달하고 있고 청소년층 인구의 실업률이 높아 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여행 출장 시 심야에 한적한 거리를 보행하는 것이나 혼자 초행지를 여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카. 사회보장제도

1)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은 CNSS에 가입할 경우 현지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노동법에 의하면 외국대사관을 제외한 현지진출 모든 사기업은 사회 보장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외국 대사관도 모로코 법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CNSS에 가입하는 추세이다.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1) 기후특성

"태양이 뜨거운 서늘한 나라" 라고 칭해지는 모로코의 기후는 지역별로 위도, 고도, 바람, 해류에 따라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구분되며, 지역별로 특성이 있다.

우기(11-4월) 중에는 온난 다습하며 평균 15도를 유지한다. 건기(5-10월) 중에는 고온 건조하며 평균 28도이지만 건물 내부 등 그늘에는 서늘해 무더위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쾌적한 기후 조건을 보여 왔으나 최근 세계적인 기상 이상 및 자동차 매연으로 한낮에는 무더운 기후를 보이고 있다.

연중 가장 습한 달은 12 월로 평균 강수량이 86mm이며, 가장 건조한 달은 7월로 평균 강수량은 1mm로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 가장 추운 달은 1월로 평균 섭씨 3-17도이며, 가장 더운 달은 8월로 평균 섭씨 18-28도이다. 우기 때의 중부 이북 지방은 일교차가 극심하므로 동절기 의복과 실내에서는 난방 시설이 필요하다.

2) 주요 도시의 기후

북부 지중해 및 대서양 연안지역에 위치한 탕제, 카사블랑카, 라바트, 아가달 등은 지중해성 기후로 겨울에는 온난 다습하며, 여름에는 고온 건조한 기후를 보인다. 마라케시, 페스 등 중부 내륙지역은 대륙성 기후로 겨울-한랭하며 여름에는 사하라 사막의 열풍으로 고온 건조한 편이다. 남부 사하라사막 인근지역은 사막성 기후로 고온 건조하며 일교차가 극심한 편이다.

구분	카사블랑카(최저/최고기온)	마라케시(최저/최고기온)
1월- 3월	8-18도C	5-22도C
4월- 5월	11-25도C	11-28도C
6월- 9월	17-28도C	18-38도C
10월-12월	9-21도C	7-28도C

자료원: 모로코 관광청

3) 출장 시 추천 복장

모로코는 주요 고급 호텔을 제외하고는 냉난방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아 우기(11-4월)에 해가 지면 체감 온도가 영하 이상으로 떨어져 추위를 느끼므로, 약간 두툼한 옷차림이 필수적이다. 또한 일교차(20도 내외)가 심한 편으로 간단한 감기약 등 비상 의약품을 지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기(5-10월)에는 우리나라 초여름 날씨 옷차림이면 무난하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도 많으므로 긴 팔 티셔츠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특히 겨울은 2002년도에 홍수 피해로 37명이 사망하는 등 한 주에 2~3일이 비가 오는 날씨가 계속되는 우기이며, 최근에는 이상 기후로 5월 건기에도 비가 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나. 시차/근무시간

1) 근무 시간

중동의 회교국들과는 달리 목, 금요일이 휴일이 아니고 유럽과 같이 토, 일요일이 휴일임. 모로코의 근무 시간은 통상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짐. 일반 기업체들은 오전 8시30분~ 12시까지, 오후 14시30분~ 18시30분까지 근무함.

관공서는 2005년 9월부터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6시30분까지(점심시간 (월-목) 12:00-12:30, (금) 12:00-13:30)로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으며, 카사블랑카 무역관도 모로코 정부의 권고에 따라 '06년 8월 1일부터 근무시간이 상기와 같이 변경되었음. 대기업, 관공서, 은행 등은 토요일이 휴무이나 일반 중소기업들은 토요일 오전 근무를 일반 적으로 하고 있음.

2) 한국과의 시차

모로코는 한국보다 9시간이 늦음. GMT 기준 시간과 동일, 여름 섬머타임 없음. 교류가 빈번한 프랑스와는 시차가 1시간 늦으나, 프랑스의 섬머타임 중에는 2시간의 시차가 있음.

다. 도량형

1) 도량형

프랑스의 영향으로 도량형은 프랑스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길이는 국제표준인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다.

무게	KG
부피	Litter, m3
넓이	m2

2) 전기규격

전압은 220V, 50HZ가 기준 규격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110V가 공급되고 있으나 일반 적으로는 220V가 주로 공급되고 있다. 한편 대형 주택 및 건물, 공장 등에는 삼상 380볼트 가 공급되고 있다. 전기 코드는 유럽식 원형 Two-Pin형으로 접지용 구멍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

라. 출입국/비자

1) 비자

우리 나라와 모로코 양국간에는 비자(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1993.9.1) 되어 있어 현지 출장 여행 시 무 비자로 입국하여 최대 3 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다. 단, 현지 투자나 취업 및 사업 등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하려면 사전에 주한 모로코 대사관에서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비자 신청서와 여권 사진 2매를 제출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1-2주 내에 발급이 가능하며 긴급한 경우 영사 인터뷰를 요청하면 단기간에 발급 해 줄 수도 있다. 또한 현지에서 일정 자격이 갖추어질 경우 장기 체류 비자 또는 거주증 신청이

가능하며 부득이 현지에서 장기 체류 시는 3개월마다 인근 모로코 북부 세우타 (스페인령)에 출국했다 들어오면서 국경에서 비자에 스탬프를 다시 받으면 현지 체재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런 경우 최소 3일 이상 모로코밖에 머물러야 현지 재 입국이 가능하다.

○ 비자발급처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270-3 유엔빌리지 S-15
- 전화: (02)793-6249
- 휴일: 토, 일요일, 양 국가의 공휴일
- 업무시간: 10:00-12:00, 14:00-17:00

2) 출입국 절차

모로코 카사블랑카 "모하메드 썩크"(Mohamed V) 공항(비행기표 행선지로는 CMN으로 표기)에 내리면 입국 사열장(Immigration)을 통과해 수하물(Baggage)을 찾고 세관(Douan)을 통과해 나오게 된다. 입국심사(Passport) 시 여권 사증란에 입국 스탬프와 외국인 출입국 관리 일련번호(예: 117044UK / 6자리 숫자와 영문 대문자 2자)를 찍어 주는데, 동 번호는 호텔 체크인 시 필수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다. 이외 출입국에 필요한 특별한 절차는 없으며 모로코의 공항은 관광국으로 통관이 매우 수월한 편이나 아랍 특유의 기질로 입국심사 시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입국 시 신고 물품이 있을 경우에만 세관 검사대를 거치며, 그 외에는 대부분 세관 검사 없이 통관을 한다. 단, 휴대품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 세관원이 임의로 선택하여 세관 검사를 하므로 샘플 등은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표시가 필요하고 다량의 샘플(완제품)을 휴대할 경우 우리나라 상공 회의소에서 발행하는 샘플증명서 (CARNET)를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면세품 휴대 한도

마약, 무기류 등을 제외한 일반 여행자 휴대품 통관은 그다지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술, 담배, 화장품류 등 면세통관 수량은 유럽국가와 비슷하나, 과도한 샘플 또는 동일한 샘플의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판매용으로 간주, 정식 수입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카메라, 쌍안경, 개인용 장신구, 라디오 등 개인 휴대품 및 위스키 1병, 포도주 3 병, 담배 20 갑 이내는 개인 휴대품으로 면세 통관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관 통관 절차가 보통 생략되고 과도한 휴대품이 있을 경우에 무작위로 세관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취재, 촬영을 위한 장비 등은 공항에서 신고 후 통관해야 재반출이 용이하다.

2003년 5.16일 카사블랑카 폭탄 테러로 인해 공항 출입국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었으며 많은 금액의 외화 현금 소지 시 출국 검사에 압수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많은 외화 소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모로코 화폐는 출국 시 소액이라도 압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국 전 환전을 하는 것이 좋다

4) 공항에서의 교통편

□ 그랑 택시

80년대 구형 흰색 메르세데스 벤츠 공항 택시가 24시간 공항 밖에 대기하고 있다. 요금은 카사블랑카 시내까지 250디람이지만 지역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고, 외국인의 경우 300디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격을 묻고 타야 한다.

□ 기차

아침 6시부터 밤 11시 50분까지 공항에서 카사블랑카 시내까지 기차로 연결된다(시간: 30분, 요금: 30디람). 기차 플랫폼은 공항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

- 열차 운행시간 및 가격 관련정보 제공: www.oncf.ma

5) 시내 대중 교통

Casablanca, Rabat 등 주요 도시의 대중 교통 수단은 뽀띠 택시와 시내 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카사블랑카의 경우 시내 버스는 100여 개의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요금은 저렴한 편이나 노선이 복잡해 초행자에게는 승하차가 어렵고 차량 내부가 불결해 방문객들은 뽀띠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출입국시 주의점

개인별 입국 시 입국카드에 모로코 내 주소를 특정 유명 호텔로 기입하는 것이 가장 빨리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다. 환전은 공항과 시내 환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쓰고 남은 디람을 달러나 유로로 다시 바꿀 때에는 절차가 까다롭고 규제가 많으므로 매번 소액만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환율/환전

1)화폐 단위

화폐 단위는 모로코 내에서는 통칭 디람(Dirham/약칭 DH)으로, 국제 외환 시장에서는 MAD (Moroccan Dirham)로 약칭되고 있으며 1디람은 100쌍팀(Cemtime/CT)이다. 금액 자릿수 구분을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천 단위 구분 표시로 점(.)을 사용하고 소수점은 콤마(,)로 표시 하니 혼동하기 쉽다. (예: DH 1.200,55 / 천이백 디람 55쌍팀). 주화(동전)는 10, 5, 2, 1디람과 50, 20, 10, 5 쌍팀이 유통되고 있으며 지폐는 200, 100, 50, 20 디람권이 사용 되고 있다.

2) 환율

지난 1990년대 말부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경제 관련기관에서는 모로코의 디람화가 현실 시장 가치 보다 과대 평가되어 있다는 견해를 밝혀 왔으나, 과거 수 년간 모로코의 디람화는 미 달러화, 유로화 등 국제 기축 통화에 대해 비교적 안정적인 환율을 보여왔다.

지난 2001.4월 말 모로코 정부는 1990년 이후 최초로 모로코 디람(Dirham)화의 가치를 5% 평가절하 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 2년 전부터 IMF 등 국제금융기관과 국제

외환시장의 평가절하 압력에도 평가절하를 거부해 온 모로코정부의 급작스런 평가절하의 배경에는 국내 정치 및 경제적 요인이 상호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로가치에 지나치게 연동된 현행 바스켓 통화 체제에서 미 달러화 비중을 늘려 국제 통화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모로코 수출업계 및 IMF 등 디람화 가치 과대 평가 압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외채 상환 부담과 인플레이 압력이 숙제로 남아 있다.

2002년 초부터는 다시 디람화의 평가절하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조치가 취해져 디람화는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2006년에는 US\$1=8.7~8.9대로 안정화 되었으나, 최근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2007년 8월말 기준 US\$1=8.1 ~ 8.3까지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3) 환전

외환 반입은 큰 문제점이 없으나, 모로코 디람화의 반출은 통제되고 있으므로 사용 후 남은 디람화는 출국 시 공항에서 재 환전해야 한다. 단, 환전 증명서가 없으면 환전해 주지 않으므로 반드시 환전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방문자가 48시간 이상 체류 시 체재기간 동안 환전한 금액의 50%만 달러화로 재 환전 해주기 때문에 단기간 방문 시는 체류기간 중 필요한 경비만 디람(DIRHAM)화로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로코는 공식적으로는 암시장(Black Market)이 없으며, 공항, 은행, 호텔 및 시내 환전소 등에서 프랑스 프랑화 등 유럽주요국 통화, 미 달러화 및 일본엔화 등이 환전 가능하며 환전 공항환전소, 은행 및 주요 호텔(4STAR 이상)에서만 가능하다. 환율은 모로코 중앙은행(Banque Al-Maghrib)에서 매일 고시하는 동일한 환율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재래시장 (Ancienne Medina)주변에서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달러화를 달러가 필요한 현지인에게 현지화로 바꿔주는 암달러상이 일부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신용 카드 사용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신용카드가 사용 가능하며 (VISA, MAESTRO, MASTER 등) 현금 자동 인출기도 사용할 수 있다. 현금 인출 시 직불카드 수수료보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수수료가 더 저렴하다. 그러나 특급 호텔을 제외한 호텔에서 신용카드 서비스가 일반화되지 않아 유념해야 한다. 환전소와 은행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 환전을 하려 면 Wafa CASH, WESTERN UNION 등의 간판을 찾아가야 한다.

바. 교통/통신

1) 우리 나라와의 교통

□ 항공편

모로코는 유럽, 중동, 북미, 서부아프리카 지역 등으로 취항하는 정기 항공 노선이 운항되고 있어 여타 아프리카 국가에 비하여 항공편 연결이 용이한 편이다. 모로코 국영항공(RAM: Royal Air Maroc)이 파리, 마드리드, 로마, 런던, 암스테르담, 아테네 등 대부분 주요 유럽 도시와 뉴욕, 몬트리올 등 북미 대륙, 주요 중동국가, 서부 아프리카 국가에 취항하고 있다. 서비스 수준은 유럽 등 선진국 항공사에 비해 다소 뒤쳐지나 정확한 이착륙시간 준수

등 여타 중동, 아프리카 항공사에 비해 우수한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와 모로코간에는 직항 항공노선이 없어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등 유럽 주요도시를 경유하여 오는 것이 유용하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파리를 경유하는 노선은 "샤를 드 골"(CDG 2)에서 3시간 정도 대기 후 비행기를 갈아 타고 직접 카사블랑카로 갈 수 있다. 최근에는 카타르 항공 (인천-상하이-도하-트리폴리-카사블랑카), 아랍에미리트항공 (인천-아부다비-카사블랑카) 등도 서울 노선을 서비스하고 있어 중동을 경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항공사 리스트

Air France	022 29 40 40	www.airfrance.com
KLM	022 20 32 22	www.klm.com
Lufthansa	022 31 23 71	www.lufthansa.com
Royal Air Maroc	022 31 11 22	www.royalairmaroc.com
Qatar Airways	022 29 54 54	www.qatarairways.com
Arab Emirates	022 43 99 00	www.emirates.com
Alitalia	022 31 41 81	www.alitalia.it
British Airways	022 43 33 00	www.britishairways.com
Air Algerie	022 22 56 81	www.airalgerie.dz
Egypt Air	022 30 92 25	www.egyptair.com

□ 비행기표 예약

모로코 내에서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자 할 때 주의할 점은 주말을 끼고 예매하는 것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월요일에 모로코를 출발해 같은 주 수요일에 돌아오는 티켓보다 금요일 모로코를 출발해 일요일에 돌아오는 티켓이 훨씬 저렴하다. 날짜와 항공사별로 큰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예매가 보편화되지 않아 여러 여행사에 문의 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육로 이동

육로를 이용할 경우 스페인 남부 Algeciras-Ceuta / Cadiz-Tanger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페리를 이용(일반 페리 2-3시간, 쾌속정 45분 소요)해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철도나 고속버스편(CTM)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 해상 교통

모로코 북부 지역 주요 항구인 Tanager에서 스페인 남부 Algeciras, 영국령 Gibraltar, 불란서 남부 마르세 이류 항구를 운항하는 페리편으로 승용차를 함께 실어 유럽에서 차량편으로 모로코로 입국할 수 있다. 또한 모로코 최북단 지역인 스페인령 Ceuta에서 스페인 남부 Algeciras 항구까지 매일 수 차례(여름철 휴가철에는 매시간) 페리가(차량 운송 가능) 운항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카사블랑카 간 화물선박편도 직항해로가 없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이나 이삿짐의 경우 "바르셀로나", 마르세이유 등 유럽 주요 항구를 경유하여 환적해야 하는데, 항해 일수만 최소 45일에서 2달여가 소요되고 있다.

2) 국내교통

□ 택시

단거리 시내 주행용인 "쁘띠 택시(Petit taxi)"와 공항과 호텔, 주요 도시 간 장거리를 운행하는 "그랑 택시(grand taxi)"의 2가지 종류가 있다. 택시는 식별이 용이하게 주요 도시마다 단일 색깔로 구분, 지정되어 있으며 카사블랑카의 경우 빨간색의 "쁘띠택시"(요금/미터기)와 백색의 "그랑 택시"(요금 사전협정)가 운행되고 있다. 주로 차종이 중고 "푸조 205"인 뷔티 택시는 별도의 승차장이 없고 길거리 아무데서나 손짓(손을 위아래로 흔들)으로 정차시켜 승차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3명 이내 합승이 보통이다.

요금은 미터제이며, 기본 요금은 1.7 디람부터 시작, 매 20m 마다 20쌍팀(약 20원)씩 요금이 올라간다. 7디람이 기본 요금으로 7디람 이하의 요금이 나오면 7디람을 내야 한다. 미터기 단위 끝자리 부분이 "00"로 표시(10.00은 10디람)되므로 착각하기 쉽다. 요금은 10Km 반경 내 10여분 소요되는 시내주행의 경우 10디람 (약1불)이면 웬만한 곳은 갈 수 있으며, 심야요금(20:00-06:00)이후에는 50%의 할증요금이 붙는다. 차종이 흰색 중고 "메르세데스 벤츠 230 디젤"인 그랑택시의 경우 주요 호텔, 시내 거점, 공항에 항상 대기하고 있으며 호텔 프론트에 요청하면 호출할 수 있다. 요금은 시내호텔에서 공항까지는 250디람 (약 30 불)으로 통상 가격이 정해져 있으나 승차 인원 및 수하물에 따라 간혹 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요금을 기사와 사전에 흥정하고 승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육상 교통/ 철도, 도로

총 연장 1,900km의 철도가 모로코 전역 주요 도시간을 운항하고 있으며, 시설이나 서비스가 비교적 양호하므로 열차 편으로 여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모로코 국내에서 북부 Tanger 항구까지 열차로 가서 배편을 이용 스페인에 도착 후 다시 열차 편(Europass등)을 연결하여 유럽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모로코는 총 도로 연장 59,790km로서 아프리카에서 남아공 다음으로 최대의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다.

2006년 기준 분쟁지역으로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는 서부 사하라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각 지역에 외국인 관광객이 육로로 여행 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다. 최대 상업도시인 Casablanca에서 Rabat를 경유하여 북부 Larache까지 약 300km 구간이 고속도로로 잘 포장되어 있으며, 향후 Tanger까지 연결될 예정으로 있다.

3) 국제통신

□ 일반 우편제도

모로코의 우편제도는 선진국 수준은 아니나 비교적 신뢰할 만 하다. 특히, 여타 아랍국가 또는 아프리카 제국에 비하여 훨씬 능률적이다. 우리나라로 우편물 발송 시 약 10-15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Express Mail, 등기우편도 취급하며, 안전한 편이다. 우표는 우체국, 신문판매소(KIOSK), 관광안내소 또는 시내중심가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일반 국제 우편료는 지역에 따라 US\$ 2-5 내외가 소요된다.

□ 등기우편

우체국 내 등기 취급소(Colis Postaux)에서 발송코자 하는 물품을 포장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우체국에 가져가서 세관 검사를 끝낸 후 포장해서 등기로 발송할 수 있는데, 포장지, 테이프 또는 끈 등은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등기는 20 Kg 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사방 길이가 1.5m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약 10 Kg 을 선편으로 우리나라에 보낼 경우 약 80불, 항공 소포의 경우 150불 정도가 소요된다.

□ 속달우편 / Express Mail

우체국 내 속달우편 취급소(EMS / Poste Rapide)에서 발송이 가능하며 약 500g의 우편물을 우리나라에 보낼 경우 45불 정도가 소요된다. Express Mail로 우리나라에 보낼 경우 3-4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더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 DHL, UPS등 기타 택배서비스

카사블랑카 등 주요도시에 DHL, UPS, Fedex 등 세계유수의 택배서비스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선진국 수준의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발송 시 DHL사무실에 전화를 하면 최단시간 내에 직접 와서 가져가며, 우리나라까지의 택배서비스에는 3일 내에 우송이 가능하다. 발송료는 서비스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최소요금인 0.5Kg까지는 80불, 1Kg까지는 120불, 1.5 Kg의 경우 130불 정도로 가격이 비싼 편이다.

□ 국제전화

중동 아프리카지역 국가들 중, 전화시설 및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시외 및 국제전화도 용이한 편이다. 1996년부터 디지털신호(Tone)와 펄스신호(Pulse)를 동시에 서비스하고 있다. 모로코에서 우리나라와의 통신(전화, 팩스 및 이메일 등 인터넷통신)은 비교적 양호하나, 통신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비싼 편이다. 우리나라로 업무시간에 전화할 경우 1분당 5불 정도가 소요된다. 업무시간외 심야시간 또는 주말에는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모로코에서 한국으로 통화 시 COLLECT CALL 서비스 제도가 없다.

- 월-금요일 / 22:00-24:00: 20% 할인, 24:00-07:00: 40% 할인
- 토요일 12:30-월요일 07:00: 40% 할인
- 국제전화 이용 방법(시차는 한국보다 9 시간 늦음)
- 모로코에서 외국으로 전화할 경우(DDD)
 - 국제전화 접속 번호(00), 국가번호, 지역번호 및 해당전화번호를 순서대로 다이얼링
 - 예) 서울 500-1234번에 전화할 경우: 00-82-2-500-1234, 서울 핸드폰 016-260-1111번에 전화할 경우: 00-82-16-260-1111
- 한국에서 모로코로 전화할 경우
 - 모로코 국가번호(212), 카사블랑카 지역번호 (22)
 - 예) KOTRA(Casablanca) 31 42 32에 전화 할 경우: 001-212-22-314232

□ 팩스, 전보 등 발송

우체국에서 전보를 발송 할 수 있으나 팩스는 어려움이 있다. 일부 팩스전용 발송 서비스 업체가 있어 팩스 발송을 대행해 주는 곳도 있으나 찾기가 수월하지가 않다. 주요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팩스를 발송할 수 있는데 요금이 비싼 편이다. 보통 A4 분량 1장을 우리나라로 팩스할 경우 10불 정도가 청구되며, 통화 중일 경우에도 기본 요금이 부과 된다.

과거 시장개척단으로 참가한 모 업체가 A4 3장 분량의 원단 샘플을 복사하여 우리나라로 호텔측에 전송을 의뢰했는데, 팩스요금이 250불이 청구되어 항의를 한 결과, 팩스라인이 계속 통화 중으로 그림을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전송에 30여분이 걸린 것으로 팩스기기에서 리코딩되어 낭패를 본 적이 있다. 이는 요금 체계가 전송 시간을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 되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었다.

□ 인터넷 메일

지난 1996년도에 최초로 도입되기 시작한 인터넷은 최근 들어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일반 전화 회선을 통한 인터넷 접속은 회선부족으로 업무 시간대에는 접속이 쉽지 않으며, ADSL라인을 통한 접속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정액제 도입 이후 수요자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 비즈니스 호텔에는 인터넷사용을 위한 PC가 설치되고 있으며, 시내에 산재한 인터넷 카페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속도가 한국보다 느린 편이다.

4) 국내통신

□ 공중 전화

카사블랑카 등 주요 도시에는 공중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시 외곽지역이나 지방으로 가면 공중전화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도시지역 및 일부 지방은 "텔레부티끄"(Telephone Booth; 소규모 사설전화국으로 시내 곳곳에 위치)에서 전화카드를 사거나 사용료를 내고 전화를 사용 할 수 있다. 공중전화는 동전용과 공중전화 카드용 2 종류가 있으며, 최근에 카드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중전화 카드(Telecartes)는 Tabacs(담배가게)나 KIOSK(노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68.50 디람(50Units), 93.50 디람(70 Units) 및 156 디람(120 Units)등이 있으며, 동 공중전화 카드로 국제전화도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별 호출코드

지역 및 지역번호	비 고
- (02) Casablanca, Settat, Ben Slimane, Berrechid, Mohammedia 등 연안 중서부 권 및 Marrakech, Agadir, Ouarzazate, Zadora, Laayoune, Tan-Tan 등 남서부 전역	* 2006년 3월 24일부터 모로코 지역번호 통합 ○ 통합내용 - 모로코 전역 지역번호 02-05번으로 구분 하던 것을 02-03로 통합 ○ 도시 별 통합지역 번호
- (03) Rabat, Tanger, Al hoceima, Tetouan, Kenitra 등 북서부권 및 Fes, Oujda, Meknes, Azrou, Errachidia, Nador 등 중동부지역	- (02) Casablanca, Settat, Ben Slimane, Berrechid, Mohammedia 등 연안 중서부권: 유지 - (03)Rabat, Tanger, Al hoceima, Tetouan, Kenitra 등 북서부권: 유지 - (04)Marrakech, Agadir, Ouarzazate, Zado ra, Laayoune, Tan-Tan 등 남서부 전역: 02로 통합 - (05)Fes, Oujda, Meknes, Azrou, Errac hidia, Nador 등 중동부지역: 03 으로 통합

주: 우리나라에서 전화할 경우 앞의 0 번 생략/ 휴대폰 호출 시에도 동일.

주2: 한국에서 카사블랑카 무역관 전화할 경우

- 국제전화코드 + 212(국가코드) + 22(지역코드) + 314280/32(전화번호)

(자료원: '06년 4월 카사블랑카 무역관)

□ 이동통신 / GSM

1996년부터 이동무선전화(GSM)가 개통되어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통화가능 지역은 라바트, 카사블랑카, 마라케시, 땅제, 아가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여타 지역도 점차 중계소 등을 증설하여 통화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사하라 사막에서도 통화가 가능하다. 유럽 및 일부 중동 지역에서도 국제 "로밍서비스"를 통해 통화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단말기를 갖고 모로코에서 한국으로 통화는 전송방식의 차이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1999년 말 모로코 정부의 제 2이동 통신 사업자 선정으로 MediTelecom의 서비스가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2006년 기준 2개 통신 회사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향상이 되고 있다.

사. 호텔/식당

1) 호텔

모로코 전역에는 약 550개의 정부등록 호텔과 9만 5,000여 개의 침상(베드)을 보유하고 있는데, 요금은 지역, 등급 및 예약주체(여행사, 사기업 등 주요 고객)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다. 관광객이 주요 고객인 관광 호텔 요금은 하계 휴가 시즌인 성수기(High Sea son)에는 높은 요금이 적용되기도 하며, 상업 및 관광중심지인 카사블랑카는 타 지역에 비해 호텔요금이 4~50% 높은 편이며 5등급 및 4등급과의 요금 차이는 거의 2배에 달한다.

□ 호텔 예약

일반 요금에 비해 현지 여행사를 통한 예약이 50% 가량 저렴하며, 무역관을 통한 할인은 정상가의 30% 수준이다.

□ 호텔 예약

호텔 명	등급	주소	전화/팩스	정상가	여행사 할인가	부대시설
Sheraton Casa blanca	5 STAR	100, av de l' Armée Royale CASABLANCA, 20000	Tel.212 22 43 94 94 Fax.212 22 31 51 36	싱글 (US260\$) 트윈 (US320\$)	싱글 (US150\$) 트윈 (US170\$)	레스토랑,유선 인터넷, 바, 헬스클럽, 환전
Hyatt Regency Casa blanca	5 STAR	placedes Nations Unies CASABLANCA, 20000	TEL.212 22 43 12 34 FAX.212 22 43 12 30	싱글 (US250\$) 트윈 (US 320\$)	싱글 (US150\$) 트윈 (US 170\$)	레스토랑, 유선인터넷,바, 헬스클럽
Le Palace d'Anfa	5 STAR	171, bd d' Anfa CASABLANCA, 20000	TEL.212 22 95 43 00 FAX.212 22 36 63 21	싱글 (US270\$) 트윈 (US 350\$)	싱글 (US150\$) 트윈 (US160\$)	레스토랑, 유선인터넷, 바, 헬스클럽
Oum palace	4 STAR	Rue Kamal Mohamed Casablanca, MA	TEL.212 22 20 15 00 FAX.212 22 20 40 90	싱글 (US160\$) 트윈 (US 180\$)	싱글 (US120\$) 트윈 (US 130\$)	레스토랑, 유선인터넷, 헬스클럽
Ramada les Almohades Casablanca	4 STAR	avenue Moulay Hassan 1erCASABLANCA, 20000	TEL.212 22 22 05 05 FAX.212 22 22 02 42	싱글 (US165\$) 트윈 (US 185\$)	싱글 (US60\$) 트윈 (US80\$)	레스토랑, 유선인터넷,바
Kenzi Basma	4 STAR	35, avenue Moulay Hassan1er CASABLANCA, 20000	TEL.212 22 22 33 23 FAX.212 22 26 89 36	싱글 (US150\$) 트윈 (US 170\$)	싱글 (US80\$) 트윈 (US95\$)	레스토랑, 유선인터넷,바
Hôtel de la Corniche	4 STAR	bd de la Corniche CASABLANCA, 20050	TEL.212 22 79 81 81 FAX.212 22 79 74 67	싱글 (US80\$) 트윈 (US130\$)	싱글 (US50\$) 트윈 (US70\$)	레스토랑, 유선인터넷, 바

※ 여행사 할인가는 시즌에 따라 변동 가능.

※ 환율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적용 환율: 1 USD = 9 DH)

※ 여행사 할인 가격은 조식 별도임. (Ramada les Almohades, Hôtel de la Corniche호텔의 경우 조식 포함 가격임.)

□ 호텔 예약

여행사명	담당자	주소	전화/팩스/핸드폰	이메일
MAROC HORIZON TOURS	박광수 사장	13rue Nouakchott, Casablanca	TEL:212 22 44 25 52 FAX:212 22 44 79 12 HP:212 61 32 53 95	moroccotravel@netscape.net casablanca7@mail.com

□ 예약 방법(여행사)

- 현지 여행사를 통해 호텔예약 가능
- 방문객은 두 가지 결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
 - 한국 계좌로 선 입금
 - 카사블랑카 현지 도착 후 현지화(모로코 DH) 지불(카드 결제 불가)

□ 기타 사항

- 도착 당일 현지 사정으로 호텔이 변경될 경우 동급 호텔로 자동 변동
- 항공 및 고객 사정으로 당일 투숙 불가 시 위약금(1박) 지급
- 영수증은 현지 발급(여행사 영수증) 또는 우편으로 송부
- 모로코 타 지역 호텔 및 카사블랑카 타 호텔 예약 가능
- 명절, 전시회 등 성수기에는 호텔가격이 200~300% 인상

2) 식당

우리나라의 원양어선 등 선박분야 종사 교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수산 기지인 아가딜(Agadir)을 제외하고는 상업중심지인 카사블랑카와 수도인 라바트 등 주요 도시에 정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한국식당은 없는 실정이다. 어업기지인 아가딜에는 2개의 한국 식당이 선원 등을 대상으로 영업 중이다.

- 서울식당 / 전화: 048-827792
- 한국식당 / 전화: 048-848570.

일본식당은 카사블랑카 3개 및 라바트에 2개가 있으며, 순수한 중국식당은 카사블랑카에 1개가 있으며, 그 밖에 다수의 베트남 식당이 있다.

불란서 레스토랑은 주요 대도시와 호텔 등에 많은 편이며 스페인, 이태리 식당도 다수 있다.

Fast Food로는 맥도널드와 피자헛, KFC 등이 주요 도시에 진출해 있다.

□ 중식 / 일식 / 베트남 / 태국

식당명	위 치	전화번호	상세정보
GOLDEN CHINA(金華)	12, RUE EL ORAIBI JILALI (EXFOUCAULD)CASABLANCA	022.27.35.26	한국인 식성에 맞는 중국식 (대만주방장) 1인당 20-30불 소요
LE SAKURA	100 Av.des F.A.R CASABLANCA	022.43.94.94	일식(초밥, 생선회, 철판구이) 셰라톤 호텔1층
Kiatori	8, rue du Commissaire Lad euil CASABLANCA	022 47.16.68	일식
Thai Gardens	av de la Côte d'Emeraude CASABLANCA	022 79.75.79	태국 식당
Millennium Viêt	8, rue Molière CASABLANCA	022 39.22.44	베트남 식당
Milasia	17, rue Ahmed Charci, Hippodrome CASABLANCA	022 36.36.77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요리
FUJI	2, AV MICHLIFEN RABAT	037.67.35.83	일본인 주방장
MATSURI	155, AV JOHN KENNEDY ROU TE DES ZAERS RABAT	037.75.75.72	회전 초밥

□ 양식

식당명	위 치	전화번호	상세정보
LA MER	La Corniche, Phare d'Elhank	022.36.33.15	프랑스식, 해물요리 전문점
A Ma Bretagne	bd de l' Océan Atlantique -ex Biarritz, Sidi Abderrahmane CASA BLANCA	022 39.79.79	프랑스 식당
OSTREA	Au port de peche	022 44.13.90	해산물전문점, 생굴
TOSCANA	7 Rue Yaala El ifrani, Quartier Racine	022 36.95.92	이태리 요리(피자, 스파게티) 가격 저렴, 주말 예약필수
LA BODEGA	Rue Allal Ben adallah, Casablanca	022 54.18.42	스페인요리전문점
Luigi Grieco	rue de Normandie ang. rue Abou Yaala Allfrani CASABLANCA	022 94 07 22	이태리 요리(피자, 스파게티) 가격 저렴

□ 현지고유음식

식당명	위 치	전화번호	상세정보
RYAD ZITOUN	31 BD. RACHIDI Casablanca	022 22.39.27	모로코전통음식 (TAJINE, COUSCOUS)
IMILCHIL	27 RUE VIZIR TAZI Casablanca	022 22.09.99	-

3) 음식문화

모로코인의 식생활에서 꾸스꾸스(COUSCOUS), 양갈비(꼬트다뇨), 포도주, 박하차는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인 만큼 방문 시 적어도 한번쯤 시식을 해 보는 것이 좋다. 꾸스꾸스는 2단 양은 솥 중 아래 솥에 호박, 당근, 양배추 등 각종 야채와 양고기 또는 소고기를 넣고, 위 솥에는 미세한 밀가루(SEMOULE)를 넣은 다음 화덕에 불을 피워 아래 솥의 수증기로 위 솥의 밀가루를 찐 음식이다. 접시에 내 놓을 때는 접시 가운데에 찐 밀가루를 놓고 그 주변에 야채와 고기를 맛깔스럽게 차린다.

아. 관공서 관행

1) 민원처리기간

관공서 사무처리는 각종 법령과 지침에 준하는 원칙과 문서주의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지인들도 자국 관공서의 일 처리 속도가 늦다고 평가하고 있다.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들은 민원처리를 특권으로 생각해 급행료를 요구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왔다. 민원처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상이하나, 보통 당일 처리되는 간단한 계약서 공증과 1달 이상 소요되는 자국민의 여권발급업무 등으로 사안에 따라 상이한 실정이다.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금 환불을 위한 사고증명서(P. V)를 받기 위해서 급행료를 주었을 경우 교통 경찰관이 사고조서를 작성 후 법원에 서류를 송부해 민원서류를 찾는 데에 1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보험금을 환불 받을 때 까지는 보통 사고 후 3개월여가 소요된다. 한편 외국인투자자유치를 위해 투자관련 민원은 비교적 신속히 처리해 주고 있다. 2006년 기준 모로코는 모하메드 6세의 집권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을 맞고 있어 민원처리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2) 관공서 방문 시 유의사항

모로코 관공서의 업무 처리 관행은 관료적이며, 번문옥례(레드 테이프)가 많고 배타적이다. 외국인이 모로코 관공서에서 신속히 일을 처리하고자 하면 현지 모로코인을 대동하여 급행료를 주는 방법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외국인 단독 방문 시에도 매우 친절하게 맞이하며 자국민 민원을 제쳐두고 먼저 처리해 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 방문을 위해서는 최소한 수 일전에 면담약속을 신청하고, 방문 시에는 가급적 정장을 하고 신분증을 지참하며 약속시간 전에 도착해 대기해야 한다. 고위층일 경우 긴급한 외부약속으로 출타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방문 수시간 전에 약속시간을 재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관공서에는 입구 내부 정면에 국왕의 대형사진이 걸려 있으므로 손가락질을 하거나 비하하는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 세관관련 업무 처리 시에는 관행적으로 소액의 수고료나 급행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하급 공무원들의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용되는 분위기이다.

자. 공휴일

1) 휴일 지정방식

양력에 의해 일자가 고정된 공휴일(National Holidays)과 이슬람력에 의해 매년 일자가 변동되는 공휴일(Religious Holidays)로 구분되고 있다. 대부분의 이슬람 국에서 금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이슬람권에서 튀니지와 모로코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주말이다.

시중은행 등 대부분의 정부기관 및 관공서들은 토요일도 휴무를 하며 일부 사기업에서는 토요일 오전(08:30-12:30)에만 근무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대부분의 기업들이 토요일 휴무 내지 격주 휴무제를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슬람력에 의한 종교휴일은 모로코 정부에서 해당휴일 전날 달이 지는 시간대를 정확히 관측한 후 공식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휴일일자를 바로 수 시간 전에 공식 발표하기 때문에 휴일전일 당일의 휴일여부를 두고 일부 혼선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다.

모로코의 2007년도 공휴일

일자	휴일명[국문]	휴일명[영문]
2007년 01월 01일	신년	New Year's Day
2007년 01월 31일	이슬람력구정 [음력]	Islamic new year
2007년 05월 01일	노동절	Labour Day
2007년 07월 30일	국왕 즉위식	Throne Day
2007년 08월 14일	OUED EDDAHAB 수복일	Reunification Day
2007년 08월 20일	독립선언문 선포일	King's and People's Revolution Day
2007년 08월 21일	국왕 생일	King Anniversary
2007년 11월 06일	사하라 행진일	Anniversary of the Green March
2007년 11월 18일	독립 기념일	Independence Day

주: 양력에 의한 공휴일 / 매년 고정

이슬람력에 의한 공휴일 / 매년 변동

일자	휴일명	휴일명[영문]
2007년 01월 31일	이슬람력구정 [음력]	Islamic new year
2007년 04월 11,12일	모하메드 탄신일 (AID AL MAOULID)	AL maoulid "prophet birthday"
2007년 9월 12일 [정확한 날짜는 미정]	라마단 종료 축제	break fast day of Ramadan

주: 이슬람력에 의한 공휴일은 해당 휴일 전날 달이 지는 시간대를 정확히 관측한 다음 휴일 여부를 결정해 공식 발표되므로 양력일자로 산정 시 1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추어 질 수 있음.

2) 출장 지양기간

모로코는 프랑스 식민통치의 영향을 받아 사회 제도가 프랑스의 복사판이다.

따라서 휴가문화(Vacance)가 발달하여,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는 여름휴가기간으로 일부 민간기업, 경제 관련 단체들은 집단휴가를 실시하여 접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도 휴가기간으로 담당자 부재 및 단축근무 등으로 업무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슬람국가에서 매년 한달 여간 일자가 당겨지면서 시작되는 라마단 안식절은 이슬람 교도들의 전통적인 금식기간으로 단축근무 등에 의해 업무가 사실상 정지되므로 출장 시 동 기간을 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차. 여행시 유의사항

1) 여행준비

□ 의복

일반 방문객들은 모로코가 아프리카 북단에 위치해 무더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나 4계절 의복이 필요한 기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름에 해당되는 하계시즌(5-10월)은 6개월 정도 지속되지만 일교차가 심해서 조석으로는 서늘해 별도의 냉방시설이 필요가 없다. 한편 반팔 와이셔츠에 하복이 적당하다.

우리나라의 초겨울 날씨에 해당되는 우기(11-4월)에는 난방이 필요할 정도로 서늘한 기후를 접하게 되나 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아 체감 온도는 영하로 느껴지므로 우리나라 초겨울 복장을 준비해야 한다.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심한 편으로 감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 전기규격

전압은 220 V, 50 HZ 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110 V도 공급되고 있다. 전기코드는 유럽식 원형의 Two-Pin형(접지용 구멍 있음)을 사용하고 있다.

2) 여행여건

□ 치안

이슬람국가 중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선임국왕인 모하메드 6세를 대다수의 국민들이 매우 지지하였던 바, 후임국왕인 핫산 2세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별 동요 없이 왕권을 이어가고 있다. 치안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외국인들의 여행 또는 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

테러단 및 조직적인 범죄 단체는 없으나, 빈곤층이 국제테러조직과 연계하여 발생시킨 2003년 5.16일 카사블랑카 폭탄테러사건(40명 사망)이후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서부 사하라 지역을 제외하고는 관광 등 외국인의 여행에 통제를 가하지 않고 있으나 빈부 격차 심화, 청소년 인구증가에 따른 실업을 증가 및 경제침체 등에 따른 사회 불안 요인이 상존 하고 있어, 도시 외곽지역에서 절도 등 잡범이 간혹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야간 여행이나 혼자 벽지 또는 원거리 여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여자 여행객의 경우 시내외곽지역이나 뒷골목 등 인적이 드문 지역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통사고 주의

모로코는 교통사고율이 높은 나라중의 하나이므로 운전 시 각별히 조심하여야 하며, 방어 운전이 필수적이다. 우측통행이며, 우측방향차량 우선, 속도제한 및 일단정지, 주차 위반 등 단속을 하고 있다. 운전자가 급하게 운전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추월이 심하므로 장거리 차량 여행 시 각별히 주의를 요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보통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교통사고 현장을 보존하여야 하므로 시내에서 떨어진 지역이나 지방에서 사고 발생시 경찰 출동이 늦어 사상자를 오래 현장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지방의 경우 병원시설 및 의료진이 완비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예가 일어나고 있다.

□ 기타 주의사항

모로코는 이슬람 국가 중 외국인에게 가장 개방적이고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주는 관광국이나 노천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나 소란 등은 금지하고 있다. 관광지, 시장 등 구걸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필요 시 1디람짜리 동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페스 및 마라케시의 메디나(구 도시) 관광은 체류 호텔에 의뢰해 가능한 지정된 관광안내원의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국왕이나 왕가 또는 체제에 대한 비난은 절대로 금물이며 현지인과 종교상의 토론이나 비난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모로코인에 대한 타 종교 전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일부 선교사들이 모로코인에 대한 선교 및 복음전파를 하다가 문제가 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응급

카사블랑카 등 주요도시의 일반적 의료수준은 여타 아프리카국에 비해 잘 갖추어진 편이나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의료시설이나 전문의가 많지 않은 편이다. 지방에는 의료시설 및 의료진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여행 시 사전에 비상구급약을 휴대하는 것이 좋다.

긴급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앰블런스를 부를 수 있다. 앰블런스 호출은 지역마다 전화번호가 있으며, 종합병원 응급실로 갈 수 있다. 이 외 야간 의사를 호텔로 부를 수 있다.

긴급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각 지역별 주요 병원은 아래와 같다.

지 역	병원명	연락처
Casablanca	Hopital Ibn Rochd	(022)265102
	Hopital Mohammed V	(022)340376
Agadir	Hopital Hassan II	(028)846686/841477
Tantan	Hopital Hassan II	(028)877126
Dakhla	Hopital Hassan II	(028)897705
Laayoune	Hopital Moulay Hassan Ben El Medhi	(028)893650
Fes	Hopital Al Ghassani/Dar Dbibegh	(035)622776/77/78
	Hopital Omar Drissi/Fes Medina	(035)634551/52
	Hopital Mohammed V/Sefrou	(035)662088
Marrakesh	Hopital El Razi	(024)302141/302905
	Hopital El Antaki/Medina	(024)310682
Tanger	Hopital Mohammed V	(039)930856
	Hopital Al Kortabi	(039)934242

주: 06년 3월 24일 지역번호 통합에 의한 전화번호 변경

자료원: 카사블랑카 무역관

□ 팁 관행

카사블랑카 "모하메드 썬크" 공항에 내리면 "포터"가 짐을 승용차까지 실어주는데, 이때 팁은 짐 1개당 5~10디람(0.5~1불)을 주면 무난하다. 호텔에 도착하여 포터가 짐을 객실까지 운반해 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팁은 수고의 표시로 고정적으로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보통 식당(불란서식당 등 고급 식당)에서 식대의 약 5~10%정도 주면 무난하다. 식사비가 565디람이 나오면 600디람을 주면 되는 것이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얼마를 주어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다. 주요 호텔 부속 레스토랑 등 일부 고급 식당의 경우 통상 10%의 서비스 요금이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식수

현지인들은 수도물(L'eau portable)을 그냥 마시나 석회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가능한 식수는 Mineral Water를 구입하여 마시는 것이 위생상 바람직하다. 현지 로컬 미네랄 워터로 "시디알리"(Sidi Ali)와 "시디 하라젬"(Sidi Harazem)의 2종류 상표가 있다. 일반 슈퍼판매 가격은 1.5리터(5디람)와 0.5리터(2.5디람)이나 레스토랑 및 호텔객실 미니 바에서는 5배 정도 받는다. 이외에 에비앙(Evian)등 프랑스 수입품도 있으나, 현지 산에 비해 3배 이상 고가이다. 우리 입맛에는 물맛이 부드러운 "시디 알리"를 구입해 마시는 것이 무난하다.

□ 이발소

시내 이발소의 통상 커트 요금은 100~120디람이며, 팁은 10~20디람 정도 줘야 한다. 간혹 커트 시 "매니큐어"(손발톱 손질)라고 물어보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기본 서비스라고 생각해 고개를 끄덕거리면 커트 요금과 비슷한 요금을 치르게 되니 주의를 요한다. 시내에 산재한 현지인이 이용하는 일반 이발소의 경우 40~50 디람으로 저가이나 현지인 스타일로 커트를 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미용실은 시내 부유층 대상 고급 미용실이나 호텔 미용실을 이용해야 하며, 퍼머 400디람, 드라이 150디람, 커트 200디람 정도이며 팁은 10% 정도 별도로 주어야 한다.

□ 구두닦이

카페나 철도 및 고속 버스역 등 사람이 붐비는 곳에는 구두닦이 통을 멘 소년들을 흔히 볼 수가 있다. 구두요금은 3디람이나 외국인인 경우 10디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5디람 정도가 적당한 금액이다. 우리나라처럼 구두 광을 내는 것이 아니라 2~3분에 걸쳐 먼지를 떨어내는 수준이다. 주요 호텔에는 자동식 구두닦이 기계(Shoeshine machine)가 설치되어 있으니 이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쇼핑

□ 물가

카사블랑카는 상업 중심지인 동시에 관광지이므로 물가가 여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으로 수도 라바트에 비해서도 주택 임차료 등 일반적인 생활물가가 20~30% 비싼 편이다. 외식의 경우 유럽 물가수준이며 생필품 등 일반공산품은 대부분 수입해야 하므로 상당히 비싼 편이다. 단 과일 및 야채 등 농산품과 일부 모로코 내에서 제조하는 공산품은 수입 품목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다.

모로코에는 현지인과 관광객이나 일반 비즈니스맨에게 적용되는 가격이 이원화된 물가 구조를 보이고 있다. 모로코의 저소득 계층의 1달 급여는 약 300불로 한 가정이 그럭저럭 지낼 수 있다.

□ 쇼핑장소

일반 상점(magasin)과 재래 전통시장(souks)이 있으며, 지역별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재래 전통 시장에서 흥정하며 특산품을 쇼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도시에는 메디나(Medina)라고 하는 지역에 "쑤크"(souks)라는 재래 전통 시장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남대문시장과 비슷하다. 페스의 카펫, 쌀레의 도자기 등 액세서리 상점이 늘어서 있어 관광객들을 부르고 있다.

□ 특산품

불어로 가죽제품이라는 뜻인 "마로키네리"(maroquinerie)로, 가방, 벨트 등 일반가죽제품은 이태리, 프랑스산 고급제품에 비해 끝마무리가 투박하고 디자인은 조잡하나 가죽 질이 우수하고 저렴한 편이다. 카펫 및 금은세공품들이 유명하며 이외에 특산품으로는 화석(Fossil)이 가장 무난하다. 카사블랑카 중앙시장(Marche central)내 화석 취급상이 3곳 있다.

카. 유용한 연락처

비상연락처

연락처	전화번호
전화번호 안내(Renseignements)	160
경찰(Police)	190
고속도로 순찰대(Gendarme Royale)	117
교통사고 신고	19
소방경찰구조대(Pompiers-Police Secours)	15
긴급의사(SAMU)	022 90 50 50
SOS 의료/앰블란스(카사블랑카)	022 44 44 44
택시호출(Privair, s.a.r.l.)	022 91 41 88
콜택시(Appel-taxis)	022 89 24 89
택시호출(Casa Air Service)	022 90 30 36
역 (Casa Port Station)	022 22 30 11
공항 (MOHAMMED V)	022 53 90 40 / 022 53 91 40

자료원: TELECONTACT

주요 항공사

연락처	전화번호
RAM(Royal Air Maroc)	022 31 11 22 / 91 20 00
AIR FRANCE	022 43 18 18 / 43 18 63
LUFTHANSA	022 31 24 02 / 31 28 20
BRITISH AIRWAYS	022 22 94 64
ALITALIA	022 31 41 81 / 31 39 50
SWISS AIR	022 53 94 25 / 53 94 26
TUNISAIR	022 29 34 52 / 20 14 15
카사블랑카 공항	022 53 90 40 / 53 91 40

자료원: TELECONTACT

□ 은행

모로코의 시중은행들은 보통 월-금요일 오전 8:30부터 11:30, 오후 14:00부터 16:30분 동안 영업을 하고 있다. 토요일은 휴무이며 개점시간이 하계 및 라마단 기간에는 단축 영업되고 있다. 카사블랑카, 라바트, 탕제 등 주요도시에는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국제 신용 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마라케시, 페스 등 주요 관광지의 주요 호텔에도 현금인출기가 설치되어 있다.

은행명	위 치	전화번호	상 세 정 보
Bank Al Maghrib (중앙은행)	Av.Mohammed V, Rabat	037-702626	금융정책수립, 지폐발행, 정부재정관리
BMCE	140, Av.Hassan II,Casa	022-202470	모-불-이 공동출자
Cibank Maghreb	Zénith Millenium, imm. 1 lotiss, Attaoufik, Sidi Maarouf., Casa.	022-489600	Citibank

자료원: 카사블랑카 무역관

경제단체

단 체 명	위 치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모로코수출입업자협회 (ASMEX)	36 B, bd d'Anfa, Casa	212-22-261033 212-22-202215	www.asmex.org
상공회의소연합회	6, rue d'Erfoud, Rabat 51	212-37-767071	
카사블랑카상공회의소	Bd Mohammed V,Casa	212-22-264327	
카사블랑카박람회공사		212-22-271545	foire@ofec.co.ma www.ofec.co.ma
외환청 (Office de change)	Rabat	212-37-726134	

자료원: 카사블랑카 무역관

한국기관

기 관 명	위 치	전화번호	상 세 정 보
대사관	Madhi Ben Barka, Soussi,Rabat	(037)751767	영사과 동일건물
KOTRA	Tour des Habous,Casa	(022)31423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라바트한인회	Villa des Hotes Royaux	(037)753846	84.7 창립, 박재용회장

자료원: 카사블랑카 무역관

(자료원: telecontact)

타. 관광명소

모로코는 유럽, 아프리카, 중동 문화가 교차되는 지역으로서 유명한 관광지가 많으며, 주요 관광지는 주로 수도 Rabat 및 최대 상업도시인 Casablanca와 Marrakesh, Fes, Mekenes 등 옛 유적지를 들 수 있다. 또한 북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휴양지, 중부 Ifrane 과 그 주변, 남부 휴양도시인 Agadir을 포함하여, 아틀라스 산맥 남부 사하라 사막이 시작되는 지역들도 관광 명소이다.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Rabat-Sale 및 Casablanca 인근 관광지와 Marrakesh, Fes 등 옛 도시의 관광명소는 아래와 같다.

1) 라바트(Rabat)

대서양 연안에 자리잡은 모로코왕국의 수도로 인구 150만의 행정도시이다. 정치의 중심지로서 국왕이 거처하는 왕궁, 의회, 정부기관, 외국공관 등의 공공건물이 많고, 녹음이 짙은 거리들은 전원도시로서 차분한 분위기를 띠고 있다.

□ 메디나(Medina)

전통시장으로 우리나라의 남대문시장과 비슷하다. 안달루시아의 성벽과 알모하드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은과 구리로 만든 전통공예품과 가죽제품, 은제품 등 액세서리 상점이 늘어서 있어 아라비안 나이트의 세계를 연상시킨다. 스위스 거리와 교차하는 콩설 거리에는 골동품, 카펫 등 고급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많다.

□ 카스바 우다이아(Kasba des Oudaia)

옛날에 성채와 곡물창고였던 곳으로, 적갈색의 중후한 성벽에서 역사를 느끼게 된다. 완만한 계단을 올라가면 정면에 당당한 자세로 버티고 있는 것이 우다이아 문. 12세기말에 세워진 것으로 정교한 조각이 눈을 끈다. 성문을 지나 구 시가지를 들어가면 수 백 년 전에 지어진 주택가가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으며, 지금도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곳을 지나 해변 쪽으로 가면 대서양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성곽이 나온다. 동성곽 위에서 내려다보는 대서양의 경치는 여행에 지친 마음을 잠시 잊게 해준다.

□ 우다이아 정원(Jardin des Oudaias)

분수가 있는 안달루시아풍의 정원으로, 남국의 꽃들이 아름답다. 이 정원 안에는 민속악기들을 수집해서 전시한 악기박물관도 있고, 베르베르인의 결혼의상이나 카펫, 도기, 가구 등 민속 공예품을 전시한 우다이아 박물관도 있다. 우다이아 정원에서 부레그레그 강 하류와 살레 백사장이 보이는 곳에 위치한 전통 찻집은 관광객에게 널리 알려진 곳이다. 이곳에서 박하차(Mint Tea)를 한잔 하는 것도 여행의 피로를 덜어 준다.

□ 왕궁(Palais Royal)

물레이 하산 거리와 모하메드 5세 거리와의 교차점에서 Bab Rouah 문 쪽으로 조금 걸어가면, 왼쪽으로 위병이 서 있는 문이 있다. 그 문을 지나면, 흰 벽에 녹색 지붕인 호화롭고 장대한 건물이 보인다. 1894년에 세워진 왕궁으로 국왕이 거주하고 있다. 근처에는 국왕이 기도 하기 위해서 다니는 아루파스 모스크가 있다. 야간에는 왕궁으로 통하는 길의 문이 폐쇄 된다.

□ 모하메드 5세 묘(Mausolee Mohammed V)

현 국왕 모하메드 6세의 조부인 모하메드 5세 전 국왕의 묘로, 1912년이래 술탄 벤 유세프는 프랑스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의 선두에서 투쟁하였고, 1956년 3월 독립을 성취하자, 왕위에 올라 모하메드 5세가 되었다. 이 후 모로코 근대국가 건설에 힘쓰다가 1961년에 사망하였는데, 이 묘는 1962년부터 1969년까지 7년간 400여명의 장인들이 모여 완공하였다. 묘 속에 석관이 안치되어 있으며, 실내장식이 매우 훌륭하다.

□ 하산 탑(Tour Hassan)

알 모하드 왕조의 제 3대 야콥 알 만수르가 1192년부터 1197년까지 장대한 모스크의 건설을 시도했으나, 그가 사망하면서 공사는 중단되었다. 이 탑은 미완성인 채로 남겨진 환상의 모스크 첨탑이다. 1번 16m의 정사각형으로 높이 44m까지 올라가다 중단되었다. 탑의 남쪽에는 300개 이상의 돌기둥이 남아 있으며, 스페인 무어 양식의 대표적 건축물이다.

□ 고고학박물관(Musee Archeologique)

알브리히 거리에 있다.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출토품과 로마시대의 유적으로 유명한 보르 빌리스에서 옮겨진 모자이크, 대리석상, 청동의 유바 2세 상등이 전시되어 있어, 모로코의 고대사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박물관이다.

○ 샬레(Sale)

- 현재는 라바트의 위성도시에 불과하지만, 본래는 라바트에 앞서 11세기에 생겨난 유서 깊은 곳이다. 17세기에는 해적선의 본거지로 악명이 높았으며, 13-16세기에 축조된 건축물이 많아서 관광객을 끌고 있다.

□ 도자기 단지

이 지역은 원래 도자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곳이나,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단지 입구에 전통공예품 전시관을 설치하여 도자기, 목공예품, 은제품 등 각종 수공예품을 판매하고 있다. 전시관 뒤편으로 도자기를 생산하는 소규모 공장과 가게들이 줄을 이어 있다. 가게마다 모로코 특유의 디자인, 색상 등 특색이 있으므로 돌아보면서 마음에 드는 도자기를 사는 것도 재미있다.

□ 메디나(Medina)

라바트에서 배로 건너가면 부 하지(Bou Hadj) 문이, 그리고 하산 2세 다리를 건너면 트리사 문이 가깝다. 메디나 중앙에는 수크가 있다. 메디나의 변두리에 있는 북서쪽 요새에서는 대서양과 라바트 시가가 한눈에 들어온다.

□ 시장(Souk)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가게는 없다. 알 가젤 시장에서는 가젤의 양털이나 양털의 매매 광경이 사방에서 보이고, 알 케비르 시장에서는 주로 현 옷 따위가 매매된다. 근처에는 포장마차 형식의 간이식당이나 카페가 많고, 튀김과 박하의 향내가 가득하다.

2) 카사블랑카(Casablanca)

인구 350만의 최대 상업도시로, 15세기에 이 도시를 건설한 포르투갈인이 '카사블랑카'라는 이름을 명명하였으며, "흰 집"이라는 뜻이다. 험프리 보가트와 잉그리드 버그만 주연의 추억의 영화 "Casablanca"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세기에 들어와 서구풍으로 크게 개조되어 고층건물들이 많아지고, 거리는 차와 사람들로 번잡하다. 그러나 해안으로 나가면 호텔들이 즐비하고, 해변에서는 사람들이 한가롭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다. 상업 도시이면서 휴양지라는 양면성이 카사블랑카의 특징이다.

□ 핫산 모스크(Hassan Mosque)

카사블랑카의 상징인 핫산 모스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및 메디나에 있는 모스크에 이어 세계 3 번째로 큰 모스크로 전 국왕 핫산 2세 국왕이 국민의 성금을 모아 1987년부터 1993년 까지 7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모스크이다. 규모나 실내 장식 면에서 세계 제 1의 회교 성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광시간은 금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 11시 및 오후 2시에 영어, 아랍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가이드가 있으며 입장료는 1인당 100디람 이다.

□ 바 카사블랑카(Bar Casablanca)

모하메드 5세 광장 앞, Hyatt Regency 호텔의 1층에 있다. 왕년의 영화 {카사블랑카}의 "릭스 카페 아메리칸"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당시의 영화 포스터와 주연배우 험프리 보가트, 잉그릿 버그만 등의 사진도 걸려 있다. 피아노 연주자 생의 피아노 음악이 지금도 들려올 듯한 분위기이다. 세계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여행 중 잠시 들러 음료를 한잔 하면서 기념사진을 찍는 명소이다. Bar에서 한잔 하노라면 60년대의 영화 속에 온 듯한 기분이 든다. 음료값이 별로 비싸게 느껴지지 않는 Bar Casablanca는 연중 무휴이다.

□ 구 메디나(Ancienne Medina)

모하메드 5세 광장의 북쪽 해안에 옛 성벽으로 에워싸인 곳으로, 20세기 초 까지는 카사블랑카 시가의 전부였다. 메디나에 오면 19-20세기 초의 아랍 세계에 들어선 느낌이다. 규모가 작아서인지 관광객이 적고, 토산품보다는 생활용품을 파는 가게가 많다.

□ 카사블랑카 항구(Port Casablanca)

아프리카 최대의 항구로서 여객선, 화물선 등이 드나든다. 대서양에서 잡힌 신선한 생선과 새우 따위가 준비한 어시장도 있다. 항구 입구 근처에 있는 스페인식당(해산물 전문식당)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 양파 힐(Anfa Hill)

고급 호텔들이 늘어서 있는 코르니세 거리에서 존 F. 케네디 거리를 올라가면 약간 높은 구릉이 나타난다. 이 일대가 바로 카사블랑카에서 으뜸가는 고급주택가로 유명한 양파 힐이다. 1943년 당시의 처칠 영국 수상,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등 연합국 수뇌들이 이 지역에 있는 양파 호텔에서 회담을 가졌던 곳으로 유명하다.

□ 해변(CORNICHE)

카사블랑카에서 가장 정비가 잘 된 휴양지이자 관광지구이다. 끝없이 펼쳐지는 대서양을 끼고 약 2킬로 미터의 해변도로를 따라 호텔, 해수욕장, 레스토랑, 맥도날드, 커피숍 등이 늘어서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차량의 홍수를 이루며, 밤에는 재즈 바, 디스코텍 등에서 흘러나오는 노랫가락에 객고를 달랠 수 있는 곳이다.

3) 페스(Fes)

고대왕조 도시로 세계 최대의 미로라고 알려져 있는 이곳의 메디나에서는 중세의 세계가 지금도 활기를 잃지 않고 있다.

□ 페즈 알바리(Fes al-Bali)

왕도가 된 이후로 페스는 튀니지 출신이 모인 케로안 지구와 스페인 출신이 많은 안달루시아 지구로 나뉘어 발전하다가 하나로 통합되었다. 그 후 13세기에 이 메디나 인접에 새로운 도시 페스 자디드가 건설되자, 이전에 있던 옛 도시는 페스 알발리(Fes al-Bali)라고 불리게 되었다.

□ 부 즐루드 문(Bob Bou Jeloud)

페스 알발리의 서쪽 입구에 있는, 페스 알발리의 얼굴이라고 할 만한 문이다. 1913년에 세워졌는데, 바깥쪽은 페스를 상징하는 청색 타일, 안쪽은 이슬람을 상징하는 녹색 타일로 아라베스크 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 부 이나니아 신학교(Medersa Bou Inania)

14세기에 부 이나니아에 의해 세워진 메린 왕조 최대의 신학교로서, 무어 양식의 대표적 건축의 하나이다. 지금은 모스크로 되어 있다. 부 즐루드 문에서 탈라아 케비라 거리를 지나 이곳에 이르면, 거대한 나무문의 장엄한 모습에 놀라게 된다.

□ 카라원 모스크(Mosquee Qaraouiyne)

859년 케로안의 망명자 알페헤리의 딸 파티마에 의해 세워진 케로안인을 위한 모스크로서, 북아프리카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 모스크는 뒤에 케로안 대학으로 이용된 적도 있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의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지금은 다시 모스크로 사용되고 있다.

□ 안달루스 모스크(Mosquee des Andalous)

9세기에 스페인에서 이주한 이슬람교도를 위해 세워진 모스크인데, 페스 강 동쪽에 발달한 안달루시아 지구의 중심이라고 할 만하다. 모스크의 북쪽에 있는 "불후의 문"이 유명하다.

□ 폰두크 테투안(Fondouk Tsetouanine)

일찍부터 페스는 각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거래를 위해 다녀갔으며, 이곳은 테투안에서 오는 상인들이 숙박하던 곳이다. 14세기에 건축된 것으로 입구의 문이 훌륭하다. 지금은 카펫, 액세서리 등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가게로 활용되고 있다.

□ 수크 아타린(Souk Attarine)

부 이나니아 신학교 근처의 향신료 시장. 카르다뭉, 터메릭, 쿠민 따위의 향신료가 많이 진열되어 있어 향긋한 냄새가 떠돈다.

□ 태너리(Tanneries)

모로코 특산물의 하나로 가죽으로 만든 재킷, 구두, 가방 따위가 있는데, 이곳은 무두질한 가죽을 염색하는 작업장이다. 적, 황, 갈색 따위의 염료가 든 큰 기둥이 여럿 놓인 작업장에서 기술자들이 소, 양의 가죽을 씻기도 하고 염색하기도 한다. 주위의 흙벽에 붙여서 건조 시킨다.

□ 바트하 박물관(Musee du Batha)

부 즐루드 문에서 가까운 전통공예박물관이다. 19세기말에 왕궁으로 세워진 곳으로, 무어풍의 정원이 있다. 안에는 페스의 도기, 베르베르족의 카펫과 민속의상, 무기, 전통악기 등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문, 모자이크, 나무조각 등 건축의 각 부분을 전시한 코너는 모로코의 건축 양식을 알게 해준다.

□ 페스 자디드

페스는 13세기 메린왕조 때 가장 번영하고, 인구도 증가했다. 1276년 페스 알발리 남쪽에 신도시가 건설되었는데, 이것이 페스 자디드(Fes Jadid)이다. 여기에는 왕궁, 물레이 압달라 모스크(Mosquee Moulay Abdallah), 13세기에 세워진 알 함라 모스크(Mosquee al-Hamra), 유대인 거주구역 멜라(Mellah) 등이 있다. "자디드(새로운 도시)"라고 해도 7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고도이다.

□ 시디 하라젬(Sidi Harazem)

페스에서 동쪽으로 10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지역으로, 수영장과 유사하게 건축되어 있어 수영복 차림으로 이용한다.

□ 메린 왕조 묘지(Tombeaux des Merinides)

완만한 구릉에 많은 묘가 있는데, 14-15세기 술탄들이 여기서 영원히 잠들어 있다. 푸른 하늘을 등진 흰 묘석들이 눈부시다. 메디나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다.

4) 마라케시(Marrakesh)

대 아틀라스 산맥을 배경으로 해발 545m에 자리 잡은 도시로 사하라 사막 바깥쪽의 오아시스이다. 흙 색깔, 건물 바깥벽이 온통 붉은 색으로 "붉은 도시"라고 불리기도 한다. 겨울철에는 프랑스 등 유럽관광객들로 만원이다.

□ 메디나(Medina)

마라케쉬는 1062년 알 모라비드 왕조를 일으킨 유세프 이븐 타시핀에 의해 건설되었다. 모로코에서는 페스 다음으로 오래된 도시이다. 도시 건설은 그의 아들 알리에게 인계되어, 지금 메디나라고 불리는 구 시가는 그에 의해 건립되었다. 메디나는 시가의 동쪽에 위치하고, 주위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마라케쉬의 역사를 말해주는 건축, 유물 등은 대개 메디나 안에 있고, 서민의 주거 역시 오랜 세월을 거친 것이 많다.

□ 자마 알 프나 광장(Place Jamaa al-Fna)

"메디나의 고동치는 심장" 또는 "축제의 광장"이라고 불리며, 종일 인파로 붐비는 이 광장에는 댄스 부리는 사람, 줄타기를 하는 곡예사, 민속무용단, 짐승 부리는 사람 등이 모여들어 재주를 보이며, 관광객 상대의 포장마차나 노점도 있는 번화가이다. 광장의 이름은 "사자의 광장"이란 뜻인데, 전에 여기서 죄인을 처형하고 그들의 목을 걸어놓은 데서 유래한다.

□ 쿠투비아 모스크(Koutoubia Mosque)

마라케쉬의 상징이라는 쿠투비아 모스크의 탑은 시내의 어디서나 보이고, 어느 곳으로 가든 이를 길잡이 삼아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야말로 시가의 중심, 마라케쉬의 심장이다. 탑의 높이는 67m이고, 사원의 면적은 5,400m²로, 부지 안에 17개의 예배당이 있다. 앞에 3개의 황금 왕관을 얹은 탑은 아침저녁으로 햇살을 받아 더욱 아름다운데, 순수한 이슬람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 같다.

□ 메나라 별궁(La Menara)

1850년 율레이 압달 라만 왕에 의해 세워진 별궁, 풍부한 물이 고인 저수지와 퍼빌리언, 배경의 높은 아틀라스 산맥 등 당시의 미적 감각에 감탄하게 된다. 저수지의 1변이 200m로 주위의 올리브 밭에 물을 대주고 있는데, 메마른 대지 속에서 청량감을 느끼게 한다.

□ 아그노 문(Bab Aguentaou)

메디나에는 8개의 중요한 문이 있는데, 아그노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모로코의 역사와 관계가 깊은 문이다. 각 문의 모양은 제각기 특색 있는데, 그 중에도 아그노문과 남쪽의 알 케미스문이 가장 유명하다.

□ 알 만수르 모스크(카스바 사원, Al-Mansour Mosque)

아그노문에서 메디나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보이는 큰 회교사원인데, 사이딘 왕조 묘소의 입구에 있다. 흰 벽과 윗부분에 녹색 띠 모양의 장식을 한 첨탑의 대비가 아름답다. 사원 앞은 광장인데 마차 따위가 즐비하고, 선물가게도 많다.

□ 사아딘의 묘소(Tombeaux Saadiens)

사아딘 왕조 시대의 묘소로서, 16세기의 역대 왕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3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묘소에는 아부 압달라 알 카임 왕, 아부 알 아바 왕, 아메드 알 만수르 왕, 사아딘 왕조 최후의 율레이 알 아바 왕과 그의 친족들이 코란을 새긴 묘석 속에 안치되어 있다. 바닥 타일의 모자이크 무늬,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12개의 대리석 기둥, 천장의 섬세한 조각, 그리고 우아하며 균형 잡힌 아라비아 풍 실내 장식의 아름다움은 감동적 이기까지 하다.

□ 다르 시 사이드(Dar Si Said)

19세기말에 세워진 메디나의 궁전으로, 벽의 모자이크 무늬와 천장의 조각이 아름답다. 각처에서 수집된 민속 공예품이 한곳에 모여 있어 관광객에게는 매우 흥미 있다. 전시되어 있는 주요 품목은 민가의 문, 목걸이 따위의 장식품, 단도. 총포 따위의 무기, 주전자, 냄비 따위의 구리로 만든 생활도구, 민속악기, 가족제품 등이다.

□ 알베디 궁전(Palais al-Bedi)

16세기말 아베드 알 만수르 왕에 의해 세워진 궁전으로, 지금은 궁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채만이 남아 있다. 성채의 탑에는 야생의 학이 깃들이고 있어, 옛 왕조시대로 되돌아온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매년 6월 전세계 관광객이 모이는 마라케쉬 민속무용제의 무대이기도 하다.

□ 마조렐 공원(Jardin Majorelle)

프랑스의 장식미술가 마조렐이 설계한 식물원, 거대한 야자와 숲 속에 선인장과 대나무의 숲, 연꽃이 있는 연못이 있어, 햇살이 뜨거운 마라케쉬에서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이다. 여러 곳에 우아한 저택이 세워져 있어, 열대 식물 속에 참으로 훌륭한 공간미를 연출하고 있다. 지금은 프랑스의 디자이너 이브 생 로랑의 소유지이지만, 관광객에게도 개방되고 있다.

□ 바히아 궁전(Palais de la Bahia)

근대 모로코의 건축미와 정원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궁전인데, 1894년부터 6년간의 공사 끝에 준공된 것이다. 건물의 아름다움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특히 감동적인 것은 각각 다른 분위기의 안뜰이다. 타일을 입힌 벽에 쌓인 넓은 공간의 중앙에 샘이 자리잡은 기하학적인 안뜰이 있는가 하면, 재스민이나 부겐빌레아 등 푸른 초목이 무성한 안뜰도 있다.

□ 라바케드메 광장(Place Rahbakedme)

메디나의 중앙에 있는 광장인데, 일대가 장터로 되어 있어 마라케시 생활의 활기, 냄새, 서민의 숨결이 잡음과 함께 느껴진다. 카펫이 가득 드리워진 카펫 상점, 향신료를 가득 진열한 잡화점, 카멜레온을 파는 약장수, 이슬람 모자를 길에 늘어놓은 노점 상인 등이 주의를 끈다.

카사블랑카 - 주요도시간 거리 / Km

도시명	거리	소요시간	도시명	거리	소요시간
라바트	91	1 (고속도로)	탕제	369	4 (고속도로/국도)
마라케시	238	4 (국도)	페스	289	3.5 (고속도로)
메크니스	229	2.5(고속도로)	아가딜	511	8 (국도)

자료원: telecontact